

논문 개요

유아교육은 여러 가지 교수법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데에 비하여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는 그들만을 위한 획기적인 교수법이 따로 있었던 적이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의 대안학교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고등 과정의 대안학교가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공교육과는 다른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대안초등학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대안초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그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대안초등학교를 주제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되며, 대안초등학교 음악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전국의 34개 대안초등학교 중 음악수업이 있는 15학교를 대상으로 음악수업참관, 설문조사, 교사 인터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대안초등학교의 음악수업은 일반 공교육의 초등학교에 비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대안초등학교의 음악교육은 가창, 기악, 감상, 신체표현을 주로 하며, 국악교육에 있어서는 풍물수업을 주로 하고 있다.

셋째, 대안초등학교 학생들은 음악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매우 높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넷째, 음악수업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

다섯째, 평가는 개인·모둠별 악기 발표회, 음악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

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위의 결과를 토대로 대안초등학교의 음악교육 발전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위해 음악교육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새로운 교수법이 개발·시도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의 여건상 음악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는 근접한 거리에 있는 다른 학교와 통합수업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 학생들이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안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높은 참여도와 흥미를 보여주고 있다. 음악교육에 필요한 제반시설이 확충된다면 학생들의 음악수업 참여도는 더욱 높아지고, 전인적인 인간을 만드는 데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대안초등학교 음악교육의 현황을 보여주고,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5
3. 연구의 제한점-----	5
4. 용어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8
1.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8
1) 대안학교의 개념-----	8
2)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등장 배경-----	9
3)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현재 현황-----	11
2. 외국의 대안교육-----	11
1) 외국의 대안학교-----	11
2) 외국의 홈스쿨링-----	14
3.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분류-----	17
1) 인가형 대안학교-----	18
2) 비인가형 대안학교-----	24
3) 홈스쿨링-----	36
4. 선행연구 고찰-----	37

Ⅲ. 연구방법 및 절차-----	40
1. 연구 대상-----	40
2. 연구 도구-----	41
3. 연구절차 및 방법-----	43
1) 음악수업 참관-----	46
2) 설문지 배부 및 수거-----	46
3) 교사 인터뷰-----	47
4) 자료 수집-----	47
5) 통계 도구-----	47
Ⅳ. 연구결과 및 해석-----	48
1. 음악수업 참관-----	48
2. 설문지 결과 분석-----	96
1) 음악담당교사 설문지 분석-----	96
2) 5-6학년 설문지 분석-----	110
3) 학부모 설문지 분석-----	124
3. 결과 요약-----	136
Ⅴ. 결론 및 제언-----	137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1>우리나라 대안학교의 현황(2007년 ‘민들레’ 기준)-----	11
<표-2>외국의 대안교육-----	11
<표-3>국가별 홈스쿨링 현황-----	14
<표-4>미국의 홈스쿨링-----	16
<표-5>2006년 말 특성화학교 현황-----	18
<표-6>위탁형 대안학교의 운영 개요-----	21
<표-7>전국 위탁형 대안학교 기본 현황-----	22
<표-8>세포학교의 위탁준비 교육과정-----	23
<표-9>전원형 대안학교 현황-----	25
<표-10>2006 전국 도시형 대안학교 현황-----	27
<표-11>초등 관련 대안적 교육실험의 흐름-----	30
<표-12>2006 전국 대안초등학교 현황-----	32
<표-13>대안초등학교 입학 당시 1회 부담금액(기부금+ 예탁금+ 입학금)-	33
<표-14>대안초등학교 시설 형태-----	33
<표-15>산어린이학교 교육과정-----	35
<표-16>설문조사 대상 수거 학교 목록(가나다 순)-----	41
<표-17>음악교사 설문지의 구성내용-----	42
<표-18>5-6학년 설문지의 구성내용-----	42
<표-19>학부모 설문지의 구성내용-----	43
<표-20>연구자가 찾은 전국의 대안초등학교 목록-----	44
<표-21>연구대상 확정 목록-----	44
<표-22>연구대상 학교목록과 참관 날짜(방문날짜 순)-----	45

<표-23>설문지 배부 및 수거 현황(가나다 순)-----	46
<표-24>두레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52
<표-25>어린이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56
<표-26>칠보산자유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58
<표-27>샘물학교 음악수업 시 퀴즈의 유형-----	61
<표-28>샘물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63
<표-29>구름산초등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66
<표-30>행복한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68
<표-31>산어린이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71
<표-32>문화교육들살이의 음악교육 현황-----	75
<표-33>평화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78
<표-34>꽃피는학교(하남) 5학년의 꽃피는 음악회 발표 순서-----	81
<표-35>꽃피는학교(하남)의 음악교육 현황-----	83
<표-36>빛고을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86
<표-37>꽃피는학교(대전)의 음악교육 현황-----	89
<표-38>전인새싹학교(춘천)의 음악교육 현황-----	93
<표-39>맑은샘학교의 풍물수업 그룹의 성격-----	94
<표-40>맑은샘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95
<표-41>음악담당 설문지 수거 현황-----	97
<표-42>교사의 인적사항-----	97
<표-43>교사의 구체적인 전공-----	99
<표-44>음악외에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과목-----	99
<표-45>음악실의 유무-----	100
<표-46>음악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100

<표-47>악기보유현황-----	101
<표-48>현재 보유한 악기가 음악수업 및 음악관련 활동에 충분하다고 생각 하는가?-----	102
<표-49>더 갖추어야 할 악기-----	102
<표-50>수업준비의 자료-----	103
<표-51>수업방식-----	104
<표-52>음악수업 시 악기활용도-----	104
<표-53>음악교육 내용 선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 반영도-----	105
<표-54>음악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장르-----	105
<표-55>음악수업시간의 교사의 역할-----	107
<표-56>각 학교별 음악관련 활동 현황-----	107
<표-57>개설하고 싶은 음악관련 활동-----	108
<표-58>평가방법-----	109
<표-59>평가의 수치화 방법-----	109
<표-60>설문에 응해준 학생들의 학교와 빈도-----	111
<표-61>성별-----	111
<표-62>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다른 일반학교와 교육방식이 다르다는 것 을 알고 있는가?-----	112
<표-63>지금 다니는 학교를 오게 된 이유-----	112
<표-64>전에 다녔던 학교와 지금 다니는 학교 중 어느 학교가 좋은가? -----	114
<표-65>지금 다니는 학교의 맘에 들지 않는 점-----	114
<표-66>지금 다니는 학교의 맘에 드는 점-----	115
<표-67>음악수업은 재미있나요?-----	116

<표-68>네:재미있다면 무슨 활동을 할 때 재미있는지 모두 골라주세요 -----	116
<표-69>아니오:그래도 재미있는 걸 한 가지만 고른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	116
<표-70>음악시간에 배우고 싶은 악기-----	117
<표-71>음악시간에 하지 않았으면 하는 활동-----	118
<표-72>전에 다녔던 학교와 지금 학교 중 어느 음악수업이 더 재미있나요? -----	118
<표-73>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음악수업시간에 발표가 늘었나요?-----	119
<표-74>각 학교별 음악관련 활동 현황-----	119
<표-75>현재 음악관련 활동에 대한 만족도-----	120
<표-76>현재의 음악관련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가-----	120
<표-77>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했던 음악관련 활동-----	121
<표-78>앞으로 음악관련 활동에 들 생각이 있는가-----	121
<표-79>새로 생겼으면 하는 음악관련 활동-----	122
<표-80>음악회 경험의 유무-----	123
<표-81>어떤 음악회였나-----	123
<표-82>누구의 추천으로 음악회를 가게 되었나-----	123
<표-83>음악회를 또 보러 가고 싶은가-----	124
<표-84>어떤 음악회를 보러 가고 싶은가-----	124
<표-85>학부모 상대 설문지 학교별 수거 현황 목록-----	125
<표-86>학부모 나이-----	125
<표-87>학부모 최종학력-----	126
<표-88>해외유학/연수/거주의 경험 유무-----	126

<표-89>해외 경험 나라-----	126
<표-90>해외 거주시 대안교육에 대한 정보를 접한적이 있는가-----	126
<표-91>이 학교를 누구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나-----	127
<표-92>학교 선택시 주안점 3가지-----	128
<표-93>자녀를 일반학교로 옮길 생각이 있는가-----	128
<표-94>자녀를 일반학교로 옮길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는-----	129
<표-95>자녀를 다른 대안학교로 옮길 생각이 있는가-----	130
<표-96>다른 대안학교로 옮길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는-----	130
<표-97>주변에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하겠는가-----	131
<표-98>자녀가 음악은 좋아하는데 이론적인 면에서 약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132
<표-99>자녀가 공교육에서 중요시 하는 과목이 약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132
<표-100>학교 외부에서 자녀가 배우고 있는 악기-----	133
<표-101>학교에서 음악수업을 참관할 기회를 주었나-----	133
<표-102>참관을 하였다면 맘에 들었는가-----	133
<표-103>맘에 들었던 이유와 맘에 들지 않았던 이유-----	134
<표-104>음악교육에 있어서 우선시 해야하는 장르-----	135
<표-105>전인적인 교육에 있어서 음악교육은 필요한가-----	13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몬테소리’¹⁾, ‘프뢰벨’²⁾, ‘가베’³⁾, ‘은물’⁴⁾, ‘발도르프’⁵⁾, ‘프로젝트 수업’⁶⁾, ‘레지오 에밀리아’⁷⁾, ‘BTI 온머리 교육’⁸⁾, ‘전뇌교육’⁹⁾, ‘오르다’¹⁰⁾, ‘현장학습’ 등의 용어들 중 한 두 개 짝은 들어보았거나 문구(文句)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을 볼 수 있는 곳은 주거 밀집지역, 특히 신도시/수도권의 대단지 아파트에서이다. 위의 용어들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얼 뜻하는지는 몰라도 어디에서, 누구에게 사용되는지 정도는 눈치 챌 수 있다. 왜냐하면 동네 유치원의 원아모집 현수막에 인쇄되어 있는 문구(文句)들이기 때문이다.

분당 오르다 교육연구소 교사인 윤지현에 의하면 유치원 교수법에도 유행이 있다고 한다. 10년 전쯤엔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이 핵심 문구(文句)였

- 1) 몬테소리(Montesori)-이탈리아의 교육자인 마리아 몬테소리가 실시한 교육방법으로 자유성, 정리된 환경, 감각교육을 강조한 교육
- 2) 프뢰벨(Froebel)-독일의 교육학자이며 유치원(Kindergarten)의 창시자이며 가베 창시자이다.
- 3) 가베(Gabe)-프뢰벨이 어린이들의 놀잇감으로 창시한 교구수업
- 4) 은물-‘가베’의 일본식 이름
- 5) 발도르프(Waldorf)-발도르프 교육은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인간학을 기초로 하고 있는 교수법으로, ‘Waldorf Astoria’라는 담배회사의 사장인 에밀 몰트(Emil Molt)의 후원으로 회사 직원의 자녀들을 교육 시킨 것을 시작으로 하였다. 발도르프 교육학의 모든 단계는 교과 과정에 철저히 스며들어 있고 발도르프 유치원의 교육목적도 전인적인 인간교육을 추구하는데 있으며 놀이를 중시하는 교육을 한다.
- 6) 프로젝트 수업-한 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수업
- 7) 레지오 에밀리아(Reggio Emilia)-이탈리아 북부 레지오 에밀리아 시(市)가 발전시켜온 교육과 사회적 서비스가 통합된 독특하고 혁신적인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철학과 교육/보육방법, 기관 조직, 환경구성을 통칭하는 것이다. 진보적인 사고와 연구, 실험에 뿌리를 둔 교육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장·단 기간 동안의 표상을 한 주제의 깊이 있는 학습에 초점을 둔다. 주제는 교사와 어린이들에 의해 발생되고 어린이의 현재 관심에 의존한다.
- 8) BTI 온머리교육-좌뇌와 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교육
- 9) 전뇌교육-각주 8)과 같은 내용으로 각 회사마다 타이틀만 다르게 잡은 것뿐이다.
- 10) 오르다(Orda)-이스라엘의 게임 교구인 ‘오르다’를 통한 사고력 확장 수업

다면, 요즘은 ‘프로젝트 수업’과 ‘레지오 에밀리아’가 핵심 문구(文句)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초·중등 교육에서 교수법과 관련시킬 수 있는 용어 중 유행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유행하는’ 이라기보다 ‘이슈가 되는’으로 바꾸는 편이 낫겠다. 왜냐하면 아직 초·중등 교육에서는 유치원에서처럼 어떤 교수법이 퍼졌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여러 교수법들의 시도가 활발한데 비해 초·중등 교육에서는 획기적인 교수법이 따로 있었던 적이 없다.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만 있어왔을 뿐이다. 그로 인해 교육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교육의 붕괴’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대책마련을 요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1990년대 초 ‘열린교육’¹¹⁾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이제는 교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열린교육은 일반 공교육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대안교육’과도 연관성이 있다. ‘대안교육’이란 현행 학교교육의 문제를 비판하고 공교육과는 다른 안(案)으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이슈가 되는’이라는 수식어를 이 ‘대안교육’이라는 용어 앞에 조심스럽게 붙여본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대안교육’과 ‘열린교육’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봐야한다. 비슷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열린 교육’과 ‘대안 교육’ 모두 공교육의 폐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온 용어이며, 대안학교는 열린 교육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다르다고 한 이유는 열린 교육은 공교육의 일반학교, 대안학교, 학원, 가정 등 모든 곳에 대입(代入)시킬 수 있지만, 대안교육은 그 어디에도 대입

11) 열린교육이란 하버드 대학의 바쓰(Barth)가 최초로 쓰기 시작한 용어로 Open Education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열린 교육이란 Open curriculum (교실의 벽을 없앤다), Open space school (열린 공간학교), school without wall (벽 없는 학교), school of integrated curriculum (통합된,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 교육과정)이 통합된 교육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代入)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대안교육에서 ‘대안(代案)’이라는 말 자체가 ‘현 공교육을 대신하는 안(案)’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린교육을 하고 있는 공교육’이라는 말은 할 수 있어도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공교육’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대안교육’은 대안교육 그 자체이다.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하는데, 초기의 대안학교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초등학교 보다는 중·고등학교 교육에서의 문제성이 심각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막기 위한 여러 방편으로 대안교육이 시행되었으며, 1997년에는 초·중등교육법에 특성화학교¹²⁾ 조항이 새로 신설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대안학교는 점차 그 대상의 연령을 낮춰 2000년도 초반부터 대안초등학교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유치원 과정까지 함께 두고 있는 대안초등학교¹³⁾도 있다. 그 동안의 대안학교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고, 지금의 대안학교는 공교육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되었다.

이렇게 사회의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대안학교의 미래는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으며, 두 번째는 정부의 지원, 세 번째는 정치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이유인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음은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방안 연구」¹⁴⁾라는 학술지에 나타나 있다. 이 학술지에는 대안교육

12) 용어정의 참고

13) 어린이 학교는 꾸러기학교(유치원과정), 어린이학교(초등과정), 멋쟁이과정(중·고등과정) 으로 나뉘어 있다.

14) 연구책임자:김영화, 공동연구원:서정화 · 황홍규,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방안 연구, 발행자:홍익대학교 사범대학, 2001(이 연구는 2000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다)

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설문 대상은 일반 공교육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대안교육 운동에 대한 동감 정도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72.1%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공교육의 부실함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인 정부의 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12.19 보도 자료에서 보여 진다. 자료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6년 11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사업에 공모한 총 79개의 교육기관을 심사하여 총 55개 기관에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2,400만원까지 총 7억 9천만원을 지원했다. 이것은 대안학교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가들의 관심을 들 수 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호는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국 홈스쿨링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2007년 1월 13일 열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바로 대안교육을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에 있어서는 대안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만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대안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¹⁵⁾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로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 정도이다.

고로, 본 연구의 목적은 대안초등학교 음악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 초등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실태 분석/ 안봉선/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7, 초등대안학교 신체활동 교육에 관한 연구/ 김은정/ 공주대 석사논문/ 2007, 기독교 초등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비교연구:어린이 학교, 두레학교, 샘물기독교학교를 중심으로/ 이희순/장로회신학대학 석사논문 외에 두 개의 석사논문이 더 있고, 학술지로는 3개의 학술지가, 단행본으로는 대안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대안초등학교 음악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며,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안초등학교의 음악과목 운영 실태 즉, 주당 시수, 음악교사의 임용 형태, 음악교육에 필요한 자재 및 교구 현황, 음악관련 활동 등과 학부모들의 음악교육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학생들의 음악수업 참여도와 흥미도 등을 조사한다.

둘째, 대안초등학교의 음악교육은 어떤 장점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다.

셋째, 대안초등학교 음악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전국의 대안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형식, 운영방법, 종교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대안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방문 또는 설문조사를 할 수 없는 학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국내 모든 대안초등학교의 음악교육으로 일반화 시킬 수 없다.

셋째, 음악수업참관은 각 학교당 1회 내지 2회만 하기 때문에, 참관 결과만으로 그 학교 음악수업의 전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넷째, 음악수업참관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

가 개입될 가능성이 발생하여 연구 결과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4. 용어 정의

1) **대안교육**-현행 학교교육의 문제를 비판하고 공교육과는 다른 안으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대안학교**-대안학교의 의미에 대한 개념규정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현재 보편적인 학교교육, 공교육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그와는 다른 것을 대신 할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추구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대안학교는 매우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며, 흔히 말하는 대안학교란 인가받지 못한 학교를 의미한다.

3) **특성화 고등학교**-1997년에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상의 특성화학교 조항에 따라 정식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뜻하며,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이고 다른 하나는 직업 교육 중심의 특성화 학교인데, 흔히 대안학교라고 말하는 것은 전자인 인성교육 중심의 특성화 학교를 말한다.

인성교육 중심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흔히 말하는 ‘학교 부적응’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성지, 화랑, 원경, 양업, 두레자연)와 일반 아이들을 위한 학교(간디, 푸른꿈, 한빛, 세인)로 나뉘는데,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4) **대안초등학교**-수도권을 중심으로 공동육아, 종교단체, 지역운동 및 교육운동 등을 모태로 하여 생겨난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위탁형 대안학교**-일반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학교가 맞지 않는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전학과 달리 원래 다니던 소속 학교에 학적을 두고 위탁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소속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위탁기간은 보통 1년이지만, 소속 학교장과 위탁 기관장의 협의 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출결과 성적은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취득한 그대로 소속 학교에서도 인정이 된다. 위탁형 대안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퇴학이나 자퇴를 유보해야 하며, 정규 학교 중퇴자 중 재입학이나 편입학을 통해 학적을 회복한 후에만 위탁형 대안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6) **홈스쿨링**-학령기의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부모들이 직접 또는 외부의 도움과 연계하여 가정에서 아동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인과 「민들레」¹⁶⁾를 중심으로 홈스쿨링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16) 「민들레」-‘교육 끝 학교’라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삶이 곧 배움’이라는 새로운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애쓰는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로써 1999년 1월 창간하였고, 격월로 홀수 달 25일경 발행되고 있다. <http://www.mindle.org/>

Ⅱ. 이론적 배경

1.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1) 대안학교의 개념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 대한 개념은 논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강대중은 “대안교육은 1990년대 이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공교육 제도로서의 학교교육을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거부하며, 일부 학부모와 교사, 교육 운동가를 중심으로 민간부분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 실천이다. 대안학교는 이러한 실천이 학교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뜻한다.”¹⁷⁾ 라고 정의하였고, 학술지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 연구」¹⁸⁾에서는 대안교육을 “기존의 제도권 학교교육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불만에서 나름대로의 교육적 신념과 이상으로 실천하고 운영하는 교육운동을 포괄한다.” 라고 정의하면서 대안학교는 “학교라는 제도 유형을 따르면서 대안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그 외에 교육백과 사전에서는 “대안학교는 표준적인 공립학교들이 제공하는 것과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아동과 학부모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학교”라고 정의하였고, 정유성¹⁹⁾은 ‘제도에 비켜서 있다가 제도 곁에 들어오는 고전적 대안학교에 비해 제도 밖에서 새로운 교육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험학교 운동이 더

17) 강대중,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박영물 출판사, 2002

18)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운영방안 연구, 연구 책임자:이병환, 공동연구원:정영근
• 김순남, 연구협력관:권영민• 김진규, 2004.11, 교육인적자원부(p14)

19) 정유성(1956)-현 서강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저서로는 「사람살려 교육살려」(한울, 2002.7)

대안적이라고 하며 여기서 대안적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이상향을 품은 교육의 새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자체까지 기존의 것과 다른 방식으로 꺾히는 학교'로 보고 있다.²⁰⁾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 3항에서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대안교육에 있어서의 ‘대안’이라는 개념은 논자(論者)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이는 결국 기존 제도교육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현대의 교육을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해보고자 하는 공통된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²¹⁾

2)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등장 배경

우리나라의 1950년대에는 빈곤 청소년들을 위한 천막학교, 1960년대에는 야학과 고등공민학교, 1970년대부터는 도시 빈민지역이나 소(小)공장 밀집 지역에서 천막학교나 교회 부설 학교 등의 야학이 등장하였다.²²⁾ 이러한 천막학교나 야학교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는 대안교육이다. 그 이후 1980년대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방과 후 방치되고 있는 빈민지역의 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부방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²³⁾

20) 김석환, 대안학교의 음악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p10(재인용)

21) 이선숙, 대안학교와 학생들의 생활 이야기, 교육과학사, 2001

22)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야학은 노동운동과 연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으며 노동야학이 지향했던 핵심가치는 의식화와 해방이었다. 또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발도르프 교육, 몬테소리 교육, 알마니 프리스쿨 등은 모두 노동자/민중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노동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다.

23) 대안교육 현재와 다음을 위하여, 이철호, 2007, 무지개학교(이 글은 2007년 6월 17일 무지개학교 지원자 워크숍을 위하여 기존의 자료를 편집한 것이며, 편집에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임후남, 대안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 대안학교들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제도는 1950년 6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초등6년과 중등3년 총 9년이다.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으로 확대되지 않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교육통계조사자료²⁴⁾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취학률은 93.6%로 완전취학 단계에 접근하였다. 의무교육제도는 낮은 취학률을 끌어올리고, 국가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재원을 키워내는데 성공은 하였으나, 획일화되고 엘리트 중심의 사회로 인한 부작용 또한 커지게 되었다. 개인의 차가 인정되지 않는 집단 교육, 권위적인 교사중심의 교육, 치열한 입시경쟁 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자유속에서의 교육은 가출, 학업 중단, 폭력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위와 같은 교육의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1996년 말에는 교육부가 학교 중도탈락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안교육이 정책적 고려 대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97년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대안학교’를 특성화학교라는 새로운 학교유형으로 법제화하면서 2001년에는 11개의 대안학교를 제도교육권에 편입시켰으며,²⁵⁾ 2006년에는 21개의 특성화 고등학교²⁶⁾로 늘어났다. 그 외에 대안교육의 제도화 경향과는 별도로 민간 부문에서의 대안교육 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어 유·초등 단계까지 확장되고 그 실천형식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교육의 역사와 현황. 헌병호, 대안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치열, 대안교육에는 대안이 있는가. 이철호, 한국교육을 지배하는 거짓신화를 벗긴다.)

24)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8.24

25) 이종각, 초·중등 단계에서의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1

26) 대안학교 음악교육의 현황과 실태 분석 연구-특성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김현숙,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3)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현재 현황

2007년 현재 ‘민들레’에 등록되어 있는 대안학교의 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등록하지 않은 학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많아진다.

<표-1>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현황(2007년 ‘민들레’ 기준)

특성화 중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개	20개
도시형 중등학교	15개	
전원형 비인가 중등학교	16개	
초등 대안학교	27개	
위탁형 대안학교	26개	

2. 외국의 대안교육

1) 외국의 대안학교

대안교육은 각 나라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도 다르다. 다음 <표-2>는 외국의 대안교육의 간략한 특징과 대표적인 학교들이다.

<표-2> 외국의 대안교육

나 라	대안교육의 현재 상황	대표적인 대안학교 ²⁷⁾
영 국	*공교육에서 진보주의 교육적 문제제기를 상당부분 받아들여 문제제기의 유효성이 예전처럼 심각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처럼 대학입시만을 위한 단선적 교육모델과 달리 영국은 다선적 교육모델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부모가 추가로 교육비를 부담해가며 대안학교를 고집해야 하는	섬머힐 학교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서머힐을 비롯한 많은 대안학교가 학생 수의 상당 비율이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²⁸⁾	
독 일	<p>*독일의 대안학교는 학교운영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학 이념에 맞춰 필요한 기타 기관을 하나씩 세워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²⁹⁾</p> <p>*대안학교 적용 조건-1.사립학교여야 한다. 2.비인가로 운영 불가능 3.홈스쿨링은 불법 4.인가학교는 정부보조를 받지만 공립학교에 비해 적은 보조를 받는다.(일정기간 최고 5년까지 정부기금 없이도 학교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³⁰⁾</p>	프랑크푸르트 자유대안학교, 발도르프 학교, 숲 유치원, 발도르프 유치원
일 본	<p>*이지메와 부등교의 심각성으로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일본의 대안교육 시설은 미인가로 운영되지만 학력은 인정된다.³¹⁾</p> <p>*‘프리스쿨’, ‘홈 에듀케이션’, ‘프리 스페이스’ 세 부류로 구분된다.³²⁾</p>	도쿄슈레, 키노쿠니학교, 고마자와 하라과 플레이파크
미 국³³⁾	<p>*홈스쿨링이 발전하였으며 홈스쿨링 가정은 직접 교육과정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사설 출판사³⁴⁾와 사설 통신 과정³⁵⁾을 통하여 홈스쿨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한다.</p> <p>*대안학교는 1970년 전후를 기점으로 사립 뿐 아니라 공립 대안학교로도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다.</p>	메즈고교, 올버니 프리스쿨, 우파티나스 학교
덴마크³⁶⁾	덴마크의 대안학교 ‘프리스쿨’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공립학교와의 사이에서 전학이 서로 가능하다. 전체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13%정도가 ‘프리스쿨’에 다니고 있으며 덴마크에는 210개의 프리스쿨이 있다.	프리스쿨
프랑스³⁷⁾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프랑스 교육부는 교육적 손실이나 학교 내 폭력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CLEPT, 개방학교,

	<p>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는 ‘불안정한 학교’ (즉, 사람과 재산과 학교 자체에 대한 폭력이 행해지는 학교)의 지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학교’의 개념은 학교의 실패율이 국가 전체의 평균을 훨씬 웃도는 ‘최우선 교육 지역’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불안정한 학교들은 부가적인 자원과 많은 수의 교사들, 보조 교직원 등을 지원받으며 이 학교의 교장에게는 높은 액수의 봉급이 지급된다. ‘최우선 교육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받고, 때에 따라서 다문화간 교육 프로그램을 행하고 있다.</p>	<p>오토에콜, 대체학교</p>
<p>스페인 38)</p>	<p>*1998년 ‘교육체계에 관한 일반 조직법’은 직업교육과 실습의 구조개혁이라는 주요 목표를 갖고 개정되었으며, 스페인에서의 직업교육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일반적인 교육 수준에 발맞추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과중한 학문적 집중을 줄이고 현실적인 직업 수련과 지방의 취업 기회 확대에 보다 근접하게 상응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p>	<p>사회노동센터, 라호타, 올리베르</p>

27) <부록-1> 참고
28) 격월간 <민들레> 44호
29) 강혜정, 초등학교에서의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발도르프 학교-치료교육시설, 특수교육시설, 앙로원, 복지시설, 병원시설, 자유 자연과학대학, 예술대학, 생명농학대학, 연구소, 농장, 청소년 교육시설, 사회교육센터, 공동체 은행, 출판사 등의 1200여 개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0) 헨리크 에벤벡(Henrik Ebenbeck), 교육인적자원부, 2006. 10. 20 보도자료 p72
헨리크 에벤벡-신학, 사회학, 역사, 교육학을 공부하였으며 1994년부터 라이프찌히 자유학교에서 교사로 일해왔다. 2003년부터 전국자유학교연합의 운영위원직을 맡아오고 있다.
31) 강대중,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박영물 출판사, 2002
32) ‘프리스쿨’은 도쿄슈레 같은 대안학교, ‘홈 에듀케이션’은 홈스쿨링, ‘프리 스페이스’는 청소년 컴퓨터 번역 할 수 있다.(강대중,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박영물 출판사, 2002)
33) 강대중,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박영물 출판사, 2002 (p177, p196)
34) Beka Home School, Konos Curriculam, Saxon Publishers등
35) 플로리다, 캔터키, 메사츄세츠, 네브래스카, 하와이, 콜로라도, 유타 주에 온라인 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규과정을 마치면 졸업장도 부여한다.

2) 외국의 홈스쿨링

홈스쿨링은 학교를 대신하여 가정에서 취학 적령기의 아동들이 그들의 부모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다음 <표-3>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이주호의 주최로 열린 간담회(2007. 1. 31)에 나타난 국가별 홈스쿨링 현황이다.

<표-3> 국가별 홈스쿨링 현황³⁹⁾

국가	의무교육 연령	허용 여부	법적 현황	홈스쿨링 학생 수
미국	6-16	허용	주마다 틀림	109.6만명
일본	7-14	불법 (허용)	법이 불투명하여 법적문제는 아직까지 없음	600-800 가정
대만	초등·중 학교교육	합법	학생교육성과를 평가하는 지역홈스쿨링 위원회에 연초 통보함	500 가정
프랑스	6-16	합법	단, 매해 의무적으로 거주지 및 시험평가를 받음	500 가정
독일	6-15	불법	400가정 모두 불법으로 진행 또는 법적 심사 중	400 가정
호주	6-15	허용	호주는 6개 State와 2개의 Territory로 나뉘어져 각각 교육법이 다름	15,000명
이스라엘	3-15	허용	교육부 장관 허용 시 가능함	수백명
영국	5-16	합법	최대한의 자율을 보장하는 홈스쿨링임	2만-10만명
불가리아	6-16	불법	물리·정신 장애자에게만 허용	100가정이하
케냐	6-14	허용	헌법 재개정 중임. 차후 합법 예정	30-50 가정
네덜란드	5-16	불법	종교라는 명목 하에 의무교육을 피할 수 있음	100 가정
폴란드	7-18	허용	폴란드 헌법 상 학교 선택이 가능하나 홈스쿨링 위해 학구 필요조건에 따라야 함	20 가정

36) <http://cafe.naver.com/chosc/452>

37) 스콧 볼디트(Scott Boldt), 교육인적자원부, 2006. 10. 20 보도자료 p172

스콧 볼디트-Marino 교육연구소의 연구원이자 Edgehill College 기획조정관이다. 그는 학업중단 및 조기 탈학교생 및 교수방법 분야에 관한 다수의 저술 및 연구를 했다.

38) 스콧 볼디트, 교육인적자원부, 2006. 10. 20 보도자료 p148

39) 한국 홈스쿨링 도입을 위한 간담회, 국회의원 이주호 주최, 2007. 1.31. p14

남아프리카 공화국		합법	국가교육법에 따라 합법이지만, 지역별 차이 있음	5천 가정
우크라이나		합법	합법이지만 지역당국에서 무시하는 경우 발생	100 가정
브라질	7-14	불법	공식 상 불법임	100 가정
체코		합법	5-12세 학생을 대상으로 5년간 실험적 단계로 도입	500 가정
아일랜드		합법	공식적으로 합법이나 “타당한 통제”하에 진행됨	300-400 가정
뉴질랜드	6-15	합법	교육부 등록 시 가능	5,697명
한국	7-15	허용	법은 애매모호하며 민간단체의 지지로 홈스쿨링은 통제받고 있지 않음	600-1000 가정

①미국의 홈스쿨링

종교적 이념⁴⁰⁾과 더불어 1970년대 일어난 프리스쿨 운동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홈스쿨링은 교육운동과 사회운동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1990년대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미국의 부모들이 홈스쿨링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공립학교는 교육의 질이 마음에 들지 않고 사립학교는 학비가 비싸서 감당할 수 없는 부모들의 형편 때문에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⁴¹⁾

미국에서의 홈스쿨링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40) 1979년 미국 유타 주에서 몰몬교 신도인 한 농부(John Singer)가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가정에서 교육하겠다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자녀를 교육시켜야 한다는 “의무교육”과 자녀를 반드시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의무취학”에 대한 구분이 생기게 되었고, 대부분의 주에서 홈스쿨링을 하나의 합법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결국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던 한 아버지의 희생으로 홈스쿨링은 합법화 될 수 있었다.

41) <http://cafe.naver.com/chosc/455>

<표-4> 미국의 홈스쿨링⁴²⁾

허가	*교육관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역교육위원회에 세부사항을 통보하여 홈스쿨링 허락을 받아야 하는 지역도 있다.
교육과정	*지역마다 다양하다. 교육과정이나 학습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며, 몇 개의 주는 계획서 대신 지정과목 이수를 요구하기도 한다. *많은 지역에서 ‘재택 공립학교프로그램’을 통하여 집에서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시험과 평가	*많은 주에서 홈스쿨링 학생에게 시험 및 평가결과를 요구한다. -표준화된 시험 성적을 요구하거나 자격증을 가진 교사의 평가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다. -학부모의 평가를 통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허용하기도 한다. *공립프로그램 등록학생은 매 학년 말 학업성취도 시험에 응시하고, 사립 프로그램 학생은 평가 의무가 없다. -평가 없이도 대학 지원에 불이익이 없다.
졸업	*홈스쿨링을 사립학교로 간주되는 주의 경우, 사립학교 졸업조건을 적용하나, 사립학교 졸업조건이 없는 주도 있다.
학생 현황	*1999년 85만명(총학생 대비 1.7%)에서 2003년 109.6만명(2.2%)으로 증가

② 영국의 홈스쿨링⁴³⁾

영국의 1944년 교육법 제36조에는 ‘의무취학 연령의 아동을 둔 학부모는, 그를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or otherwise)으로 그의 나이, 적성 및 능력에 알맞은 효율적인 전일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아니면 다른 방식’이라는 교육법의 조항을 학부모들이 발견한 것은 1976년의 일이다.

42) 한국 홈스쿨링 도입, 국회의원 이주호, 2007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호의 주최로 한국 홈스쿨링 도입을 위한 간담회의 정책 자료집 55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43) 김재웅, 홈스쿨의 의미와 한국에의 적용, 홈스쿨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자료, 2003.7.30

의무교육과 의무 학교 취학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모인 약 10가정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1977년 교육법의 조항에서 가져온 이름인 ‘다른 교육(Education Otherwise)’이라는 학부모 단체를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홈스쿨링을 전개해 가기 시작했다.

3.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분류

대안학교를 분류할 때는 운영형식, 운영방법, 교육이념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며⁴⁴⁾, 「대안교육백서」⁴⁵⁾에서는 제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인가형 대안학교와(특성화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비인가형 대안학교(중등-전원형 대안학교, 중등-도시형 대안학교, 초등 대안학교, 통합형 대안학교)로 나누고 있다.

본 연구자는 「대안교육백서」를 참고하여 유형을 나누었으며, 그 과정에서 통합형 대안학교는 빼고 홈스쿨링을 다른 챕터로 넣었다. 통합형 대안학교를 빼 이유는 중등-도시형 대안학교와 초등 대안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고, 홈스쿨링을 첨가한 이유는 홈스쿨링도 대안교육의 한 부류로써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때문이다.

44) 제도교육과의 관계에 따라 ‘제도교육 안’, ‘제도교육 곁’, ‘제도교육 밖’으로 나누기도 하며, 핵심적인 교육이념에 따라 ‘자유학교형’, ‘생태학교형’, ‘재적응형’, ‘고유이념 추구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김현숙, 대안학교 음악교육의 현황과 실태 분석연구-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2006 (재인용)

45) 대안교육백서 1997~2007, 교육인적자원부, 2007

1) 인가형 대안학교⁴⁶⁾

① 특성화학교

▶설립배경 및 현황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학교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시민 단체들이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나 주말, 방학을 이용하여 대안적인 이념을 추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7년 간디 청소년학교의 개교를 계기로 대안교육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 후 1998년 6개의 학교가 새로 설립, 특성화학교로 지정되었고, 1999년~2000년 사이에는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특성화학교가, 2002년에는 경기도 교육청이 만든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인 경기대명고가 개교하였다. 2002년 이후부터는 고등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은 줄어드는 반면 초·중등과정에서의 탈학교생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자 특성화 중학교도 생기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특성화 중학교는 송학성지학교이다. 2006년 말 현재 모두 28개의 특성화학교가 문을 열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5> 2006년 말 특성화학교 현황

구분	시도	학교명	지정년도(년)	설립별	
특성화 고등학교	부산	지구촌고	2002	사립	
	대구	달구벌고	2003	"	
	인천	산마을고	2000	"	
	광주	동명고	1999	"	
	경기		두레자연고	1999	"
			경기대명고	2002	공립
			이우고	2003	사립
			한겨레학교	2006	"

46) 대안교육백서 1997~2007, 교육인적자원부, 2007

	강원	전인고	2005	"
		팔렐고	2006	"
	충북	양업고	1998	"
	충남	한마음고	2003	"
		공동체비전고	2003	"
	전북	세인고	1999	"
		푸른꿈고	1998	"
	전남	영산성지고	1998	"
		한빛고	1998	"
	경북	경주화랑고	1998	"
	경남	간디학교	1998	"
		원경고	1998	"
		지리산고	2004	"
특성화 중학교	경기	헌산중	2003	"
		두레자연중	2003	"
		이우중	2003	"
		한겨레중	2006	"
	전북	지평선중	2003	"
	전남	성지송학중	2002	"
		용정중	2003	"

▶ 교육과정

특성화학교는 제7차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융통성 있게 편성·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하고, 교과는 보통 국민공통교과와 특성화교과로 구분하여 7차 교육과정이나 각 교육청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수업시수를 편성·운영한다. 특성화 중학교는 교육과정의 30%,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최대 70%정도의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다.

특성화 학교의 일반선택/심화선택은 국가수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하고, 특성화 교과에 있어서는 학교철학(마음공부, 인권, 종교 등), 현장체험(국토행진, 생태 및 노작, 농촌봉사활동 등), 진로(직업연구, 직업실습, 졸업논문 등), 특기적성(고전강독, 과학실험, 기악, 우리가락, 실용음악, 애니메이션, 배낭여행 등)이 있다.

대부분의 특성화학교는 기숙형태로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갈

등해결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수업 후에는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및 전망

특성화학교의 등장은 교육의 다양성 확대,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8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특성화학교와 개방형 자율학교를 증가 확대할 예정이다. 특성화학교들은 특성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성화 교과를 개발하여 각 학교의 특색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②위탁형 대안학교

▶설립배경 및 현황

1990년대 후반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급속히 증가,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면서 도입되었다. 학습 부적응 등으로 고등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제적을 유보한 뒤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수료할 경우 소속 고교의 졸업장을 주는 방식의 대안교육을 시행한 것이다. 당시 특성화 고교로 인가받아 운영 중인 지방의 11개 대안학교 모델은 대도시에 적용하기 불가능 했으므로 서울시 교육청은 ‘학력’과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도시를 중심으로 한 위탁교육 방식을 택한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위탁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초기에 주목한 것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었고, 그 중 청량정보고등학교, 한림실업고등학교, 성지고등학교가 학교당 3학급씩, 모두 225명을 수용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위탁형 대안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운영 1년 만에 교사 자질부족, 시설미비,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03년 7월 ‘대안교육 확대 및 내실화 추진 방안’이 발표되면서 위탁형 대안학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고등학생으로 한정됐던 위탁교육 대상자가 중학생까지 확대되었다. 위탁형 대안학교의 운영 개요는 <표-6>, 전국 위탁형 대안학교 기본 현황은 <표-7>과 같다.

<표-6> 위탁형 대안학교의 운영 개요⁴⁷⁾

대상	정규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
학적	원 소속학교(정원 외 관리)
졸업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소속교의 졸업장 수여
출결 및 성적처리	위탁 기관에서 취득한 것을 소속 학교에서 그대로 인정
수탁 해제	생활지도상 문제가 있는 경우 수탁 해제 가능→소속 학교의 규정에 의해 처리
수업료	학생은 소속 학교에 납부, 소속 학교에서는 추후 공문 절차에 따라 대안학교 위탁 기관으로 지급
위탁 시기	월 2회(1일, 15일)연중
교육과정	보통교과는 최소화 운영하고, 2/3정도 이상은 인성, 소질·적성, 진로교육 등 대안교과로 편성·운영
위탁 기간	통상 1년이며 연장 가능(위탁 기관장과 소속 학교장이 협의하여 결정)
성적처리	-보통교과(국민공통기본교과(7차교육과정)평가는 성취도 및 과목별 석차를 산출 -대안교육교과(인성교육활동 및 진로교육활동)는 이수 여부만을 평가

47) 대안교육백서 1997~2007, 교육인적자원부, 2007 p 93

<표-7> 전국 위탁형 대안학교 기본현황

학교명	급별	도농구분	소재지	설립년	기숙/ 통학	학교시설형태
꿈다래학교	고	도시	서울	2003	통학	공공기관
성지대안고등학교	고	도시	서울	2001	통학	자가소유
한림실업고등학교	고	도시	서울	2001	통학	자가소유
정화미용고등학교	고	도시	서울	2006	통학	자가소유
난나학교	중	도시	서울	2004	통학	공공기관
일다학교	중	도시	서울	2004	통학	관악구에서 위탁
동부나우리학교	중	도시	서울	2004	기숙	공공기관
사람사랑나눔학교	중고	도시	서울	2004	통학	공공기관
서울IT직업전문학교	고	도시	서울	2004	통학	자가소유
링컨학교	고	도시	서울	2005	통학	무상임대
서대문도시속작은학교 이음	고	도시	서울	2005	통학	공공기관
아란야학교	중	도시	서울	2006	통학	공공기관
세포학교	중	도시	서울	2006	통학	자가소유
나란타학교	중	도시	서울	2006	통학	공공기관
울산청소년탈학교배움터	중고	도시	울산	2004	통학	임대
천안대안학교	중	도시	충남	2003	복합	임대
나섬학교	고	도시	경북	2005	복합	자가소유
신영중고등학교	중고	농촌	경남	2004	기숙	자가소유
성산효마을학교	중고	도시	인천	2004	통학	자가소유
범속학교	중	도농	경남	2004	기숙	자가소유
부산자유학교	고	도시	부산	2004	통학	자가소유
양정중학교	중	도시	부산	2004	통학	무상임대
경남미용고등학교	고	도시	경남	2003	복합	자가소유
청소년자유학교	중고	도시	경북	2004	통학	임대
팔렬중학교	중	농촌	강원	2004	복합	자가소유

▶ 교육과정

위탁형 대안학교에서는 보통 위탁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교육과정은 교과 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하고, 교과는 보통 교과와 대안교육 교과로 구분하며 각 교육청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

는 수업시수 또는 단위를 편성·운영해야 한다. 보통교과의 필수과목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지정하고 있는 국민공통기본교과를 편성해야 하지만 1/3 이하의 수준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인성과 진로 등의 분야로 다양한 교과를 배치할 수 있다.

대안교육 교과는 인성교육활동 및 진로교육활동으로 나누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재량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기관들은 특기적성교육과 인성교육, 특성화과목, 노작교육, 진로교육 등의 카테고리로 나눠 교과 구분을 짓고 있다. 진로교육의 경우 단순 진로 교육 과목을 진행하는 수준도 있고, 인턴십 과정을 개설해 놓은 곳도 있다.

▶위탁교육 준비 과정 운영

일반학교 학생이 위탁형 대안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위탁교육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통 준비 과정 교육기관을 따로 두어 교육내용, 상담내용, 출결상황 등 교육 결과를 소속 학교와 위탁교육 기관에 보내게 되는데,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직접 실시하기도 한다. 다음은 세포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준비 교육 과정이다.

<표-8> 세포학교의 위탁 준비 교육 과정

1주차 마음열기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10:00-12:00	세포학교 소개	마음열기	마음열기	자연	마음열기	과제 수행
13:00-15:00	자기소개	문화체험 (서울성곽)	자연학교 출발	학교	과학체험 (국립서울과학관)	

2주차 마음열기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10:00- 12:00	과제발표	친해지기	친해지기	자연 학교	적응교육을 마치며(교장선생님 과 함께)	학업 계획서 발표
13:00- 15:00	내가 바라는 우리학교는?	문화체험 (영화보기)	자연학교 출발		교실 꾸미기	

▶평가 및 전망

위탁교육은 현재의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극적인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민간기관이 운영주체인 학교들이 생겨나면서 그들 스스로 교육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위탁형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분간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비인가형 대안학교⁴⁸⁾

① 중등-전원형 대안학교

▶설립 배경 및 현황

1990년대 후반 이후 학교를 중퇴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교육 당국의 초기 정책은 이들을 비행청소년으로 간주, 방지대책을 수립하였고,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그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들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가 지방에 급속히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 중 가장 최초로 생긴 전일

48) 대안교육백서 1997~2007, 교육인적자원부, 2007

제 대안학교가 바로 간디청소년학교이다.

이 후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대안학교, 지역운동에 기반을 둔 대안학교들이 문을 열었으며 2006년 현재 전원형 대안학교의 현황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전원형 대안학교 현황⁴⁹⁾

구분	시도	학교명	개교일
고등학교	충남	금산간디	2002
중·고 통합형	충북	제천간디	1997
	전북	진솔대안학교	2000
	경기	멋쟁이	2002
	경기	산돌학교	2004
	전남	늦봄문익환학교	2006
중학교	전북	살상사학교	1999
	인천	마리학교	2003
	경남	신청간디학교	2005
	경기	전임자람	2005
	강원	참꽃작은학교	2005
	충북	제천꽃피는학교	2006
	전남	곡성평화학교	2006
초중통합	울산	영남전인학교	2005
초중고통합	충남	꿈의 학교	1998

▶ 교육과정

비인가 전원형 대안학교에서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자기 주도성과 다양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획일적이고 통일적 교과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학습이 되는 프로젝트가 그때그때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학년 구별 없이 무학년으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다.

교육과정의 구성은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크게 분류되며, 개인에 따라 시간표와 학습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주 5일 수업으로 하루 평균 수업시간

49) 대안교육백서 1997~2007, 교육인적자원부, 2007. p114

은 7~8시간 정도이며 주로 오전에는 기초지식 및 교양교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오후에는 실기 및 노작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방과 후에는 동아리 활동, 개별 프로젝트, 스터디 모임을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며 방학이나 방과 후에는 검정고시 대비 등 별도의 수업을 운영한다.

비인가 대안학교에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중요시 한 ‘프로젝트’를 많이 한다. 학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계획하고 전 과정을 책임지며 포트폴리오, 보고서, 논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다. 특히 졸업, 진로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필수 과정으로 대부분의 전원형 대안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인턴십, 졸업논문 등이 있다.

▶평가 및 전망

전원형 대안학교는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노력에서 비롯, 공교육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 실험과 학생, 교사, 학부모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열악한 시설과 재정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사 수급이 불안정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원 체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며 다양한 특색을 가진 학교 모델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② 중등-도시형 대안학교

▶설립 배경 및 현황

위의 전원형 대안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으로 2000년 초반부터 도시에도 대안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그 시초는

용산 도시속 작은학교이다. 도시형 대안학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꿈틀학교는 진로교육이 강화된 교육과정을, 성장학교 별은 교육과정에 심리적인 접근법을 접목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 새터민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등 새로운 형태의 비인가 도시형 대안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6년 현재 전국 비인가 도시형 대안학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0> 2006 전국 도시형 대안학교 현황50)

학교명	급별	설립	운영	소재지	설립년도
가은학교	중고통합	대구청소년대 안교육원	대구청소년 대안교육원	대구	2006
거침없는 우다다학교	중고통합	(사)사랑의 도시락보내기 운동본부	(사)사랑의도시락 보내기운동본부	부산	2001
광진도시속 작은학교	중고통합	(사)한국 청소년재단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2004
꿈나제 청소년학교	중고통합	개인	개인	전북	2003
꿈꾸는아이 들의학교	중고통합	남부교육센터	청소년대안교육공간 꿈	서울	2001
꿈터학교	중고통합	개인	개인	서울	2004
꿈틀학교	고	일반시민	(사)청소년내길찾기	서울	2002
대안교육공 간민들레사 랑방	중고통합	민들레출판사 내 민들레사랑방	민들레출판사 내 민들레사랑방	서울	2001
대안학교 한들	중고통합	송파청소년수 련관	송파청소년수련관	서울	2004
더불어가는 배움터길	중고통합	길지기(더불 어가는배움터 길	길지기(더불어가는배 움터길 발전위원회)	경기	2006

		발전위원회)			
도시속 참사람학교	중고통합	(사)맥지청소년 년사회교육원	(사)맥지청소년 사회교육원	광주	2001
돈보스코영 상특성화대 안학교	고	돈보스코 정보문화센터	돈보스코 정보문화센터	서울	2001
들꽃피는 학교	중고통합	(사)들꽃 청소년세상	(사)들꽃청소년세상	경기	1998
디딤돌학교	중고통합	학교밖청소년 배움공동체디 딤돌	학교밖청소년 배움공동체디딤돌	경기	2001
밝은꿈학교	중고통합	개인	개인	대전	2005
사람사랑 나눔학교	초중고통합	(재)청소년과 사람사랑	(재)청소년과사람사랑	서울	2003
성미산학교	초중고통합	성미산학교 설립위원회	학부모와 교사	서울	2004
성장학교별	중고통합	개인	(사)청소년과 가족의 좋은친구들	서울	2002
셋넷학교	초중고통합	개인	교사와학생	서울	2004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중고통합	청소년폭력에 방재단	서울시청소년정보문 화센터	서울	2001
은평 씨앗학교	중	은평지역사회 학교	청소년대안공간돋움	서울	2001
칭미래학교	중	교사와학부모	교사와 학부모	경기	2006
풀잎공동체 대안학교	초중고통합	개인	풀잎공동체	대전	2004
하늘꿈학교	고	(사)좋은씨앗	(사)좋은씨앗	서울	2003
하늘꿈학교	고	(사)좋은씨앗	(사)좋은씨앗	충남	2003
하자작업장 학교	고	서울특별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서울	2001

50) 대안교육백서 1997~2007, 교육인적자원부, 2007. p133

▶ 교육과정

비인가 도시형 대안학교의 교육목표는 각 학교가 주된 대상으로 삼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빈곤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꿈틀학교는 정서적·심리적 상처를 치유하여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과 시민으로서의 기초능력을 갖추고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주요한 교육목표로 하고 있고, 하자작업장학교는 문화예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문 능력과 시민으로서의 비판의식에 좀 더 초점을 두는 편이다.

도시형 대안학교의 주당 수업시수는 하루 6~8시간으로 공교육의 수업 시간과 비슷하지만 교육 내용에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며 그 내용은 각 학교마다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수업의 한 타임은 교과에 따라 50분, 60분, 80분 등 다양하게 구성되며 탄력적, 자기 주도적 학습의 형태를 띠고 있고, 졸업 시스템 또한 학교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 평가 및 전망

2000년 이전의 전원형 대안학교는 생태와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고 학교 부지를 저렴한 값에 얻어야 했기 때문에 산촌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면, 도시형 대안학교는 도시에 자리 잡음으로써 그 혜택이 도시의 청소년들에게 까지 미치게 되었다. 도시형 대안학교는 지역사회 뿐 아니라 다른 사회 영역과의 연계로 다양한 '사회적 어른'들의 참여와 도움을 받고 있으며 그들은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해 주고 있다.

그러나, 희박한 재정과 열악한 시설, 높은 임대료, 교사근무조건이 열악함과 전문성 확보 미비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③ 초등 대안학교

▶ 설립 배경

대안학교의 설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졌다기보다 다양한 교육 실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초등대안학교가 발전하기까지의 흐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11>과 같다.

<표-11> 초등 관련 대안적 교육실험의 흐름⁵⁷⁾

	방과후학교	계절학교 ⁵¹⁾	공동육아운동 ⁵²⁾	작은학교운동
1980년대	공부방 운동 ⁵³⁾			
1986		또하나의 문화캠프 ⁵⁴⁾		
1989	서울지역 공부방연합회 발족			
1990	부스리기 선교회 공부방지원 사업시작			
1992		광명 창조학교	공동육아연구회 결성	
1993		대구 민들레학교		두밀리 폐교 반대운동 ⁵⁵⁾
1994		물꼬 자유학교	우리 어린이집	
1995		부산 창조학교		
1996	여럿이 함께 만드는 학교			
1997	공동육아 방과후 교실 시작			
1998				
1999				작은학교를 지키는

			사람들의모임 창립
2000			남한산초등학교 살리기 운동 ⁵⁶⁾
2001		산어린이학교 개교	거산분교 아이 전학 보내기 운동

▶ 현황

2006년 현재 전국 대안초등학교의 현황은 다음 <표-12>와 같다.

-
- 51) 계절학교는 방과 후 또는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주로 자연관찰, 공동체 활동, 각종 실험, 전통놀이, 생태활동, 견학·답사, 예술 활동 등 학교교육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체험을 포함한다.
- 52) 초등과정의 대안학교 설립배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동육아운동이다. 1994년에 육아문제를 고민하던 부모 20쌍이 공동육아에 뜻을 모아 성미산 자락에 ‘우리어린이집’을 세웠다. 이것이 우리나라 제1호 공동육아조합이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과는 달리 부모들이 나서서 교육협동조합을 만들고 함께 출자하고 공동운영하는 획기적인 교육실험이었다. ‘우리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자 방과 후 학교를 열었고, 2004년 초·중·고 통합과정의 ‘성미산 학교’를 열게 되었다. 초등대안학교의 경우 공동육아를 모태로 한 학교가 많다.
- 53) 빈민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의 차원과 함께 사회 변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과 숙제와 학습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였다.
- 54) 1986년부터 1993년까지 20회 정도 ‘또 하나의 문화’에서 열었던 초등학생들을 위한 캠프에서 비롯되었다. 이 캠프에서는 철저하게 자율적이고 동시에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하였다. 1994년 중단되었다가 1998년 여름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 55) 1993년 경기도 가평군의 두밀 초등학교의 폐교 계획에 두밀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폐교 반대 운동의 최초이다. 이 운동은 많은 사회단체들도 지원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 56)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 안에 위치한 학교로 2000년 폐교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새로 부임한 교장을 중심으로 공교육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하던 성남지역 학부모, 남한산성 내 지역인사 등이 학교 존속과 전학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 전입학추진위원회 결성, 추진의 결과 2001년 3월 전교생 94명으로 6개 학급을 편성하여 폐교 위기를 넘기고, 대안적인 교육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남한산초등학교의 사례는 공교육 안에서 대안적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 57) 대안교육백서 1997~2007, 교육인적자원부, 2007. p 162

<표-12> 2006 전국 대안초등학교 현황⁵⁸⁾

설립년도	학교명	지역	학제
2001	광명YMCA법씨학교	경기도	통합 12년제(현재 8학년까지)
	산어린이학교	경기도	초등 6년제
2002	참좋은 기초학교 ⁵⁹⁾	서울시	초등 6년제
	고양자유학교	경기도	초등 6년제
	과천자유학교	경기도	통합 12년제(현재 6학년까지)
	벼리학교	경기도	초등 6년제
	어린이학교	경기도	초등 6년제
	전인새싹학교	경기도 ⁶⁰⁾	통합 12년제(현재 초등과정)
2003	과천무지개학교	경기도	초등 6년제
	꿈틀자유학교	경기도	초등 6년제(중등과정 준비 중)
	문화교육 들살이	제주도	통합 11년제(현재 6학년까지)
	순천YMCA평화학교	전남	초등 6년제
	푸른숲 학교	경기도	통합 12년제(현재 7학년까지)
2004	대전 꽃피는학교	충남	통합 15년제(현재 5학년까지)
	하남 꽃피는학교	경기도	통합 15년제(현재 5학년까지)
	삼각산 재미난 학교	서울	초등 6년제
	성미산 학교	서울	통합 12년제
	자유학교 물꼬	충북	초중고 12년제(현재 6학년까지)
2005	과천 맑은샘학교	경기도	초등 6년제
	구름산 초등학교	경기도	초등 6년제
	두레학교	경기도	통합 12년제 지향 (현재 4학년까지)
	수원 칠보산자유학교	경기도	초등 6년제
	열읍학교	경기도	초등 6년제
	의왕 온뜻학교	경기도	초등 6년제
2006	기린 배움터	경기도	초등 6년제
	빛고을학교	전남	통합 12년제(현재 7학년까지)
	서울전인새싹학교	서울시	통합 12년제(현재 초등과정)
	아시아공동체학교	부산시	초등 6년제
	초등대안 행복한학교	경기도	통합 13년제(현재 초등과정)
	하나인학교	경기도	초중등 통합

58) 대안교육백서 1997~2007, 교육인적자원부, 2007. p166, 학제는 p170

59) 2007년 유치원만 운영

60) 2007년 춘천으로 이사

위 <표-12>에서 본 것처럼 대안초등학교는 불과 몇 년 만에 급속히 늘어났으나,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부모들이 설립하였으며, 비인가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교단체와 관련된 학교들은 단체에서 보조를 받고 있긴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렇다보니 대안초등학교들은 기부금과 예탁금, 수업료를 받고 있다. 다음 <표-13>은 대안초등학교의 입학 시 드는 비용이다.

<표-13> 대안초등학교 학생의 입학 당시 1회 부담 금액

(기부금+ 예탁금+ 입학금)>

(단위:개, %)

구분	학교 수	백분율
1000만원~	5	17
800만원~1000만원 미만	1	3
600만원~800만원 미만	4	13
400만원~ 600만원 미만	9	31
200만원~400만원 미만	4	13
200만원 미만	7	23
계	30	100

초기의 대안초등학교는 가정주택, 폐교, 창고 같은 건물을 임대·개조하여 쓰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초기에 비해 건물을 소유한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다음 <표-14>는 대안초등학교의 시설 형태이다.

<표-14> 대안초등학교 시설 형태

(단위:개, %)

구분	빈도	백분율
소유	12	40.0
임대	18	60.0
계	30	100.0

▶ 교육과정

대안초등학교의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은 자유롭게 구성되고 있다. 학교의 설립, 운영 목적에 따른 학교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유, 자치, 평등, 생명,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자연과 문화체험, 예술교육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며, 교육과정과 일과운영의 탄력성, 학부모의 참여, 학년통합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기독교가 설립·운영 주체가 된 학교⁶¹⁾의 교육목표에는 종교적인 이념이 담겨져 있고, 발도르프 교육 이념을 수용한 학교⁶²⁾들 중에는 주기집중수업(에포크)을 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

대안초등학교 역시 일반 초등학교와 수업시수는 비슷하지만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안초등학교의 오전수업은 주로 두뇌의 집중과 사고를 요하는 교과를 편성하고, 오후에는 놀이나 텃밭 가꾸기, 자연활동 등의 체험활동을 배치하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 과목에 따라 학년통합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고학년들의 리더십 향상에 유익할 뿐 아니라 학생들 간의 상호협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 <표-15>는 산어린이학교의 교육과정이다.

61) 두레학교, 어린이학교, 하나인학교 등

62) 과천자유학교, 빛고을학교, 푸른숲 학교, 구름산초등학교 등

<표-15> 산어린이학교의 교육과정⁶⁶⁾

교과 구성	교과 개요	수업 형식
기초 교과	말과 글, 수학, 다른 나라 말과 글(영어)	학교 내 수업
생활 교과	하루 열기와 하루 닫기, 산어린이회의, 너나들이, 손끝활동, 자유놀이	학교 내 수업
탐구 교과	생태나들이, 텃밭 가꾸기, 꽃밭 가꾸기, 요리활동, 미디어로 세상읽기, 역사	학교 내 수업, 짧은 나들이 ⁶³⁾
주제 학습	과학놀이, 소래산 등산, 여행(한강도보여행, 생명평화탁발순례, 무전여행)	긴 나들이 ⁶⁴⁾ , 들살이 ⁶⁵⁾
표현 교과	흙작업, 떡작업, 몸놀이, 숲뒷작업, 연극(극놀이), 문화나들이, 음악	학교 내 수업, 짧은 나들이, 긴 나들이
부모참여 수업	부모가 일일교사로 직접 참여하여 진행하는 수업	매달 넷째 주 금요일

▶평가 및 전망

대안초등학교의 역사는 채 10년도 되지 않았으나 그 성과는 적지 않고, 의무교육이라는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학부모들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초등대안학교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많은 대안초등학교들이 중등과정까지 학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다 그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적인 환경과 검정고시를 봐야 학력이 인정된다는 점들이 선뜻 대안학교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63) 학교 주변나들이 등 한두 시간 정도 걸리며 학교 공간 밖에서 이루어짐
 64) 학교 밖 멀리 하루 종일 나들이를 하는 것으로 보통 금요일에 이루어짐
 65) 학교 밖에서 1박 2일 이상 자면서 교육과 생활을 함께 하며 이루어짐
 66) 대안교육백서 1997~2007, 교육인적자원부, 2007. p178

3) 홈스쿨링

홈스쿨링이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1997년 6월 배우미 출판사에서 「홈스쿨링」이라는 책을 번역 출판하였고, 1998년 한 서울대 재학생이 학교교육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학교를 넘어서」라는 책에서 학교교육의 대안으로 홈스쿨링을 제안하였다. 그 후 1999년 1월에는 대안교육 전문지인 「민들레」가 창간되면서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가정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었고, 1999년 8월에는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받은 열두 살 소녀가 고졸 검정고시에서 전국 최연소로 합격하면서 홈스쿨링은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홈스쿨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부모가 가르치면 사회성을 기르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이에 대해 홈스쿨링 가정들은 학교에서 길러지는 사회성은 경쟁 위주의 삶에서 출세를 위한 사회성일 뿐 진정한 공동체적 품성을 길러내지는 못한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홈스쿨링 가정들은 학교보다 각종 캠프 참가, 자원 봉사, 종교 활동 등을 통해서도 진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⁶⁷⁾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홈스쿨러들은 자신들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홈스쿨러로 살아가는 모습을 공개하여 고민과 정보를 함께 나누기도 한다.⁶⁸⁾

67) 강대중,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박영률 출판사, 2002

68) 마틸다와 비밀의 방, 정준이의 우리시대 우리얘기, 초롱이네, 진주랑 중현이네, 솔빛이네 등

4. 선행연구 고찰

1) 대안학교 음악교육의 현황과 실태 분석 연구

-특성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2007,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김현숙)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김현숙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특성화고등학교 중 인성교육 분야 특성화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음악과 교육내용을 분석하고 수업의 실제 운영 형태 및 음악관련 활동 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현재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교육의 실태를 파악, 특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교사대상 설문지를 통해 연구 분석을 하였다.

설문지 분석 중 <표-25>에서는 전문 강사의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활동의 강사인지를 구체적으로 조사 되지 않은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하지만 김현숙의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이 설문지 개발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다.

2) 서울시 도시형 대안학교의 음악활동에 관한 연구

-하자 작업장 학교의 '재활용 상상 놀이단'을 중심으로 (2006,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한지혜)

한지혜는 기존 일반 학교의 음악 수업 및 음악 활동에 대안학교의 음악시설 및 프로그램 연계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하자 작업장 학교의 음악활동 분석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으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그리고 이론적 배경이 대체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었다.

그러나, p16 난나학교에 대한 설명에서 다음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말했다. “보통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도덕, 음악의 4개 교과로 이루어져 있고~” 라고 되어있다. 또 p17에서 난나학교의 음악수업이 가창활동 위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도시형 대안학교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자는 이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가창위주의 활동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난나학교의 수업만 보고 도시형 대안학교로 통틀어 얘기할 순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창활동 위주의 활동 이유를 첫 번째는 음악교사가 오페라단의 성악가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북을 이용한 기악활동과 즉흥연주, 창작활동, 신체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첫 번째 이유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두 번째 이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활동이 가창활동을 위주로 하는 이유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한지혜의 논문은 연구절차가 생략되는 등 다소 두서가 없긴 하지만, ‘재활용 상상 놀이단’의 워크숍에 약 8주간 참여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 하자작업장 학교의 음악 교육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3) 대안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의 음악 교육과정 분석

(2005,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한별)

김한별의 연구대상은 19개의 특성화 고등학교였고, 설문조사와 음악수업참관, 그리고 교사와의 면담, 대안학교 아카데미 연수 등을 통하여 연구를 하였다. 음악수업참관은 이우학교 한 학교만을 하는데 그쳤으나, 이우학교의 ‘대안학교 아카데미 연수’(총 9강)에 직접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다.

설문조사의 내용과 분석도 대체로 잘 되어있으며, 이 부분은 본 연구자에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다.

위 논문 외에 대안학교의 음악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2004,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석환), 초등학교에서의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2003,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강혜정) 등의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대안교육에 대한 내용의 학술지나 단행본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보이며, 연구 주제도 점차 세분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안 초등학교의 음악교육과 관련된 논문이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모든 대안초등학교로 하였다. 대상 수집은 「대안학교 길라잡이 초등편」⁶⁹⁾과 대안교육연대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대안학교 길라잡이 초등편」에서는 25개⁷⁰⁾, 대안교육연대 홈페이지에서는 4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는 5개의 학교를 찾을 수 있었다. 총 34개의 학교 중 음악수업 참관 또는 설문지를 허락한 열다섯 학교가 최종 연구대상으로 추려지게 되었다.

연구대상 학교는 구름산학교, 꽃피는학교(대전/하남), 두레학교, 맑은샘학교, 문화교육들살이, 빛고을학교, 산어린이학교, 샘물학교, 어린이학교, 열음학교, 전인새싹학교(춘천), 칠보산 자유학교, 평화학교, 행복한학교로 15학교이다. 이 15학교 중에서 음악수업참관을 할 수 있었던 학교는 열음학교를 제외한 14학교이고, 설문조사를 할 수 있었던 학교는 꽃피는학교(대전, 하남)를 제외한 13학교이다.

설문지 수거목록은 설문조사의 대상에 따라 다르고, 그 목록은 다음 <표-16>과 같다.

69) 「대안학교 길라잡이 초등편」, 민들레, 2006

70) 고양자유학교, 구름산초등학교, 기린배움터, 과천자유학교, 광명YMCA범씨학교, 꽃피는 학교(대전/하남), 꿈틀 자유학교, 두레학교, 무지개학교, 문화교육들살이, 맑은샘학교, 버리학교, 빛고을학교, 산어린이학교, 삼각산재미난학교, 성미산학교, 어린이학교, 열음학교, 의왕온뜻학교, 전인새싹학교, 칠보산자유학교, 평화학교, 푸른숲학교, 행복한학교

<표-16> 설문조사 대상 수거 학교 목록 (가나다 순)

학교	교사	학부모	5-6학년
두레학교	○	○	○
문화교육들살이	○	X	○
빛고을학교	○	X	○
산어린이학교	X	○	○
샘물학교	○	X	○
어린이학교	○	○	○
열음학교	○	X	○
전인새싹학교(춘천)	○	○	X
칠보산자유학교	○	○	○
평화학교	○	○	○
행복한학교	○	○	○

2. 연구 도구

본 연구자는 다른 석사학위논문의 설문지(71)를 참고하여 설문지를 개발했다. 설문지의 목적은 대안초등학교 음악수업의 현황과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음악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도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 대상을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나눈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음악담당교사(외부강사 포함)와 학생은 음악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학년은 질문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므로 5-6학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였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대안초등학교에서의 학부모는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공교육의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는 국가에서 배정해 준대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 되지만, 대안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지인의 추천 또는 직접 학교를 알아

71) 대안학교의 음악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석환의 석사논문, 2004
 대안학교 음악교육의 현황과 실태 분석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김현숙의 석사논문, 2007

본 후 자녀를 보내게 된다. 또한 대안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많은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교사·학부모·학생은 모두 한데 어우러진 공동체적 특징을 띠고 있으므로 학부모를 따로 분리시킬 순 없다. 대안초등학교에서의 학부모가 갖는 역할과 책임,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시각에서 대안교육을 바라보고 있으며 어느 정도 만족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각 대상별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다음 <표-17>, <표-18>, <표-19> 와 같고, 설문지 본문은 <부록-2>에 나타나 있다.

<표-17> 음악교사 설문지의 구성내용

구분	구성내용	선다형 문항수	서술형 문항수
인적 사항	성별, 나이, 교사자격증의 유무, 공교육/대안교육교직경력, 최종학위, 전공	18	9
학교시 설현황	음악실의 유무, 음악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악기보유현황		
교수·학 습방법	수업준비자료, 수업방식, 악기 활용도, 학생들의 의견 반영도		
교육 내용	음악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르, 음악수업 시 교사의 역할, 특기적성 및 동아리 활동현황, 개설하고 싶은 특기적성 및 동아리활동		
평가	평가 방법, 평가의 수치화 방법		

<표-18> 5-6학년 설문지의 구성내용

구분	구성내용	선다형 문항수	서술형 문항수
학교에 대한만족도	전에 다녔던 학교와 지금 다니는 학교의 만족도 차이, 지금 다니는 학교의 맘에 드는 점과 맘에 들지 않는 점	19	3
음악수업의 흥미도	재미있는 활동, 재미없는 활동, 배우고 싶은 악기		
특기적성	현재 특기적성의 만족도, 개설했으면 하는 활동		
연주회장 방문경험	음악회 경험의 유무, 경험한 음악회의 종류, 가고 싶은 음악회		

<표-19> 학부모 설문지의 구성내용

구분	구성내용	선다형 문항수	서술형 문항수
인적사항	나이, 최종학력, 해외경험	15	3
학교선택의 기준	학교 추천자, 학교 선택 시 주안점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비교	자녀를 일반학교 또는 다른 대안학교로 옮길 생각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 일반학교와 대안초등학교에 대한 생각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	음악이론에 대한 생각, 음악수업참관의 경험 유무와 만족도		

3. 연구 절차 및 방법

첫 번째 : 본 연구자는 전국의 대안초등학교를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수집을 하였다. 수집 방법은 「대안학교 길라잡이 초등편」에서 소개하고 있는 25개의 학교와 대안교육연대에 등록된 네 학교(「대안학교 길라잡이 초등편」과 중복되는 학교를 제외한 수),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한 다섯 학교로 총 34학교를 수집, 음악수업 참관과 설문지 조사를 부탁하는 메일을 1차적으로 발송하였다.

연구자가 수집한 전국의 대안초등학교 목록은 다음 <표-20>과 같다.

<표-20> 연구자가 찾은 전국의 대안초등학교 목록

대안교육길라잡이 -초등편- (25)	고양자유학교, 구름산초등학교, 기린배움터, 과천자유학교, 광명YMCA법씨학교, 꽃피는 학교(대전/하남), 꿈틀자유학교, 두레학교, 무지개학교, 문화교육들살이, 맑은샘학교, 벼리학교, 빛고을학교, 산어린이학교, 삼각산재미난학교, 성미산학교, 어린이학교, 열음학교, 의왕온뜻학교, 전인새싹학교(춘천), 칠보산자유학교, 평화학교, 푸른숲학교, 행복한학교
대안교육연대에 등록된 학교 (4)	느티나무숲의 아이들(경기도 광주시), 민들레 사랑방(서울시), 여럿이 함께 만드는 학교(경기도 안성시), 자유학교 물꼬(충북 영동군)
인터넷 검색 학교 (5)	하나인학교(경기도 파주시), 헤오름학교(경기도 여주시), 꽃피는학교(부산), 전인새싹학교(서울시), 샘물학교(경기도 성남시)

두 번째: 총 34개의 학교 중 음악수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교는 26학교이다. 그 중 17학교가 연구에 응해주었으나, 푸른숲학교와 전인새싹학교(서울)는 연구자와 시간이 맞지 않아 할 수 없이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연구대상으로 확정된 15학교의 목록은 다음 <표-21>과 같다.

<표-21> 연구대상 확정 목록

음악수업 참관, 설문조사 둘 다 가능한 학교(12)	두레학교, 빛고을학교, 샘물학교, 칠보산자유학교, 어린이학교, 행복한학교, 구름산학교, 문화교육들살이, 산어린이학교, 평화학교, 전인새싹학교(춘천), 맑은샘학교,
음악수업 참관만 가능한 학교(2)	꽃피는학교 (대전, 하남)
설문조사만 가능한 학교(1)	열음학교

세 번째: 연구대상으로 확정된 15학교의 담당교사와 참관날짜를 의논하여 다음 <표-22>와 같은 참관날짜가 정해졌다.

<표-22> 연구대상 학교의 참관 날짜(방문 날짜 순)

학 교 명	위 치	방문 일시
두레학교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01	2007.6.13
어린이학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348	2007.6.14~ 6.15
칠보산자유학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903-1	2007. 6.26
샘물학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31-1 분당타운 3층	2007.6.28
구름산학교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222-1	2007.6.29
행복한학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320	2007.7.6
산어린이학교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756	2007.7.9
평화학교	전남 순천시 상사면 오곡리 303-1	2007.7.11
문화교육들살이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007. 7. 13
꽃피는하남학교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438-2	2007. 7. 17
빛고을학교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984	2007. 7. 23
꽃피는대전학교	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677-3	2007. 9. 12
전인새싹학교(춘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923-8	2007. 9. 13
맑은샘학교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475-9	2007. 9. 28
열음학교	경기도 부천시 송내1동 336-15 2층	설문조사만 가능

위의 <표-22>에 나와 있는 대로 구리시에 있는 두레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음악수업 참관

음악수업 참관은 학교 측에서 정해진 학년의 수업을 참관하였다. 참관기록은 지필로 하였으며, 사진촬영은 모든 학교에서 가능했다.

2) 설문지 배부 및 수거

본 연구의 설문지 대상은 음악담당교사, 학부모, 학생이다. 음악담당교사는 정규수업시간에 음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맡고 있는 교사와 외부 강사를 상대로 하였으며, 학부모는 전교생의 학부모를, 그리고 학생은 문장의 이해력을 고려하여 5학년 이상으로 정하였다. 학부모 상대 설문지의 경우엔 전교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과는 상대적으로 소수량이 수거되었다.

설문지 배부 및 수거 현황은 다음 <표-23>과 같다.

<표-23> 설문지 배부 및 수거 현황 (가나다 순)

	총 인원					배부 부수			수거 부수		
	음악담당교사 ⁷²⁾			학생 5-6 학년	학부 모	음악 담당 교사	학생 5-6 학년	학부 모	음악 담당 교사	학생 5-6 학년	학부 모
	전담 교사	생활 교사	외부 강사								
구름산학교(광명)	1	0	1	1	21	1	0	10	0	0	0
꽃피는 대전학교	0	0	1	8	41	설문지 거부					
꽃피는 하남학교	0	0	1	14	56						
두레학교	1	0	6	3	125	1	22	5	1	22	5
맑은샘학교	0	1	2	2	16	2	2	16	0	0	0
문화교육들살이	0	0	1	2	4	1	2	4	1	2	0
빛고을학교	1	0	1	40	150	1	40	140	1	33	0
산어린이학교	1	0	1	6	36	1	6	33	0	6	20
샘물학교	1	0	5	25	144	1	22	0	1	22	0
어린이학교	2	4	2	12	42	6	11	42	6	6	12
열음학교	0	1	1	4	11	1	1	0	1	1	0
전인새싹학교(춘천)	0	0	1	16	29	1	16	29	1	0	5

칠보산자유학교	0	4	1	8	44	4	8	34	1	6	9
평화학교	0	0	1	16	69	1	16	69	1	14	11
행복한 학교	0	1	1	2	39	2	1	1	2	1	1
총 15학교	6	5	15	159	827	23	147	383	16	113	63

3) 교사 인터뷰

교사 인터뷰는 음악담당교사 또는 학교의 대표교사와 짧게 이루어졌다. 설문지에만 의존하여 학교의 음악교육 현황을 알아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4) 자료 수집

연구대상 학교의 연혁, 교육철학, 전교생의 수, 수업내용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으며, 그 외에 이론적 배경에는 단행본, 학술지, 논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5) 통계 도구

통계 도구로는 SPSS를 사용하여 빈도수 분석을 하였다.

72) 대안초등학교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교사는 음악과목으로 채용된 음악전담교사, 정직원으로 채용된 생활교사, 외부강사가 맡고 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결과는 음악수업참관기록과 설문지 분석으로 나누었다. 음악수업참관 기록은 ‘음악수업 공간의 배경’, ‘교사의 수업자료’, ‘학생의 수업자료’, ‘수업 활동의 내용’, ‘본 연구자의 평가’로 서술하였는데, ‘수업활동의 내용’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식이 조금씩 다르다.

각 학교의 음악교육 현황은 표로 나타냈다. 표의 내용은 정규음악수업의 주당시수, 정규음악수업의 내용, 음악관련활동(정규수업이 아닌 동아리와 특기적성), 음악담당교사의 임용형태로 되어있으며, 주당시수의 한 타임은 40분~1시간 40분까지 학교마다 다르다.

1. 음악수업 참관

대안초등학교의 음악수업 참관 결과 다양한 음악활동을 하고 있었다. 참관 기간은 6월13일부터 9월 28일까지였고, 7월에 있었던 수업참관의 경우는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학교가 많았다. 그동안 배운 음악이론 등을 퀴즈형식을 통해서 정리하거나 기약실기발표 또는 오페레타를 하는 것이다.

음악수업 참관은 대부분 각 학교당 1회 시행되었으며, 참관분석결과 및 평가기록은 단지 그 날의 수업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만으로 그 학교의 음악수업 전체라고 이해해서는 안된다.

1) 두레학교



위치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01번지
방문일시	2007년 6월 13일 수요일
수업참관 대상	1학년
주된 활동	가창(발성), 기악(오르프악기합주), 감상

① 음악수업참관

▶ 음악수업 공간의 배경

두레학교에서는 1학년의 음악수업을 참관하였다. 두레학교 1학년의 학급 수는 두 반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 혜전반(담임선생님의 이름이 ‘한혜전’이기 때문)의 수업을 참관하였다. 혜전반의 교실은 별도의 2층 건물 중 2층에 있고, 책상은 ‘ㄷ’자로 배열되어 있으며 책상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칠판에는 두레별(분단별)로 그 날 그 날 수업시간마다 별표를 체크하게 되어있는데, 잘하면 별표를 하나 받고, 못하면 별표 하나를 지우게 되어있다. 본격적

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날의 도우미학생이 대표기도를 한다.⁷³⁾

▶ 교사의 수업자료-야마하 키보드, 리듬합주 그림악보, 카세트

▶ 학생의 수업자료-교사가 나누어 주는 오르프 악기

▶ 수업활동의 내용

***발성연습**

중양 도부터 높은 도까지 교사의 코드진행에 맞춰서 아이들은 “아~~~” 하며 발성연습을 한다. 교사는 가장 잘한 두레를 앞으로 불러내어 시범을 보이게 한 후 다 같이 다시 합창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두레별로 시키기 전에 제일 잘 한 두레에게 악기선택권을 부여한다고 예고한 후 두레별로 다시 발성하도록 시킨다.

***악기 선택 및 악기 소개**

교사의 예고대로 가장 잘 한 두레부터 악기선택권이 주어지고, 아이들은 앞으로 나가서 악기를 고른 후 제자리에 앉는다. 자신의 두레차례가 아닌 친구들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얌전히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악기선택이 끝난 후 교사는 한 명씩 자기의 악기소리를 친구들한테 들려주도록 한다. 그런 후 그 악기의 소리가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지 발표시킨다. 윈드벨 소리에는 바람·비·무지개 뜨는 소리 등, 비브라슬랩 소리에는 똥 누는 소리·방귀 끼는 소리·천둥치는 소리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표를 하고, 어떤 친구는 손을 들고 자신의 발표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도 있다.

73) 두레학교는 기독교

***음악감상**

<고장난 시계>, <백조의 호수>, <동물의 사육제>를 순서대로 감상하며 무엇을 표현하는지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악실습**

교사는 'Under the sea'를 들려주고, 직접 악기로 음악을 표현할 것임을 예고한 후 그림악보를 칠판에 붙인다. 그림악보에는 타악기가 그려져 있는데, 각 악기의 순서와 리듬을 알 수 있다. 교사는 악보대로 각 악기의 시범을 보인 후 리듬이 어려우면 그냥 쳐도 된다고 설명한다. (대체로 쉬운 리듬이었으나 1학년 수준으로는 하기 어려운 싱코페이션 리듬도 있었다)

두레별로 악기를 고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1차 합주가 끝난 후 교사가 합주에 대한 평가를 한다. 재 합주 후 교사의 재평가와 함께 1두레에게는 별을 상으로 내린다.

***차시예고와 정리**-다음 차시예고 후 악기 정리와 함께 수업은 끝났다. 악기정리는 두레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의 평가

학생들 중에는 매우 산만하고 떠드는 학생도 있었으나, 음악 감상 후 느낌 발표나 리듬악기 합주 시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음악 수업의 흥미도는 학생들 모두 높게 평가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보다 가창실력과 리듬감이 더 있어보였으며 차분한 가운데 음악수업을 하고 있었다.

교사는 학생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발표할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시간적 제한으로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로 인해 발표할

기회를 얻지 못한 학생의 불만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음악수업의 참여도가 높은데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가창, 감상, 기악실습을 한꺼번에 모두 하려다보니 70분이라는 긴 시간이 모자랐으며, 특히 리듬합주의 경우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 지지 않은 채 전체 합주에 들어간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② 교사 인터뷰를 통한 두레학교 음악교육의 현황

<표-24> 두레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정규음악수업의 주당시수	2회 (서양음악:1타임, 국악:1-3학년 1/2타임, 4-6학년 1타임)	
정규음악수업의 내용	서양음악	*1학년-정서발달을 위한 음악교육으로 이루어지며, 활동으로는 리듬악기합주, 멜로디언연주, 합창, movement ⁷⁴⁾ , 음악극 등 여러 형태의 수업 *2학년이상-악기선택권이 주어지며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개별 레슨
	국악	*1-3학년: 민요와 장구 *4-5학년: 사물놀이 *반 별 수업
음악관련 활동	합창-오디션에 통과한 학생에 한함, 주당 1회	
음악담당교사	상주 교사	음악전담교사는 아니고 음악치료를 목적으로 채용된 교사 한 명이 1학년 두 반의 음악수업과 3-4학년의 피아노수업, 음악놀이수업, 5-6학년의 수학을 맡고 있다.
	외부 강사	플룻1명, 바이올린1명, 피아노1명, 풍물1명

비고	음악놀이수업:3-4학년의 장애아들 대상, 정규수업인 노작(퀼트, 목공, 농사)시간을 장애아들은 힘들어하기 때문에 대신 악기활동을 통해 음악치료를 받는다. 60분 수업이며 장애아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 순화를 위한 시간이다.
-----------	-------------------------------------------------------------------------------------------------------------------------------

2) 어린이 학교



위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348
방문일시	2007년 6월 14~15일
수업참관 대상	전 학년
주된 활동	기악 실습

① 음악수업참관

▶음악수업 공간의 배경

어린이 학교의 음악수업참관은 학교의 분위기 파악을 위해 2회 연속 방문을 가졌다. 어린이 학교의 부지는 매우 넓어 텃밭과 가축 사육장이 있고, 교실은 한 건물 안에 칸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조그만 목조건물이 하나씩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각 반의 교실이다.

74) movement-도구나 몸동작을 이용하여 주어진 음악에 맞추어 신체활동을 한다. 음악은 ABA형식이나 선율이 반복되는 음악을 사용한다.

이 날의 날씨는 맑고 쾌청한 날씨로 첫째 날의 음악수업은 야외에서 이루어졌다. 피아노는 악기의 특성상 피아노가 있는 건물 안에서 이루어졌고, 하모니카 역시 조그마한 건물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 외 오카리나, 핸드벨은 나무 아래, 벤치에서 이루어졌다(벤치는 학생들이 목공시간에 직접 만든 것이다). 악기 수업은 동(同) 시간대에 이루어져 음악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진다.

음악수업이 있는 동안 꾸러기학교(유치원 과정) 아이들과 교사들은 모래밭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으며, 어떤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한다. 어린이학교는 워낙 넓어서 학교 내에서 놀이수단과 혹은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한다.

둘째 날은 5-6학년 11명의 풍물수업으로, 5학년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교사의 수업자료-실습악기(오카리나, 핸드벨, 하모니카, 피아노, 풍물악기)

▶학생의 수업자료-교사와 동일

▶수업 활동의 내용

*오카리나-수준별로 나뉜 두 그룹으로 되어있고, 교사도 각 그룹별 한 명씩 배치되어있다. 따로 악보는 없고, 작은 악기의 특성상 나무위에 올라가서 부는 학생도 있었다.

*하모니카-칠판과 책상이 있는 작은 건물에서 이루어졌다. 하모니카의 구멍을 그려가며 소리가 나는 음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루어진

듯하다.

***핸드벨**-나무그늘 아래에 있는 벤치에서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인쇄물로 된 악보를 각자 가지고 있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 2중주로 연주하기도 한다.

***피아노**-피아노가 있는 건물에서 이루어졌다.

***풍물**-5학년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자진모리와 이채를 악보 없이 전문 강사와 함께 연주한다. 대체로 잘 따라하며 즐기는 모습이였다.

▶본 연구자의 평가

어린이학교의 음악수업은 야외에서 이루어진 것이 매우 특징적이였다. 음악수업이 있는 동안 유치원과정의 아이들도 야외에서 놀이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과 교사 모두 행복해 보였으며, 그 다음 날의 합창 수업을 참관하지 못한 것이 큰 후회로 남는다.

②인터뷰를 통한 어린이학교 음악교육의 현황

<표-25> 어린이학교 음악교육의 현황

정규음악 수업의 주당 시수	1학년	2회(목요일 한 타임+ 금요일 한 타임)
	2-3학년	2회(목요일 두 타임)
	4학년	3회(수요일 한 타임+ 목요일 두 타임)
	5-6학년	5회(수요일 한 타임+ 목요일 두 타임+ 금요일 두 타임)
정규음악 수업의 내용	1학년	음악
	2-3학년	기악실기
	4학년	합창, 기악실기
	5-6학년	합창, 기악실기, 풍물(풍물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 불가능)
음악관련활동	전체 학생 대상은 따로 없으며, 피아노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만 방과 후 지도하는 시간 있음	
음악담당교사	상주	*음악전담교사1명-합창과 피아노 교육
	교사	*생활교사 중 3명이 오카리나, 하모니카, 차임벨 지도
	외부 강사	*피아노강사 1명-피아노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만 방과 후 지도 *풍물강사 1명

3) 칠보산 자유학교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903-1
방문일시	2007년 6월 26일 화요일
수업참관 대상	2학년
주된 활동	오페레타(29일에 발표) 연습

① 음악수업 참관

▶ 음악수업 공간의 배경 설명

6월 29일 오페레타 발표가 있어서 이 날의 음악수업은 발표 총연습을 하였다. 2학년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책상과 걸상을 뒤로 밀어놓고 연습을 하였다.

▶ 교사의 수업자료-대본

▶ 학생의 수업자료-대본, 의자 1개

▶수업활동의 내용

‘토끼전’을 오페레타로 꾸민 극으로써 3월부터 준비했다고 한다. 음악시간마다 연습을 하였고 이 날은 마지막 음악시간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직 대사나 동선을 확실하게 외우지 못한 상태였다. 극의 중간 중간에는 노래가 삽입되어 있는데, 반주는 없었다.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존대 말을 사용하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기도 전에 수업시간이 끝났다.

▶본 연구자의 평가

학생들의 참여도는 높지 않았다. 대사나 동선 등을 외워야 하는 스트레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신감이 없어보였다. 다 같이 합창을 하는 부분에서도 목소리가 작았고, 동작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칠보산자유학교의 이번학기 음악수업은 음악에만 치우친 것이 아닌 종합예술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② 인터뷰를 통한 칠보산 자유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표-26> 칠보산 자유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정규음악수업의 주당시수	1, 2, 5, 6학년	1회
	3, 4학년	2회
정규음악수업의 내용	1학년	노래
	2학년	민요, 일반음악(가창, 이론 등)
	3학년	풍물, 리코더
	4학년	풍물, 일반음악(가창, 이론 등)
	5학년	풍물
	6학년	풍물
음악관련 활동	없음	
음악담당교사	상주교사	각 학년 담임
	외부강사	민요1명

4) 샘물기독교학교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31-1 분당타운 3층
방문일시	2007년 6월 28일
수업참관 대상	2학년/5학년
주된 활동	게임을 통한 복습(감상, 이론 등)

① 음악수업참관

▶음악수업 공간의 배경

샘물학교는 샘물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음악수업은 음악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음악실로 가는 통로에는 하프시코드와 첼발로 등의 건반악기 그림들과 서양음악 작곡가들의 초상화들이 빼곡히 걸려있다. 음악실의 뒤편에는 교사의 큰 책상이 마련되어 있고, 음악실 앞 칠판 쪽에는 수업 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책상이 따로 있다.

교사는 음악실 입구에 서서 차례대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종이를 뽑게 한다. 그 종이는 자리번호가 적혀있는 종이로써 그 번호에 따라 자리에 앉아야 한다. 그것은 퀴즈 팀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아이들은 그런 수업이 자주 있었는지 누구하나 그것에 대해 묻는 아이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였다.

학생들이 앉는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회전의자이며 칠판 쪽을 향해 한 줄의 반원 형태로 놓여있고, 책상은 따로 없다. 그리고, 그 반원의 앞쪽에 세 개의 의자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 의자는 답을 맞춘 학생만이 앉을 수 있는 의자이다.

▶교사의 수업 자료-노트북, 오디오

▶학생의 수업자료-없음

▶수업활동의 내용

샘물학교의 음악수업은 이 날이 1학기 마지막 수업으로 그동안 배웠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2학년과 5학년의 수업을 참관하였다.

따로 교과서는 없었고, 두 팀으로 나누어 한 명씩 교사 앞으로 나가서 퀴즈를 푸는 형식의 팀별 대항이었다. A팀 먼저 한 명씩 교사 앞으로 나가서 문제를 풀며, 정답을 맞춘 학생은 칠판에 체크를 한 후, 정답자만 앉을 수 있게 따로 마련된 세 개의 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앉는다. 팀원 중 오답을 말하는 학생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팀에게만 퀴즈를 맞출 기회가 주어진다. 만일 A팀이 연속으로 세 번 이상 문제를 맞추고 있어서 정답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세 개의 의자가 딱 찰 경우, 처음에 앉았던 순서대로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감으로써 다음 정답자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도

록 되어있다.

문제의 유형은 다음 <표-27>과 같다.

<표-27> 샘물학교 음악수업 시 퀴즈의 유형

문제의 유형		답
세계의 민요 (교사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문제에 답하기)	어느 대륙의 노래인가?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
	어느 종족의 노래인가?	마오이족, 인디언 등
	어느 대륙, 어느 나라 노래인가?	아시아의 중국, 북아메리카의 미국,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 등
작곡가	사자, 캥거루, 원숭이 등 많은 동물이 등장하는 곡을 작곡한 사람은?	생상
	바흐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	바로크
	1750년 독일에서 태어났으며 오르간의 대가이고, 하프시코드와 바이올린도 잘 하시는 분, 자녀가 많았던 작곡가는?	바흐
감상	음악 듣고 큰 제목 맞추기	동물의 사육제
	작은 제목 맞추기	백조 등
지도	다음 지도는 어느 대륙인가?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

위의 표는 2학년의 음악관련 퀴즈 내용이고, 5학년 또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위의 내용 외에 악기그림 보고 악기군 맞추기(답:관악기군의 금관악기, 목관악기 등), 타악기그림 보고 유율악기인지 무율악기인지 맞추기(예:팀파니), 음악을 들으며 악기군/악기이름 맞추기 등이 더 추가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음악실을 퇴장할 때 교사는 행진곡을 틀어놓고 문 앞에 서 있다. 아이들은 한 줄로 퇴장하는데, 행진곡의 4/4박자에 맞춰서 무릎과 손뼉을 치면서 교사에게 순서대로 다가가 교사와 손뼉 마주치기를 한 후 교사와 함께 마지막에 “안녕~”하면서 퇴장을 한다. 아이들은 퇴장 후에도 교실에 들어갈 때 까지 박자에 맞추어 계속 손뼉 치기를 하고 있다.

▶본 연구자의 평가

우선 본 연구자는 샘물학교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높게 평가하는 바이다. 퀴즈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는데 그 규칙을 잊거나 어기는 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자칫 잘못하면 매우 산만할 수 있는 수업이 대체로 차분한 편이었다. 그렇다고 조용한 것은 아니고, 참여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교사가 세계 민요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원어로 된 가사를 직접 부르는데, 이 때 학생들도 그 노래를 함께 부른다. 교사가 시켜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따라 부르는 것이다. 특히 좋아하는 노래일 때는 박수까지 치며 박자를 맞춘다.

퀴즈가 진행되는 동안 껌속말로 정답을 소근 대긴 하지만 문제를 푸는 아이에게 들리게 하진 않으며, 답을 안다고 해서 잘난 척 하는 친구도, 모른다고 해서 창피해 하는 친구도 없다. 아이들은 그저 게임을 즐길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민요 문제에서는 대륙과 나라, 종족까지도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은 음악교과 외에 타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샘물학교 음악수업의 마지막 인사는 단순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퇴장음악을 따로 두고, 음악의 박자에 맞추어 퇴장하는 것은 박자 감을 자연스럽게 익히는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서로 손뼉을 치고

한 명씩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하는 것은 친밀감을 높이는 좋은 장치라 생각된다. 샘물학교의 음악수업참관은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② 인터뷰를 통한 샘물기독교학교의 음악수업 현황

<표-28> 샘물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정규음악 수업의 주당시수	2회				
정규음악수업의 내용	공교육 교재를 참고로 한 가창, 기악, 감상 등의 수업				
음악관련 활동	종류	학년	인원	주당시수	목적
	타악기양상블	3학년 이상	17	1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바이올린	3학년 이상	7명씩X2	1	
	첼로	3학년 이상	7	1	
	피아노	3학년 이상	개인레슨	1	
	오케스트라	3학년 이상	제한 없음	1	
	합창	3학년 이상	13	1	
	솔페이WM	1-2학년	12X2	1	
음악담당 교사	상주교사	음악전담교사 한 명-전 학급의 음악수업과 특기적성 중 타악기 양상블과 솔페이즈 수업을 맡고 있음			
	외부강사	바이올린1, 첼로1, 피아노1, 오케스트라1, 합창1			
비고	현재 음악전담교사의 업무가 많은 관계로 음악전담교사를 한 명 추가로 뽑을 계획에 있으며,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만들 예정에 있다.				

5) 구름산초등학교



위치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222-1
방문일시	2007년 6월 29일
수업참관 대상	7명(3학년 6명+6학년 1명, 학년통합수업)
주된 활동	리코더와 가창

① 음악수업참관

▶음악수업 공간의 배경

구름산초등학교는 가정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다. 피아노가 있는 방에서 음악수업이 이루어졌으며, 책상은 한쪽 벽으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의자만 모아놓고 앉아서 수업을 했다. 교사는 학생들 앞에 서서 수업을 하였다.

▶교사의 수업자료-리코더, 라이어, 피아노

▶학생의 수업자료-리코더

▶수업활동의 내용

*가창

가창은 총 네 곡을 하였다. 처음엔 ‘미류나무’를 하였는데, 발 구르기를 하면서 제창한 후 돌림노래로 다시 하였다. 교사는 날씨 얘기를 잠깐 한 후 날씨와 관련된 영어노래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날씨와 관련된 노래 두 곡을 하였고, 이어 교사의 라이어⁷⁵⁾ 반주에 맞추어 ‘옛 날 옛 날 한 옛 날에’를 제창하였다. 모든 노래에는 교사의 지휘가 있다.

*리코더

리코더 수업은 ‘작은별’ 한 곡만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주법으로 지도하였다. 처음엔 동일한 멜로디를 합주하게 한 후 두 번째 반복할 때는 템포를 점점 빠르게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엔 리듬변주, 그 후엔 셈여림에 따른 연주를 하도록 하였다.

이어 교사는 모두 함께 합주하되 2중주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교사 대 학생, 이렇게 2중주가 되는 것인데 교사는 한 명, 학생은 7명이다. 학생 7명은 여린내기를 하여 한 명이 부는 효과를 내야 한다. 교사와 학생 7명은 동일한 멜로디를 함께 연주하되 여린내기로 두세 번 연습한 후, 교사는 변주된 ‘작은별’을 들려주었다. 학생들에게는 원곡을 여리게 불도록 하고, 교사 자신은 방금 들려준 변주된 ‘작은별’을 함께 연주하였다. 다시 연주할 때 교사는 여리게 연주하되 교사의 멜로디를 들으며 연주하라고 지시하였다.

75) 라이어-독일의 악기로 하프와 비슷하게 생긴 작은 발현악기이다. 발도르프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악기이다. 라이어를 5음음계로 조율하면 저학년 아이들이 음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2중주의 효과가 있었다. 여러 번 반복 후 교사는 자신의 운지법만 보고 따라해 보도록 하였다.

***정리**

교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미류나무’, ‘에텔바이스’ 등을 가창과 리코더 연주를 한 후 수업은 끝이 났다.

▶본 연구자의 평가

구름산초등학교는 학생 수도 적고, 학교도 작았다. 하지만, 이 학교는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 곳으로써 음악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여러 가지 노력과 시도를 하는 것이 었보였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대체로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고 있었다.

② 인터뷰를 통한 구름산초등학교의 음악교육의 현황

구름산초등학교에서의 인터뷰는 본 연구자의 사정으로 충분히 하지 못하여 4-6학년의 음악수업의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

<표-29> 구름산 초등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정규음악수업의 주당 시수	2회	
정규음악수업의 내용	1학년	교사의 라이어(5음음계:레미솔라시)연주듣기와 가창
	2-3학년	7음음계
	4-6학년	파악하지 못함
음악관련 활동	없음	
음악담당 교사	생활교사	
비고	*1교시 시작 전 집중수업시간에 매일 5음음계로 된 곡을 리코더로 연주한다. *타 교과 수업 시 음악활동이 포함된다.	

6) 행복한 학교



위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320번지
방문일시	2007년 7월 6일
수업참관 대상	학년통합 8명의 학생
주된 활동	풍물

① 음악수업 참관

▶ 음악수업 공간의 배경

행복한 학교에서는 풍물수업을 참관하였다. 별도의 식당 건물에서 상(床)을 한 쪽으로 치운 후 풍물수업이 이루어졌다. 풍물수업은 학년 상관없이 선택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번학기에는 12명이 신청하였으며 이 날은 8명만 참석한 상태였다. 악보 없이 풍물수업을 하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현수막으로 된 큰 악보가 걸려 있었다.

▶ 교사의 준비자료-장구, 팽과리, 악보

▶ 학생의 준비자료-장구

▶ 수업활동의 내용

풍물수업 장단은 호미걸이 12채 가락으로 악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교사의 팽과리 장단을 들으며 연주한다.

▶ 본 연구자의 평가

행복한 학교에는 음악실이 없어 식당에서 풍물수업을 하고는 있었지만, 식당의 공간이 넓고 교실과는 별도의 건물이어서 풍물수업을 받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모든 풍물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보여 지듯이 행복한 학교 학생들도 풍물수업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다.

② 인터뷰를 통한 행복한 학교 음악교육 현황

행복한학교의 정규음악수업은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수업과, 전교생 중 풍물수업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풍물 수업이 시행되고 있다.

<표-30> 행복한 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정규음악수업의 주당시수	2학년 : 2-3회(탄력적 운영)	
	풍물 신청학생 : 2회	
정규음악수업의 내용	2학년 : 리코더	
	풍물 신청학생 : 풍물	
음악관련 활동	없음	
음악담당 교사	상주 교사	2학년 담임
	외부 강사	풍물1명
비고	아침열기 시간에 노래 부르기가 있으며, 말과 글을 배우는 수업시간에 시와 관련된 노래배우기를 가끔 한다.	

7) 산어린이 학교



위치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756
방문일시	2007년 7월 9일
수업참관 대상	5-6학년 5명+ 성인2(교사1, 식당 도우미1)
주된 활동	풍물, 민요

① 음악수업 참관

▶ 음악수업 공간의 배경

산어린이 학교도 위의 행복한 학교처럼 풍물수업을 참관하게 되었고, 산어린이 학교의 음악수업 공간은 두 군데였다. 한 군데는 행복한 학교와 마찬가지로 테이블을 한 쪽으로 치운 상태의 식당이고, 또 한 군데는 학교 밖의 자연이었다.

산어린이 학교의 풍물수업은 학생 뿐 아니라 성인 두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명은 교사이고, 다른 한명은 식당일을 맡아 하는 아주머니였다.

▶교사의 수업자료-장구, 팽과리, 징, 북

▶학생의 수업자료-교사와 동일

▶수업활동의 내용

산어린이 학교 이번 학기의 5-6학년은 총 6명이나, 이 날은 한 명이 조퇴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학생은 5명이었다. 외부강사에 의한 풍물수업이었으며, 악보는 따로 없었다. 본 연구자가 참관 했던 다른 학교의 풍물수업과 비교했을 때와 다른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장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팽과리, 장구, 북, 징)을 한 번씩은 번갈아 가면서 다뤄 본다. 둘째, 민요를 짧게나마 배우는 시간이 있다. 셋째, 즉흥연주가 있다.

***인사**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팽과리를 맡은 학생이 일어나 인사굿 장단을 친 후 다 같이 인사를 한다

***민요**

교사는 그동안 배운 민요의 목록을 말한 후 다함께 불러보라고 제안하였다. 교사의 장구장단에 맞추어 산도깨비, 앵매기 타령, 진도 아리랑을 순서대로 불렀고, 민요수업은 학생들보다는 성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풍물**

풍물수업은 풍류굿을 한 후 즉흥연주를 하였다. 상쇠를 맡은 팽과리 주자

가 자기 마음대로 가락을 연주하면 다른 악기를 맡은 학생들도 각자 거기에 어울리게끔 즉흥연주를 한다.⁷⁶⁾ 썰과리와 징, 북을 맡은 학생들은 앉아서만 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도 치고, 연주가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서로 악기를 바꿔가며 연주를 계속 하였다. 모두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즐거워하였다.

이 날 날씨는 화창하지만 조금은 뜨거웠다. 교사는 교외로 나가 수업할 것을 제의하였고, 뜨거워서 싫다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교사를 선두로 하여 학교 주변(아담한 운동장과 텃밭)을 돌아다니며 계속 연주를 하였다. 교사는 연주를 잠깐 멈추고 학생들에게 덕담을 한 후 다시 연주를 하며 교실로 돌아와 마무리 하였다.

② 인터뷰를 통한 산어린이 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표-31> 산어린이 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정규음악수업 의 주당 시수	1학년	1회
	2학년	1회
	3-4학년	2회
	5-6학년	1회
정규음악수업 의 내용	1학년	노래, 악기(리코더, 멜로디언)
	2학년	노래, 악기(리코더, 멜로디언)
	3-4학년	풍물 1회, 노래와 오카리나 1회
	5-6학년	풍물 1회
음악관련활동	없음	
음악담당교사	상주교사	*음악전담교사 1명
	외부강사	*풍물강사 1명

76) 사물놀이에서는 썰과리를 맡은 사람을 '상쇠'라고 하는데(썰과리가 두 명일 경우는 '상쇠'와 '부쇠'로 나뉜다), 다른 악기를 맡은 연주자들은 상쇠가락에 따라 변형장단 또는 다른 장단을 치게 되어있다. 사물놀이에 있어서는 '상쇠'가 곧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때에 따라선 장구가 상쇠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엔 '상장구'라 칭하게 된다.

8) 문화교육들살이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방문일시	2007년 7월 13일
수업참관 대상	학년통합 전교생 7명
주된 활동	감상, 이론, 가창

① 음악수업 참관

▶ 음악수업 공간의 배경

문화교육들살이의 음악수업은 학교와 멀리 떨어진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처음엔 탁자와 소파가 있는 사무실에서 감상수업을 하였고, 중간에 녹음실로 자리를 옮겨 가창수업과 음악이론 수업이 이루어졌다. 녹음실에는 드럼, 키보드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교사와 학생들은 키보드를 가운데 두고 마주앉아 수업이 진행되었다.

▶ 교사의 수업자료-키보드, 노트북(음악 감상용), 인쇄물(악보, 음악이론)

▶ 학생의 수업자료-교사가 나누어준 인쇄물, 필기노트, 과제물(음악감상을 통한 설계도)

▶ 음악수업의 내용

***과제발표**

저번시간에 있었던 과제발표를 먼저 시작하였다. 개인별로 작성해 온 ‘음악 감상을 통한 설계도’를 발표 한 후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은 느낌 등을 이야기 하였고, 교사의 조언도 있었다.

***음악 감상**

교사는 노트북을 사용하여 음악감상 수업을 하였다. 교사는 먼저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안드레아 보첼리’는 시각장애를 이겨내고 그의 꿈을 이룬 이태리의 팝페라 가수로 뉴에이지 음악가이다. 교사는 감상 시(時) 1절과 2절의 느낌을 비교해서 들어보라고 하였다. 1절은 클래식하고 2절은 재즈가 가미되어있다.

그 다음 감상곡은 팝페라 가수 ‘임형주’가 부른 ‘아리랑’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이지만 음악은 편곡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 후, 눈을 감고 감상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느낌을 발표하였다.

***음악이론**

음악이론수업은 고름 음과 시끄러운 음, 리듬과 멜로디, 화성이었다. 교사는 인쇄물을 나누어 주고 키보드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리듬, 멜로디, 화성

을 들려주며 이론을 지도 하였다. 학생들은 설명을 들으며 인쇄물 또는 자신의 노트에 메모를 하였다.

*가창

가창시간에 필요한 자료 역시 인쇄물로 되어 있었다. 그 인쇄물은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간디학교’의 교가였으며⁷⁷⁾, 노래를 배우기 전에 소리 내어 가사읽기를 여러 번 반복하였다. 각자 속으로도 읽고, 한 명씩 일어나서 읽어보기도 하고, 다 같이 읽기도 하였다. 교사는 가사읽기를 많이 해야 가사를 알게 되고, 그래야만 자기감정으로 노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처음엔 그냥 가사 읽기만 하였으나 나중에는 교사가 키보드로 배경음악을 깔아주어 분위기가 약간 고조되었다. 교사는 학생들이 가사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한 후 선창을 하며 노래를 지도했다. 간디학교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헤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낮은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건(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건(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리 알고 있네 우리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본 연구자의 평가

문화교육들살이의 음악수업은 매우 차분한 분위기였으며, 교사가 주도하는 편이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7명으로 통합수업을 하는데, 1-2학년은 없고

77) 교사의 설명에 의하면 이 노래는 교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고 불려지는 노래라고 한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학년별로 각 한 명씩, 중학교 1학년이 두 명, 중학교 3학년이 한 명으로 초등학생이 네 명, 중학생이 세 명으로 그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음악수업 대상의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번 음악수업의 내용은 초등학생에게는 다소 어려운 수업이었으나, 학생들은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였다.

② 인터뷰를 통한 문화교육대상자의 음악교육 현황

<표-32> 문화교육대상자의 음악교육 현황

정규음악수업의 시수	1회
정규음악수업의 내용	음악이론, 가창, 감상
음악관련활동	없음
음악담당교사	외부 강사

9) 평화학교



위치	전남 순천시 상사면 오곡리 303-1
방문일시	2007년 7월 11일
수업참관 대상	5학년
주된 활동	솔페이즈, 감상

① 음악수업 참관

▶ 음악수업의 공간의 배경

평화학교의 음악실은 별도의 작은 건물로 되어있다. 음악실 내부는 피아노 학원과 비슷한 구조로 중앙 홀과 피아노 방이 6개가 있는데, 그 방 안에는 장구, 북 등이 수납되어 있다. 중앙 홀에는 기다란 교회의자 4개와 피아노 한 대, 그리고 오디오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 교사의 수업자료-솔페이즈 교재, 음악이론 인쇄물, 오디오, 피아노

▶ 학생의 수업자료-슬페이지 교재, 음악이론 인쇄물, 음악노트

▶ 수업활동의 내용

교사와 학생간의 인사가 먼저 이루어졌다. 평화학교의 음악교사는 수업시간 전 후 반드시 인사를 시킨다고 한다.

*가창

평화학교에서는 자체 제작한 슬페이지 교재로 가창수업을 하였다. 첫 번째 가창곡은 이미 배웠던 ‘별나라’(라장조)라는 곡으로 계이름으로 불렀다. 그 다음 곡은 라장조로 된 ‘봄바람’이었다. 교사는 계이름을 적기 전에 천천히 읽어보라고 하자 몇몇 학생들은 계이름을 소리 내어 읽고, 몇몇 학생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계이름 적기 바쁘다. 교사는 그런 학생들을 지적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다.

교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봄바람’을 계명창한 후 각자 개사를 하고, 교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각자 개사한 가사로 노래를 한다.

*감상

교사는 감상 시 일반 공교육의 음악교과서를 참고로 한다고 한다. 이번 수업의 감상 곡은 ‘백조의 호수’와 ‘아라비아 춤’ 두 곡이었다. ‘백조의 호수’는 이번시간에 처음 감상하는 곡으로, 교사는 먼저 동화책 ‘백조의 호수’의 줄거리를 읽어주고, 등장 악기에 대해 설명하였다. 악기 설명 시 ‘정경’에 하프와 오보에가 등장하는데, ‘피터와 늑대’에서는 오보에가 오리소리였음을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나서 ‘정경’을 감상하며 악기를 맞추도록 하였다. 감상이 끝난 후 교사는 각자 느낌을 노트에 한 줄로 적도록 하

었다. 두 번째 감상곡은 지난시간에 감상했던 ‘아라비아의 춤’이었다.

***인쇄물 배부 및 차시예고**

교사는 다음시간에 배울 성악의 성부(독창, 중창 등), 악기의 성부(독주, 중주, 협주 등), 우리나라의 현악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그와 관련된 인쇄물을 배부한 후 수업이 끝났다.

② 인터뷰를 통한 평화학교의 음악수업 현황

<표-33> 평화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정규음악수업의 주당시수	1학년	3회
	2학년	3회
	3학년	3회
	4학년	2회
	5학년	2회
	6학년	모두 전학가고 없음
정규음악수업의 내용	솔페이즈(개사-1학년은 공동 작사를 하고 나머지 학년들은 개인별로 작사를 한다), 감상, 신체표현	
음악관련활동	없음	
음악담당교사	외부강사(피아노를 전공한 학부모) *솔페이즈는 교장이 도입했다.	
비고	*음악담당교사는 벨기에에서 음악수업참관 시 신체표현 활동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 노래가사에 맞는 그림그리기, 청진기로 자연의 소리듣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	

10) 꽃피는 학교(하남)



위치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438-2
방문일시	2007년 7월 17일
수업참관 대상	3학년/5학년
주된 활동	기악실기 발표(꽃피는 음악회)

꽃피는 하남학교는 제헌절이었는데도 정상수업을 하였고, 1학기 마지막 음악시간으로 ‘꽃피는 음악회’라는 기악실기 발표시간이었다. 꽃피는 음악회는 계절별로 있다.

① 음악수업 참관

▶음악수업 공간의 배경

꽃피는 하남학교는 작은 마당이 있는 가정주택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음악 수업은 피아노가 있는 마루에서 이루어졌다. ‘마루’라는 공간의 특성상 사람

들은 그 곳을 지나다닐 수밖에 없어 음악수업에 방해가 되고, 음악수업 역시 다른 학년의 수업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 보였다.

별도의 책상이나 의자는 따로 없고, 학생들은 마룻바닥에 앉아서 자신의 발표순서가 되면 피아노가 있는 쪽으로 나가 실기 발표를 하였다.

▶교사의 수업자료-피아노

▶학생의 수업자료-리코더, 각자 발표할 악기

▶수업활동의 내용

<5학년>

*음정 테스트

본격적인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 교사는 피아노로 학생들에게 절대 음감 테스트를 짧게 한다. 교사는 ‘도’, ‘미’, ‘솔’ 을 순서대로 치고 학생들은 그 음을 맞추었다.

*리코더

교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사랑의 기쁨’과 ‘노래의 날개위에’를 리코더로 연주하였다.

*가창

가창역시 교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이루어졌고, ‘내겐 꿈이 있으니’를 2중창으로 부른 후 ‘노래하자’를 돌림노래로 하였는데, 처음엔 두 파트로,

그 다음엔 세 파트로 나누어 하였다. 학생들은 곡을 모두 외우고 있다.

***꽃피는 음악회**

기악발표는 개인별 또는 모둠별로 이루어졌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 <표-34>와 같다.

<표-34> 꽃피는 학교(하남) 5학년의 꽃피는 음악회 발표순서

순서	기악형태
1	리코더 2중주
2	피아노 연탄곡
3	기악 4중주(피아노, 오카리나, 플룻/테너리코더, 리코더)
4	리코더 독주
5	리코더 4중주
6	리코더 독주

위의 표 중 세 번째 순서인 기악 4중주에서는 플룻 담당 학생이 중간에 테너 리코더로 악기를 바꾸어 연주하였다. 그 학생들의 발표가 끝나자 교사는 아이들에게 테너 리코더에 대해 설명한 후, 테너 리코더 주자에게 다시 한번 소리를 들려 달라고 부탁하여 시범을 보였다.

학생들의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소감을 얘기하는 순서가 이어졌는데, ‘별로였다’, ‘전에보다 떨렸다’, ‘전에보다 안 떨렸다’ 는 소감이 있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학생은 없었다.

모든 순서가 끝났지만 수업시간이 조금 남아 리코더로 두 곡을 연주한 후 마지막 인사와 함께 수업은 끝났다. 마지막 인사는 음악수업답게 리듬과 멜로디가 있는 “가르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였다.

*3학년

3학년의 수업도 5학년과 비슷하게 이루어졌고, 감상태도는 5학년보다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음악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훨씬 적극적이었다. 5학년은 교사가 지시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참여할 뿐이었지만, 3학년은 교사에게 제안을 많이 하였다. 예를 들면 ‘캐논을 리코더로 하자’,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하자’, ‘모듬별로 하자’, ‘돌림노래로 하자’ 등의 제안이다. 꽃피는 음악회를 할 때도 한 학생이 피아노 독주곡으로 ‘아기공룡 둘리’를 쳤는데, 학생들 모두 아주 큰소리로 신나게 노래를 하였다.

3학년 학생 중에는 기악발표회를 하기 싫다고 하는 학생이 두 명 있었는데, 교사는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나중에 함께 하자고 제안, 그렇게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음악회 소감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제안곡인 ‘들판을 달려가자’를 제창한 후 수업이 끝났다.

▶ 본 연구자의 평가

‘꽃피는 음악회’는 아이들의 발표능력을 향상시켜주고, 감상태도를 길러주는 좋은 활동이라 평가된다. 하지만 아쉬움 또한 많았던 수업이었다. 첫 번째는 음악수업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배경설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서로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특히 3학년 수업 시 그 문제점은 심각했다.

3학년이 음악수업을 하는 시간에 5학년은 자유 시간이었다. 그러다보니 마루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많았고, 마루에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마루가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3학년들이 모여 있는 바로 옆에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재를 가하는 사람은 없었다.

두 번째 아쉬움은 별도의 프로그램 팸플렛이 없었다는 것이다. 단순하게나마 순서와 곡목, 간략한 곡의 설명 등이 적혀있는 팸플렛을 만들었다더라면 훨씬 감상에도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 된다.

② 인터뷰를 통한 꽃피는 학교(하남)의 음악교육 현황

<표-35> 꽃피는 학교(하남)의 음악교육 현황

정규음악수업 의 시수	3-5 학년	2회
정규음악수업 의 내용	화요일	음악이론, 가창, 감상, 리코더, 화음 (가창과 리코더는 독립노래형식을 많이 함)
	목요일	바이올린(작년부터 시작)
음악관련활동	일종의 방과 후 특기적성 식으로 토요일마다 5학년부터 선택적으로 플룻수업을 하며 따로 레슨비를 낸다.	
음악담당교사	외부강사 1명(바이올린 전공자로 정규음악수업과 특기적성 수업 둘 다 맡고 있다)	
비고	*1-2학년은 음악시간이 따로 없으며, 담임교사가 단순한 노래오2 리코더만 조금 가르쳐주어서 자연스럽게 음악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노래는 계절별 주제로 하고, 발도르프 교육으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느끼도록 한다. *이번 여름방학 때 3-5학년 신청자에 한해 바이올린 수업이 있을 예정	

11) 빛고을학교



위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984
방문일시	2007년 7월 23일
수업참관 대상	3학년 두 학급
주된 활동	솔페이즈, 피아노

① 음악수업 참관

▶음악수업 공간의 배경

빛고을 학교의 음악실은 평화학교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음악실은 별도의 건물로 되어있고 중앙 홀에 피아노가 있으며, 피아노 방이 9개 딸려 있다(강당에 피아노 한 대가 더 있다). 평화학교와 다른 점은 책상은 없고 의자만 있는 것이다. (평화학교는 교회용 의자이므로 책을 올려놓을 수 있다)

빛고을 학교의 음악수업은 매우 특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음악수업시간에 두 가지의 수업을 동시에 하는데, 음악실 중앙에서는 음악전담교사의

솔페이즈 수업을, 피아노 방에서는 개인별 피아노 레슨을 한다. 피아노 레슨의 순서는 미리 정해져 있으며, 음악전담교사로부터 솔페이즈 수업을 받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피아노 방으로 가서 외부강사에게 레슨을 약 20분간 받고 다시 돌아온다.

▶교사의 수업자료-솔페이즈 교재, 피아노, 마이크(수업진행시 사용)

▶학생의 수업자료-솔페이즈 교재, 피아노 교재

▶수업활동의 내용

빛고을 학교에서도 평화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체 제작한 솔페이즈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한다. ‘섬집아기’와 ‘파란마음 하얀마음’을 계명창 한 후 가사를 붙여서 노래하고 마지막으로 개사하여 불렀다. 그 다음 곡은 바장조로 된 ‘초록바다’였다. 교사는 바장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소프라노와 알토로 나누어 계이름으로 불러본 후 파트를 나누어 계명창을 두 번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소프라노로 가사창 하였다.

그 다음엔 ‘우리 어머니’와 ‘해바라기’를 가사창 하였는데, 학생들은 이 노래를 아주 좋아했다.

▶본 연구자의 평가

피아노와 노래수업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서로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쪽은 피아노레슨 쪽이었다. 누구나가 똑같이 각 방에 들어가서 피아노 레슨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친구들은 다함께 모여 있는데 자기 혼자 방에 들어와 있으면

친구들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마련이다. 참관 시 솔페이즈 수업과 피아노레슨을 동시에 볼 수 있었는데, 피아노레슨을 받는 학생들 중에는 연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 보다 가만히 있거나 솔페이즈 수업광경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았다. 피아노 레슨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학생들 중에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학생도 있고, 장난을 치는 학생들도 있었으나 노래할 때만큼은 신나게 부르는 등 음악수업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② 인터뷰를 통한 빗고을 학교의 음악수업 현황

<표-36> 빗고을 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정규음악수업 의 주당시수	1학년	4회(수요일 3교시와 5교시+ 목요일 5-6교시)
	2학년	7회(월요일 3-4교시+ 화요일 2교시+ 수요일 1교시+ 목요일 2교시+ 금요일 단소 한 타임)
	3학년	5회(월요일 2교시+ 화요일 5-6교시 + 목요일 3교시+ 금요일 단소 한 타임)
	4학년	3회(화요일 7교시+ 목요일 7교시+ 금요일 단소 한 타임)
	5학년	5회(월요일 4교시+ 화요일 4교시+ 수요일 6-7교시 + 금요일 단소 한 타임)
	6학년	5회(월요일 5교시+ 화요일 4교시+ 수요일 6-7교시 + 금요일 단소 한 타임)
	7학년	3회(화요일 3교시+ 목요일 3교시+ 금요일 단소 한 타임)
정규음악수업 의 내용	솔페이즈 국악동요	학년별 별도의 교재가 따로 있음
	단소	매주 금요일 2학년 이상 학생
	피아노	외부 강사에 의한 개인별 레슨
음악관련활동	합창	점심시간 이용, 약 20명
	기타	점심시간 이용, 약 5-7명
음악담당교사	상주교사	음악 전담교사 1명

	외부강사	피아노 전공자 1명
비고	<p>*2학기부터 장구수업 시작할 예정</p> <p>*2학기부터 신청자에 한해 바이올린, 첼로, 플룻 수업 시작할 예정</p> <p>*음악교사의 업무량이 많지만 재정상의 이유로 추가채용예정 없음</p> <p>*피아노11대(레슨실 9대+음악실 1대+강당 1대)중 강당에 있는 피아노는 7학년 중 피아노에 관심이 많은 특수아동이 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p> <p>*음악교사는 영역별로(솔페이즈, 이론, 피아노, 단소)학생들을 평가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 스스로 아이들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 참고자료이다.</p>	

12) 꽃피는 학교(대전)



위치	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677-3
방문일시	2007년 9월 12일
수업참관 대상	5학년 한 그룹
주된 활동	기악실기(바이올린)

① 음악수업 참관

▶ 음악수업 공간의 배경

꽃피는 대전학교(주소는 공주 이지만 대전으로 불린다)에서의 음악수업참관은 5학년 바이올린 수업이었다. 5학년은 총 8명이며 4명씩 그룹을 지어 바이올린 수업이 이루어진다. 한 그룹은 월요일에, 또 한 그룹은 수요일에 수업이 있는데, 수업이 없는 그룹의 학생들은 자유 시간을 갖는다. 수업의 장소는 5학년 교실이며, 풍금이 비치되어있다.

▶ 교사의 수업자료-바이올린, 풍금

▶ 학생의 수업자료-바이올린

▶ 수업활동의 내용

이 날은 악기점검을 하기로 한 날이었다. 점검과 튜닝은 교사가 직접 해주었으며, 그 사이 학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습하거나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악기 점검과 튜닝이 끝난 후 학생들은 풍금에 모여 교사의 풍금반주에 맞춰 ‘우리들의 날은 아름다워’ 와 ‘바이엘은 행진곡’이라는 곡을 합주한 후 한 명씩 따로 레슨을 받았으나 튜닝과 점검 때문에 레슨시간이 매우 짧을 수밖에 없었다. 레슨을 받은 후에는 각자 혹은 함께 연습을 한다.

수업은 꽃피는 하남학교와 같은 “가르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끝인사를 하고 끝났다.

② 인터뷰를 통한 꽃피는 학교(대전)의 음악교육 현황

<표-37> 꽃피는 학교(대전)의 음악교육 현황

정규음악수업의 주당시수	4-5학년만 주당 1회	
정규음악수업의 내용	바이올린	
음악관련활동	없음	
음악담당교사	외부강사	바이올린 전공 1명

13) 전인새싹학교(춘천)



위치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923-8
방문일시	2007년 9월 13일
수업참관 대상	5학년
주된 활동	감상, 이론, 가창

① 음악수업 참관

▶ 음악수업 공간의 배경

전인새싹학교의 음악수업은 빔 프로젝터와 오디오시설이 갖추어진 도서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피아노는 없다. 학생들은 교사가 음악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음악이론 문제집을 본다. 이 문제집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선물한 것으로써, 교사가 음악감상 준비를 하는 등 잠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문제집은 각자의 수준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교사의 수업자료-빔 프로젝터, 노트북, 오디오시설

▶ 학생의 수업자료-음악이론 문제집, 노트

▶ 음악수업의 내용

*이번차시 예고

교사는 차시예고를 먼저 하였다. 그 내용은 개사 발표, # 붙이는 순서와 암기방법, 셈여림이 잘 표현된 곡 감상, 왈츠 몸으로 느끼기(시간이 남을 경우)이다.

*음악 감상을 통한 형식 공부

교사는 론도형식을 설명하기 위해 손오공이 주인공인 만화영화의 영상을 보여주며 주제곡(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을 함께 들려주었다. 주제선율이 반복될 때마다 손을 들도록 지시하였다.

그 다음 곡은 '엘리제를 위하여'로 이 또한 주제선율이 나올 때마다 손을 들도록 지시하였으나 참여하는 학생은 몇 되지 않는다.

*가창

전인새작학교의 음악수업에는 피아노가 없기 때문에 미디어 파일을 이용한다. 교사는 자신의 노트북에 가창곡의 노래가사와 학생들이 개사해서 과제로 제출한 것을 정리해 놓았다. 학생들은 빔 프로젝터를 통해 가사를 보고, 미디어파일을 들으며 노래를 하는데, 이것 또한 참여도가 별로 높지 않다.

***감상**

감상곡은 ‘마술피리’였는데 감상에 들어가기 전에 썸여림을 설명한 후 노트에 필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썸여림에 주의를 기울여 ‘마술피리’를 듣도록 하였다.

***이론**

교사는 # 붙이는 순서와 암기법(파도소리가 나니까 라미시가 생각난다)을 간단하게 설명한 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할 것이라고 하였다.

***신체표현**

교사는 왈츠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 에델바이스 꽃 영상과 함께 ‘에델바이스’ 음악에 맞추어 직접 왈츠를 시범 보인 후 수업은 끝났다. (교사는 현재 스포츠 댄스를 배우고 있으며, 댄스과목을 개설하여 맡을 계획에 있다)

▶본 연구자의 평가

전인세삭학교의 음악수업에서의 문제점은 음악문제집이다. 음악이론 문제집은 색칠하기, 따라 그리기 등 쉽고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은 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문제집 푸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

그로 인해 교사의 음악수업에 대한 열의에 비해 학생들의 음악수업 참여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다.

② 인터뷰를 통한 전인세삭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표-38> 전인세삭학교(춘천)의 음악교육 현황

정규음악수업 의 주당시수	1-2학년	1회
	3-4학년	
	5학년	음악수업 없음
	6학년	
정규음악 수업의 내용	가창, 신체표현, 감상, 이론, 리듬악기 다루기, 몸 계명 등 (각 학년별 난이도만 다름)	
음악관련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으로 신청자에 한해 바이올린 수업이 있으며, 현재 4명이 하고 있다. (레슨비 8만원)	
음악담당교사	외부강사	바이올린 전공 1명
비고	*공교육의 음악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수업준비 *인성, 심성, 감성이 고루 발달한 인간을 목표로 하여 예술과목 증설계획	

14) 맑은샘 학교

위치	경기도과천시 과천동 475-9
방문일시	2007년 9월 28일
수업참관 대상	A그룹 10명/B그룹 6명
주된 활동	풍물

① 음악수업 참관

▶ 음악수업 공간의 배경

맑은샘 학교의 음악수업은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장구를 가지고 걸어서 이동하였고, 수준별로 나뉜 두 그룹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수업을 받는다. 각 그룹의 성격과 수업공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의 <표-39>와 같다.

<표-39> 맑은샘 학교의 풍물수업 그룹의 성격

그룹	수준	명수	공간	담당교사
A	높음	10명	넓은 회의실	외부강사 1명
B	낮음	6명	작은 사무실	생활교사 2명

▶ 교사의 수업자료-장구

▶ 학생의 수업자료-장구

▶ 음악수업의 내용

***A그룹(3-5학년/10명)**

외부강사가 수업을 맡아서 하며 장단은 ‘별달거리’와 ‘휘모리’였다. 따로 악보는 없고 학생들은 장단 대부분을 외우고 있었다. 다른 대안초등학교의 풍물수업과 마찬가지로 맑은샘 학교의 학생들도 장단을 느끼고 있으며 열심히 하는 모습이였다.

***B그룹(1-2학년/6명)**

B그룹의 학생들은 풍물 전문교사가 아닌 생활교사 2명이 맡아서 한다. 교사 한 명은 구음으로만 가르치고, 다른 한 명은 학생들과 함께 앉아 장구를 친다. 장단은 ‘칠채’였다. 칠채 장단은 ♩ ♪♪/♪ ♪♪/♪ ♪/♪ ♪/♪ ♪♪/♪ ♪♪/♪ ♪/♪ ♪♪으로 3분박과 2분박이 혼용된 장단으로써 초급자에겐 어려운 장단이다.

교사는 이 장단을 장구 구음이 아닌 ‘슈퍼맨 배트맨 빨리빨리 날아라 슈퍼맨 빨리 날아와라’ 라는 입장단으로 가르치는데, 3분박과 2분박이 혼용된 칠채 장단이 2분박으로 지도되고 있었다.⁷⁸⁾ 그리고, 칠채 변형장단도 지도

하였는데, 변형장단은 원래대로 3분박과 2분박 혼용으로 지도 하였다.

▶본 연구자의 평가

맑은샘 학교는 가정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학교 내에서 풍물수업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맑은샘 학교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이용하였으며, 저학년들에게도 풍물을 지도하고 있는 것은 다른 대안초등학교의 풍물수업과 차별화 되는 것이다. 풍물수업이 있는 다른 대안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3학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B그룹의 칠채장단은 수준에 비해 어렵고, 전문교사가 아닌 생활교사의 지도로 인해 장단이 약간 틀리게 지도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으나, 어린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입장단을 시도하는 점은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② 인터뷰를 통한 맑은샘 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표-40> 맑은샘 학교의 음악교육 현황

정규음악수업의	풍물	주 1회
주당시수와 내용	민요	격주 1회
음악관련활동	없음	
음악담당 교사	생활교사	초급 풍물, 오카리나와 노래
	외부강사	풍물전공 1명, 민요전공 1명(민요강사는 학부모이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비고	*아침열음 시간에 담임교사가 오카리나와 노래를 가끔 지도	

78) 본 연구자는 국악전공으로써 ‘칠채’장단을 정확히 알고 있다.

2. 설문지 결과 분석

대안초등학교의 음악담당교사, 학부모,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결과를 따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음악담당교사 설문지 분석

설문지의 주 내용인 ‘음악수업’은 정규 음악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음악활동이다. 일반 공교육에서의 음악수업은 음악이론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지만, 대안초등학교에서는 기악 실기나 노래 등 학교마다 서로 다른 교육내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음악활동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정규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음악 관련 활동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자는 총 15개의 학교에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교사 상대 설문지는 10개의 학교에서 수거가 되었다. 그 중 행복한 학교가 2부, 어린이학교 6부, 나머지 여덟 개의 학교에서는 한 부씩 설문지가 수거되어 교사 개인별 수거는 총 16부가 되었다.

그리하여 교사 개인별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의 총계는 16이며, 학교와 관련된 질문, 예를 들면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악기의 종류, 음악실의 유무 등에 대한 답은 각 학교마다 한 부씩만을 집계하여 총계는 10이다. 그리고, 항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보기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항별로 응답수의 합이 다를 수 있다.

음악담당교사의 설문지 수거 현황은 다음의 <표-41>과 같다.

<표-41> 음악담당 설문지 수거 현황

학교 명	학교의 수	교사의 수
두레학교	1	1
문화교육들살이	1	1
빛고을학교	1	1
평화학교	1	1
샘물학교	1	1
열음학교	1	1
칠보산자유학교	1	1
전인재짜학교(춘천)	1	1
행복한학교	1	2
어린이학교	1	6
합계	10	16

① 교사 인적사항

<표-42> 교사의 인적 사항

항목	구분	응답수(명)	퍼센트(%)	총(%)
성별	남	5	31.3	100.0
	여	11	68.8	
나이	25-30	7	43.8	100.0
	31-37	7	43.8	
	40-45	1	6.3	
	46-51	1	6.3	
교사자격증 유무	있다	8	50	100.0
	없다	8	50	
공교육 교직 경력	2년	1	6.3	100.0
	없다	15	93.8	
대안교육 교직 경력	1년 이하	6	37.5	100.0
	1-2년	3	18.8	
	2-3년	3	18.8	
	3년 이상	3	18.8	
	무응답	1	6.3	
최종학위	학사	13	81.3	100.0
	석사	1	6.3	
	박사	0	0	
	기타	2	12.5	
음악과목의 채용여부	그렇다	5	31.3	100.0
	아니다	11	68.8	

음악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성별은 남자가 5명, 여자가 11명으로 여자가 두 배 가량 많았다. 교사의 나이는 전체 응답자 16명 중 20~30대가 14명으로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안교육의 역사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짧은 대안교육의 역사를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문항인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교직 경력에서도 나타난다. 교직 경력이 없는 교사가 15명, 대안교육에서의 교직 경력이 3년 이하인 교사가 12명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안교육에서의 교직경력이 짧은 이유는 대안교육의 역사가 짧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대안학교 교사의 근무여건이 일반 공교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도 있다.⁷⁹⁾ 많은 수의 교사들이 신념을 가지고 대안학교에 취직했다가도 적은 급여로 인해 공교육 또는 아예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⁸⁰⁾

교사자격증의 유무로는 각각 50%씩 차지하였고, 최종학력에서 학사에 체크한 13명 중 한 명은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기타 응답 두 명은 모두 대학중퇴인 것으로 보아 대안학교에서는 교사의 학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대안학교의 교사채용공고를 보면 지원 자격에 '학력·전공 무관' 이라고 되어있으며, 학력보다는 교육에 대한 지원자의 철학을 더욱 중요시 하고 있다.

그리고, 음악과목으로 채용된 교사는 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1.3%인데, 이 5명 중 음악전담교사가 두 명이고 나머지 3명은 외부 초빙 강사이다. 나머지 11명은 음악전공자가 아닌 타 전공자들로서 주로 담임교사들이다. 이것은 설문조사에 응한 교사들만의 대답일 뿐, 실제로는 거의 모든 대안초등

79) 2007년 「대안교육백서」에 의하면 전국 70개 미인가 대안학교 상근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100만원이고, 특성화학교 교사의 월급을 합한 평균은 130만원에 불과하다.

80) 본 연구자가 대안학교 교사에게 직접 들은 얘기이다.

학교가 음악 전문강사를 채용하고 있다.

<표-43> 교사의 구체적인 전공

	빈도	퍼센트
교육학	1	6.3%
해양생물학	1	6.3%
사범대-유아교육, 인문대-지역사회개발학부	1	6.3%
유아교육	1	6.3%
역사교육	1	6.3%
음악전공	5	31.0%
기독교교육	6	37.5%
합계	16	100.0%

위 <표-43>에서 기독교 교육 6명은 모두 어린이 학교 교사의 대답이
고81), 전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44> 음악 외에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과목

음악 외에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과목	빈도(명)	퍼센트(%)
국어, 성서일기, 영어, 노작, 악기	1	6.3
국어, 수학	1	6.3
국어, 영어, 수학	1	6.3
국어, 영어, 수학, 성서일기, 프로젝트	1	6.3
국어, 영어, 수학, 테마학습	1	6.3
국어, 프로젝트	1	6.3
바이올린 레슨(방과 후)	1	6.3
수학, 과학, 공동체놀이	1	6.3
수학, 손끝활동, 관찰놀이	1	6.3
장애아동 음악치료, 수학(5-6학년)	1	6.3
주제수업, 말과 글, 수학	1	6.3
주제수업, 수학	1	6.3
무응답	4	25.0
합계	16	100.0

81) 어린이학교는 기독교다.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일반 공교육의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음악 외에도 여러 수업을 맡고 있었다.

다음은 각 학교의 음악수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설문 결과이다.

② 학교 시설 현황

<표-45> 음악실의 유무

	빈도	퍼센트
있다	4	40.0%
없다	6	60.0%
합계	10	100.0%

<표-46> 음악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빈도	퍼센트
교실	4	40.0%
음악실	4	40.0%
기타	2	20.0%
합계	10	100.0%

위의 <표-45>에서 보면 음악실이 있는 학교는 4, 없는 학교는 6으로 나왔지만, 이는 설문지에 응답한 10개 학교의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자의 대상인 총 15개의 학교를 모두 살펴본 결과로는 음악실이 없는 학교는 11개 학교로 늘어난다.

<표-46>에서 기타 대답 중 하나는 도서실로 전인세삭학교의 경우이다. 이곳의 도서실은 도서실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활동을 포함한 다른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듯 했다.

기타 응답 중 나머지 하나는 ‘교실, 악기가 있는 다른 곳, 그리고 야외’라

는 답인데 바로 어린이학교의 대답이다. 어린이학교의 경우는 음악실이라고 정해진 곳은 없지만, ‘동그라미’라고 불리는 건물에 피아노가 배치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음악수업을 하기도 하며, 풍물수업은 교실에서,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에서 음악수업을 한다. 어린이 학교 교사는 ‘동그라미’건물은 피아노가 있는 곳일 뿐 음악실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악기 보유현황이다.

<표-47> 악기보유 현황

	빈도	퍼센트
바이올린	2	20.0%
플룻	1	10.0%
큰북	5	50.0%
심벌즈	5	50.0%
작은북	6	60.0%
피아노	6	60.0%
실로폰	7	70.0%
뽕과리	9	90.0%
장구	9	90.0%
징	9	90.0%
캐스터네츠	9	90.0%
탬버린	9	90.0%
트라이앵글	9	90.0%
북	10	100.0%
기타	7	70.0%
총 학교 수	10	

대안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 중 북은 응답학교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국악타악기와 간단한 리듬악기 순이었다. 기타 대답으로는 오르프 타악기, 키보드, 리코더, 아코디언, 기타, 차임벨, 오카리나, 하모니카이다.

위의 보유악기가 음악수업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의 <표-48>에서 보이는 것처럼 음악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악기의 보유현황에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49>에서 보여 지듯이 더 갖추어야 할 악기에 대한 질문에도 무응답이 75%나 되는 것으로 보아 현재 보유한 악기에 어느 정도 만족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응답은 샘물학교 교사의 응답으로 ‘젬베 등의 타악기와 전자피아노 5대, 장구’ 라고 구체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아 음악수업의 내용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보인다.

<표-48> 현재 보유한 악기가 음악수업 및 음악관련 활동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빈도	퍼센트
그렇다	9	56.3%
보통이다	7	43.8%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16	100.0%

<표-49> 더 갖추어야 할 악기

	빈도	퍼센트
타악기	1	6.3%
키보드, 장구	1	6.3%
피아노, 기타	1	6.3%
기타	1	6.3%
무응답	12	75.0%
합계	16	100.0%

③ 교수·학습 방법

각 학교별로 철학과 교육내용이 다른 대안초등학교의 음악교사들은 어떤 교수·학습방법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는지 질문하였다. 다음은 수업 준비 자료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이다.

<표-50>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대안초등학교의 음악담당 교사들은 수업준비 자료를 일반 음악관련 서적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인터넷, 검인정 교과서 등 골고루 있었으나, 공교육에서처럼 교과서를 정해놓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화학교와 빗고을학교에서는 자체 제작한 슬페이지 교재가 따로 있으며, 샘물학교의 경우도 전 과목에 있어서 자체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50> 수업준비의 자료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검인정 교과서	2	12.5%	0	0.0%	1	6.3%
교사용 지도서	1	6.3%	0	0.0%	1	6.3%
인터넷	4	25.0%	3	18.8%	4	25.0%
일반 음악관련 이론서	2	12.5%	3	18.8%	2	12.5%
일반 음악관련 서적	6	37.5%	3	18.8%	3	18.8%
음악관련 학술지	0	0.0%	1	6.3%	1	6.3%
시청각 자료	1	6.3%	3	18.8%	2	12.5%
기타	0	0.0%	1	6.3%	0	0.0%
무응답	0	0.0%	2	12.5%	2	12.5%
합계	16	100.0%	16	100.0%	16	100.0%

수업방식에 있어서는 개인별 실기 발표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어느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은 방식은 모둠별 이론 보고서 발표였고, 개인별 이론 보고서는 2순위에서만 한 명이 응답을 하였다.

이것으로 대안초등학교에서는 이론과 토론 보다는 실기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공연연습, 시창, 악기연주, 이론, 해당사항 없음 등이다. 이렇게 실기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대안초등학교에서는 악기활용을 어느 정도 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표-52>에서 보여 지듯이 악기활용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악기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51> 수업 방식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강의	1	6.3%	0	0.0%	3	18.8%
주제토론	0	0.0%	0	0.0%	1	6.3%
개인별 이론 보고서 발표	0	0.0%	1	6.3%	0	0.0%
모둠별 이론 보고서 발표	0	0.0%	0	0.0%	0	0.0%
개인별 실기	7	43.8%	1	6.3%	1	6.3%
모둠별 실기	2	12.5%	6	37.5%	1	6.3%
현장체험(연주회장이나 악기공장 견학 등)	1	6.3%	2	12.5%	2	12.5%
기타	5	31.3%	0	0.0%	0	0.0%
무응답	0	0.0%	6	37.5%	8	50.0%
합계	16	100.0%	16	100.0%	16	100.0%

<표-52> 음악 수업 시 악기활용도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5	31.3%
그렇다	8	50.0%
보통이다	3	18.8%
그렇지 않다	0	0.0%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16	100.0%

다음은 학생들의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한 질문이다.

<표-53> 음악교육 내용 선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 반영도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3	18.8%
그렇다	8	50.0%
보통이다	4	25.0%
그렇지 않다	1	6.3%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16	100.0%

음악교육 내용 선정에 있어서는 대체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흥미와 자율성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이며 대안교육의 특징 중 한 가지이기도 하다.

다음은 교육내용과 관련된 설문 결과이다. 본 연구의 설문지에 있어서의 교육내용은 정규음악수업 외에 방과 후 활동 또는 특기적성도 포함한다.

④ 교육 내용

<표-54> 음악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장르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국악	4	25.0%	8	50.0%	1	6.3%
서양의 고전음악	5	31.3%	3	18.8%	0	0.0%
대중음악	0	0.0%	0	0.0%	5	31.3%
재즈	0	0.0%	0	0.0%	0	0.0%
퓨전	0	0.0%	0	0.0%	2	12.5%
종교음악	1	6.3%	2	12.5%	1	6.3%
다문화 음악	2	12.5%	1	6.3%	5	31.3%
기타	3	18.8%	0	0.0%	0	0.0%
무응답	1	6.3%	2	12.5%	2	12.5%
합계	16	100.0%	16	100.0%	16	100.0%

우선 국악과 서양의 고전음악만 비교해 보면 1순위에서는 국악이 4명, 서양의 고전음악이 5명으로 고전음악이 약간 앞섰지만, 2순위에서는 국악이 8명, 고전음악이 3명으로 국악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그리고, 1순위와 2순위에는 전혀 없는 대중음악이 3순위에서는 5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문화 음악도 3순위에서는 대중음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대안초등학교의 음악교사는 음악교육에 필요한 장르를 어떤 한 가지에만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르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대답으로는 창작공연과 민족음악이 있었고, 재즈는 그 어떤 순위에도 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등교육이라는 제한점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수업시간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다. 아래 <표-55>에 의하면 대안초등학교의 음악담당교사들은 가이드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공교육과는 매우 구분되는 것이다. 공교육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표·교과서·과제물·수행평가를 하는 것과 달리 대안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음악시간에 배울 악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등 학생들의 자율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이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한다. 그 외 기타 대답으로는 ‘player’,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원함’의 두 대답이 있었는데, 후자의 대답은 춘천전인세삭학교 교사의 답으로 ‘가이더’에도 체크를 했다.

<표-55> 음악수업시간의 교사의 역할

	빈도	퍼센트
자료 준비자	1	6.3%
학습 정보 제공자	2	12.5%
평가자	1	6.3%
가이더	10	62.5%
지식 전달자	0	0.0%
관찰자	0	0.0%
기타	2	12.5%
합계	16	100.0%

다음은 음악관련 활동과 관련된 설문 결과이다.

대안초등학교에서는 음악관련 활동이 따로 있는 학교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그러한 활동이 이미 정규수업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악과 관련 활동이 있는 학교 현황은 다음의 <표-56>과 같다.

<표-56> 각 학교별 음악관련 활동 현황

학교	음악관련 활동	전문교사의 유무
두레학교	합창	○
문화교육들살이	없음	X
빛고을학교	기타(방과 후), 합창(점심시간)	○
샘물학교	타악기양상블, 바이올린, 첼로, 오케스트라, 합창, 솔페이즈 기초반(1-2학년)	○
열음학교	없음	X
칠보산자유학교	없음	X
평화학교	없음	X
춘천전인새싹학교	바이올린	○
행복한학교	풍물	○
어린이학교	피아노, 드럼	○

위의 <표-56>은 수거된 10학교의 설문지 외에 나머지 5개 학교 중 음악 관련 활동이 있는 학교는 꽃피는 학교(하남)로 5학년 이상만 선택적으로 플루트를 하고 있다. 음악관련 활동은 정규수업과 달리 전문교사를 따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꽃피는 학교(하남)도 같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기적성 외에 개설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표-57>처럼 다양하게 나왔으며, 그 중에서도 타악과 관련된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7> 개설하고 싶은 음악관련 활동

	빈도	퍼센트
국악(사물놀이패), 실용음악(보컬)	1	6.3%
기악합주, 합창	1	6.3%
기타연주	1	6.3%
난타	1	6.3%
댄스(몸으로 표현하고 느끼는 음악)	1	6.3%
사물놀이	1	6.3%
어린이밴드, 합창단	1	6.3%
타악기동아리	1	6.3%
플루트, 클라리넷, 국악	1	6.3%
무응답	7	43.8%
합계	16	100.0%

⑤ 평가

대안초등학교의 음악담당 교사들은 평가를 하지 않거나 실기평가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기평가가 많은 것은 음악수업 시 기악실기를 하고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타 응답으로는 ‘학기말 공연’, ‘발표회’, ‘창의적인 내용 발표’, ‘아이들 취향별로 평가’이다. 위와 같이 평가방법은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평가한 것에 대한 기록의 방법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방법은 서술식이 60%로 가장 높았고, ‘평가는 하되 그 결과를 기록하지 않는다’가 30%였다. 이와는 반대로 ‘기록은 하되 평가는 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응답은 서술식에 체크를 하고 따로 적어놓은 것이다. 서술식에 체크를 한 교사 중 따로 부연설명을 한 교사가 또 한 명 있었는데, 그 교사는 ‘서술하되 이론부분은 숫자로 기록하여 교사만 알게 한다’고 하였다. 아이들의 음악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교사만의 방편인 것이다.

<표-58> 평가 방법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음악이론 필기시험	1	10.0%	1	10.0%	1	10.0%
음악이론 구술시험	1	10.0%	0	0.0%	1	10.0%
개인별 실기평가	2	20.0%	1	10.0%	0	0.0%
모둠별 실기평가	0	0.0%	2	20.0%	0	0.0%
보고서	0	0.0%	0	0.0%	0	0.0%
평소의 수업태도만 평가	1	10.0%	1	10.0%	1	10.0%
평가하지 않는다	3	30.0%	0	0.0%	0	0.0%
기타	2	20.0%	0	0.0%	2	20.0%
무응답	0	0.0%	5	50.0%	5	50.0%
합계	10	100.0%	10	100.0%	10	100.0%

<표-59> 평가의 수치화 방법

	빈도	퍼센트
수우미양가	0	0.0%
숫자의 점수화	0	0.0%
알파벳의 점수화	1	10.0%
서술식	5	50.0%
평가는 하되 그 결과를 기록하지 않는다	3	30.0%
기타	0	0.0%
무응답	1	10.0%
합계	10	100.0%

지금까지 대안초등학교의 음악담당 교사를 상대로 한 설문지 분석이었고, 다음은 대안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5-6학년 학생을 상대로 한 설문지 분석이다.

2) 5-6학년 설문지 분석

학생을 상대로 한 설문지 수거는 총 10학교로 113명이다. 일반적으로 5-6학년이면 만 11세-만 12세이지만, 대안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6학년은 그 보다 어린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 있었다. 본 연구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학년만을 고려하여 설문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안초등학교는 미인가 이기 때문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검정고시를 봐야한다. 이러한 부담감으로 학부모들은 자녀가 6학년이 되면 일반 학교로 전학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 대안초등학교에는 6학년이 아예 없거나 다른 학년에 비해 그 수가 적다. 설문에 응해준 학생들은 남학생이 63명, 여학생이 50명으로 남학생이 더 많았다. 이것은 대안학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비 불균형에서 온 결과라 보겠다.

학생 상대 설문은 대안초등학교에 대한 이해, 음악수업의 흥미도, 음악관련 활동, 음악회 경험에 대한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음악에 대한 흥미도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교사 상대 설문지에서처럼 복수응답이 필요한 문항들이 있어 합계의 수는 각 문항마다 다를 수 있다.

<표-60> 설문에 응해준 학생들의 학교와 빈도

학교명	빈도	퍼센트
두레학교	22	19.5%
빛고을학교	33	29.2%
샘물학교	22	19.5%
칠보산자유학교	6	5.3%
어린이학교	6	5.3%
행복한학교	1	0.9%
열음학교	1	0.9%
문화교육들살이	2	1.8%
산어린이학교	6	5.3%
평화학교	14	12.4%
합계	113	100.0%

<표-61> 성별

	빈도	퍼센트
남자	63	55.8%
여자	50	44.2%
합계	113	100.0%

① 학교에 대한 만족도

대안초등학교의 역사는 길어야 6-7년 정도이기 때문에 5-6학년들은 일반 학교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일반학교에 다녀본 경험이 있는 대안 초등학교 학생들은 현재의 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해하는지, 또 일반학교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현재 대안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일반 학교와 대안초등학교의 교육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으며, 본인의 의지로 학교를 선택한 학생은 44.2%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선택이유의 기타대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노래공부를 더 하기 위해

서’, ‘학원을 여기서 다해서’, ‘왕따가 없다고 해서’, ‘컴퓨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엄마가 만들어서’, ‘아빠가 이곳 선생님이라서’, ‘옷’, ‘나를 위해서’, ‘처음엔 부모님 다음엔 내가’, ‘엄마와 나의 합의로’, ‘이모’, ‘계절학교를 통해서’ 등 구체적인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다.

<표-62>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다른 일반학교와 교육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빈도	퍼센트
알고있다	84	74.3%
모른다	1	0.9%
알긴아는데 자세히는 모른다	28	24.8%
합계	113	100.0%

<표-63> 지금 다니는 학교를 오게 된 이유

	빈도	퍼센트
내가 가고 싶어서	50	44.2%
부모님이 가라고 하셔서	48	42.5%
친구 따라서	2	1.8%
기타	13	11.5%
합계	113	100.0%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한 현재의 학교를 이 전의 학교보다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똑같다’가 8.8%, ‘잘 모르겠다’가 12.4%나 되었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집과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1위로 나타났다.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걸어서 통학이 가능하지만, 대안학교의 학생들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대안학교들은 그 숫자도 적을뿐더러 생태와 자연을 중요시하고, 재정적 여유가 없어 전원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외의 불만으로는 ‘과제가 너무 많다’, ‘전교생의 수가 너무 적다’, ‘공부보다 다른 활동들이 너무 많은 점이 싫다’라는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안학교의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 불만족의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그 외의 기타 대답은 ‘너무 늦게 끝난다’, ‘운동장이 없다’, ‘과외가 너무 많다’, ‘과학실이나 운동장 같은 게 없다’, ‘우리반이 너무 적다’, ‘아이들이 대든다’, ‘동생들이 대든다’, ‘기숙사에서 자유롭지 못함’, ‘간식이 부실하다(2명)’, ‘기숙사가 싫다’, ‘자유롭지 않다’, ‘놀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애벌레가 싫다’ 등이었고, 불만이 없다고 적은 학생의 수는 11명이나 되었다.

위의 기타 대답 중 ‘운동장이나 과학실이 없다’는 대답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가 음악수업참관을 위해 방문한 14개 학교들(연구 대상 학교는 총 15개 이지만, 그 중 한 학교는 설문조사만 함)의 바깥환경은 모두 달랐다. 일반 초등학교처럼 넓은 운동장이 있는 학교, 가정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어 조그마한 마당만 있는 학교, 건물 내부에 자리하고 있어 운동장 자체가 없는 학교, 넓은 전원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바닥이 평평한 공간이 없어 축구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학교, 넓진 않지만 평평한 공간의 작은 운동장을 마련해 둔 학교 등이 있었다. 한참 나가서 뛰어 놀아야 할 나이에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만 중 몇 가지는 대안학교의 장점이기도 하다. 이것은 <표-66>에서도 입증되 된다. <표-66>은 학교의 어떤 점이 맘에 드는지에 대한 대답인데,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좋다’, ‘학교의 주변 환경’, ‘적은 전교생의 수’, ‘복장의 자유’ 순 이었고, 기타 대답으로는 ‘배를 안 때려서 좋다’, ‘선생님이 좋다’, ‘다정하다’,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줘서’, ‘선생님과의 편한 대화’, ‘예수님을 믿어서’,

‘웃’, ‘선생님들이 훌륭한 분이 많다’, ‘재미있게 수업 한다’ 등이 있었으며, ‘다 좋다’라는 의견은 2명이 있었다. 기타 대답 중 교사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안학교 학생들은 교사와 친근하고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대안학교의 특성들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64> 전에 다녔던 학교와 지금 다니는 학교 중 어느 학교가 더 좋은가?

	빈도	퍼센트
지금 다니는 학교	78	69.0%
예전에 다녔던 초등학교	10	8.8%
똑같다	10	8.8%
잘 모르겠다	14	12.4%
무응답	1	0.9%
합계	113	100.0%

<표-65> 지금 다니는 학교의 맘에 들지 않는 점

	빈도	퍼센트
주변 환경이 맘에 들지 않는다	8	5.6%
집이랑 너무 멀어서 교통이 불편하다	40	28.2%
전교생 수가 너무 적다	21	14.8%
공부보다 다른 활동들이 너무 많은 점이 싫다	14	9.9%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너무 자유로워서 공부에 전념할 수가 없다	11	7.7%
과제가 너무 많다	31	21.8%
기타	17	12.0%
합계	142	100.0%

<표-66> 지금 다니는 학교의 맘에 드는 점

	빈도	퍼센트
학교의 주변환경(예:시골 같은 풍경)이 맘에 든다	55	19.2%
전교생의 수가 적어서 맘에 든다	50	17.4%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 (예:노작, 프로젝트 수업, 유적지 답사, 요리 등)을 많이 해서 좋다	90	31.4%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얘기하거나 돌아다녀도 되니까 좋다	28	9.8%
복장, 헤어 스타일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다	52	18.1%
기타	12	4.2%
합계	287	100.0%

다음은 학생들의 음악수업에 대한 흥미도 분석 결과이다.

② 음악수업의 흥미도

교육에 있어서 어떤 과목이든 흥미를 느껴야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고 성과도 있게 된다. 그것은 교육뿐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과 연관시킬 수 있다. 열심히 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도 있듯이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음악교육은 얼마든지 흥미 유발이 가능하며 즐겁게 수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교육에서의 음악수업은 쉬어가는 시간, 대충 해도 되는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안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음악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설문에 응답해 준 113명 중 95명인 84.1%의 학생들은 음악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악기연주를 가장 재미있어 했다. 반면 재미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13.3%였는데, 이들 역시 그나마 악기연주 할 때가 낫다고 대답한 학생이 2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악기연주 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음악수업시간에 게임,

퀴즈,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흥미를 느꼈으며, 재미있는 활동이 하나도 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네 명이나 있었다.

<표-67> 음악수업은 재미있나요?

	빈도	퍼센트
네	95	84.1%
아니오	15	13.3%
무응답	3	2.7%
합계	113	100.0%

<표-68> 네: 재미있다면 무슨 활동을 할 때가 재미있는지 모두 골라주세요

	빈도	퍼센트
노래부르기	36	17.4%
악기연주	71	34.3%
수업과 관련된 비디오나 티브이를 볼때	33	15.9%
음악감상	41	19.8%
창작	17	8.2%
기타	9	4.3%
합계	207	100.0%

<표-69>아니오:그래도 재미있는 걸 한 가지만 고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빈도	퍼센트
노래부르기	3	20.0%
악기연주	4	26.7%
비디오나 티브이를 볼때	1	6.7%
음악감상	2	13.3%
창작	0	0.0%
기타	2	13.3%
무응답	3	20.0%
합계	15	100.0%

악기활동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악기는 너무도 다양했으며, 그 중 가장 인기가 있는 악기는 폴랏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바이올

린, 드럼과 기타 순이었다. 하지만, 배우고 싶은 악기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16명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국악기로는 장구, 가야금, 해금, 단소가 있었는데, 장구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은 단 한명만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이미 많은 대안학교들이 장구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70> 음악시간에 배우고 싶은 악기

	빈도	퍼센트
오보에	1	0.8%
장구	1	0.8%
차임벨	1	0.8%
콘트라베이스	1	0.8%
트럼펫	1	0.8%
피콜로	1	0.8%
단소	2	1.6%
리코더	2	1.6%
색소폰	2	1.6%
클라리넷	2	1.6%
타악기	2	1.6%
해금	2	1.6%
관악기	3	2.4%
오카리나	3	2.4%
하모니카	3	2.4%
하프	3	2.4%
가야금	4	3.2%
첼로	6	4.8%
피아노	10	8.0%
기타	13	10.4%
드럼	13	10.4%
바이올린	14	11.2%
플룻	19	15.2%
없다	16	12.8%
합계	125	100.0%

음악시간에 하지 않았으면 하는 활동은 이론이 42.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창작도 18.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지 않았으면 하는 활동이 없다고 기타에 적은 학생이 7명이나 되었으며, 악보그리기, 유치한 것을 하기 싫다고 적은 학생도 있었다.

<표-71> 음악시간에 하지 않았으면 하는 활동

	빈도	퍼센트
이론	51	42.1%
노래하기	19	15.7%
악기연주	12	9.9%
음악감상	11	9.1%
창작	22	18.2%
기타	6	5.0%
합계	121	100.0%

일반학교에서의 음악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현재 학교의 음악수업이 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재미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음악시간에 발표가 더 늘었다고 대답한 학생은 28.9%, ‘그렇지 않다’가 25.6%로 상반된 대답이지만 빈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각 개인마다 전에 다녔던 학교의 음악수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라 해석된다.

<표-72> 전에 다녔던 학교와 지금 학교 중 어느 음악수업이 더 재미있나요?

	빈도	퍼센트
전에 다녔던 학교	16	17.8%
지금 다니는 학교	54	60.0%
둘 다 똑같이 재미있다	3	3.3%
둘 다 똑같이 재미없다	4	4.4%
둘 다 보통이다	9	10.0%
모르겠다	4	4.4%
합계	90	100.0%

<표-73> 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음악수업시간에 발표가 늘었나요?

	빈도	퍼센트
그렇다	26	28.9%
그렇지 않다	23	25.6%
비슷하다	8	8.9%
모르겠다	32	35.6%
무응답	1	1.1%
합계	90	100.0%

전에 다녔던 학교에 비해 지금 다니는 학교의 음악수업은 어떠한지에 대한 대답에는, 악기를 다루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의견이 28.8%, 노래 부르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의견은 21.2%다. 그 다음 3위인 감상수업과 이론을 배우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의견은 둘 다 13.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음악관련 특기적성이나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설문 결과이다.

③ 음악관련 활동

음악관련 활동에 대한 질문은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질문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문으로 나뉜다. 설문에 응해준 학교들의 특기적성 및 동아리 활동의 내용은 다음 <표-74>와 같다.

<표-74> 각 학교별 음악관련 활동 현황

학교	음악관련 활동
두레학교	합창
문화교육들살이	없음
빛고을학교	기타(방과 후), 합창(점심시간)
샘물학교	타악기양상블, 바이올린, 첼로, 오케스트라, 합창, 솔페이즈 기초반(1-2학년)
열음학교	없음
칠보산자유학교	없음

평화학교	없음
춘천전인세삭학교	바이올린
행복한학교	풍물
어린이학교	피아노, 드럼

현재 음악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총 113명 중 23명이고 이들은 현재의 활동에 대해 대체로 만족해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표-75> 현재 음악관련 활동에 대한 만족도

	빈도	퍼센트
매우 재밌다	9	39.1%
재밌다	6	26.1%
보통이다	6	26.1%
재미없다	1	4.3%
매우 재미없다	1	4.3%
합계	23	100.0%

<표-76> 현재의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가?

	빈도	퍼센트
그렇다	15	65.2%
그렇지 않다	5	21.7%
모르겠다	3	13.0%
합계	23	100.0%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음악관련 활동을 했던 학생들은 총 28명이며 그들 중 피아노를 했던 학생들이 28.6%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바이올린, 플룻, 성악, 장구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들 중 다시 음악관련 활동을 할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32.1%에 불과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시 할 생각이 없거나 무응답인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표-77>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했던 음악관련 활동

	빈도	퍼센트
관악부	1	3.6%
기타	1	3.6%
리코더	1	3.6%
성악	1	3.6%
중창	1	3.6%
장구	2	7.1%
오카리나	2	7.1%
기악합주	3	10.7%
플룻	3	10.7%
바이올린	5	17.9%
피아노	8	28.6%
합계	28	100.0%

<표-78> 앞으로 음악관련 활동에 들 생각이 있는가?

	빈도	퍼센트
있다	9	32.1%
없다	5	17.9%
모르겠다	10	35.7%
무응답	4	14.3%
합계	28	100.0%

새로 생겼으면 하는 음악관련 활동에 대한 질문에도 전체 113명 중 무응답이 35.4%, ‘없다’가 18.6%를 차지하여 총 54%의 학생들은 음악과 관련된 수업 외 활동에는 별로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대답을 한 학생들의 답은 드럼, 플룻, 하프, 국악, 트럼펫 등 매우 다양하며, 다양한 만큼 빈도수에도 큰 차이는 없다.

<표-79> 새로 생겼으면 하는 음악관련 활동

	빈도	퍼센트
기타 동아리	1	0.9%
노래 동아리	1	0.9%
바이올린 동아리	1	0.9%
오카리나 동아리	1	0.9%
타악기 앙상블	1	0.9%
합창 동아리	1	0.9%
국악 동아리	2	1.8%
플룻 동아리	2	1.8%
피아노 동아리	3	2.7%
없다	26	23.0%
무응답	74	65.5%
합계	113	100.0%

지금까지는 학교 내부의 음악과 관련된 설문조사였고, 다음은 학교 밖의 음악활동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이다.

④ 연주회장 방문 경험

설문에 응해준 113명의 학생들 중 80.5%가 음악회를 보러 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들이 경험한 음악회는 뮤지컬 24.7%, 서양의 클래식 24.2%, 국악 17.0% 순이다. 기타 대담으로는 피아노 연극, 리코더, 독창, 환경음악회 등이며, 없다고 적어준 학생도 두 명 있었다.

그들이 찾은 음악회는 부모님의 추천으로 가게 된 경우가 4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학교 선생님 12.1%, 스스로 골라서 간 경우가 10.9%였다. 기타 대담으로는 성당에서 대표로, 아는 분, 누나, 친구 부모님, 포스터를 보고, 악기 선생님, 학원선생님, 학교 등으로 기타에서는 선생님과 관련된 답이 많았다.

그들 중 65.6%의 학생들은 음악회를 또 보러 가고 싶다고 대답하였으며, 가수 콘서트에 가고 싶다고 대답한 학생이 26.7%, 뮤지컬이 23.3%로 1,2

위로 별 차이는 없다. 가장 낮은 장르는 국악과 퓨전으로 둘 다 10.0%씩 차지하였다. 기타로는 오케스트라 5명, 없다는 의견이 5명, 발레 스케이트가 2명으로 나왔다.

<표-80> 음악회 경험의 유무

	빈도	퍼센트
있다	91	80.5%
없다	16	14.2%
무응답	6	5.3%
합계	113	100.0%

<표-81> 어떤 음악회였나? 모두 골라주세요

	빈도	퍼센트
국악	33	17.0%
서양의 클래식	47	24.2%
뮤지컬	48	24.7%
가수 콘서트	27	13.9%
퓨전	8	4.1%
재즈	10	5.2%
기타	21	10.8%
합계	194	100.0%

<표-82> 누구의 추천으로 음악회를 가게 되었나?

	빈도	퍼센트
내가 스스로 골라서	13	10.5%
부모님	63	50.8%
친척	11	8.9%
학교선생님	15	12.1%
친구	8	6.5%
기타	14	11.3%
합계	124	100.0%

<표-83> 음악회를 또 보러가고 싶나요?

	빈도	퍼센트
네	74	65.5%
아니오	17	15.0%
무응답	22	19.5%
합계	113	100.0%

<표-84> 어떤 음악회를 보러 가고 싶나요? 모두 골라주세요.

	빈도	퍼센트
국악	15	10.0%
서양의 클래식	20	13.3%
뮤지컬	35	23.3%
가수 콘서트	40	26.7%
퓨전	15	10.0%
재즈	18	12.0%
기타	7	4.7%
합계	150	100.0%

3) 학부모 설문지 분석

학부모 대상 설문지는 총 7학교, 63부가 수거 되었다. 학부모 상대 설문지는 학부모의 인적사항, 학교선택의 기준, 일반학교와 대안초등학교에 대한 생각,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 총 네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었고, 복수응답을 필요로 하는 문항도 있어 그 총계는 문항마다 다를 수 있다. 자녀 교육에 남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인 만큼 설문조사에도 진지하게 응해주었으며, 수거된 학부모 대상 설문지의 학교별 수거 현황목록은 다음 <표-85>와 같다.

<표-85> 학부모 상대 설문지 학교별 수거 현황 목록

	빈도	퍼센트
산어린이학교	20	31.7%
어린이학교	12	19.0%
평화학교	11	17.5%
칠보산자유학교	9	14.3%
두레학교	5	7.9%
전인새싹학교	5	7.9%
행복한학교	1	1.6%
합계	63	100.0%

① 인적사항

대안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나이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50대도 한 명 있었다. 최종학력은 학사출신이 76.2%로 가장 높았고, 27%의 학부모들은 해외 유학 또는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 체류시 대안교육에 대해 접해본 학부모는 11.8%로 해외경험의 유무와 대안교육의 관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86> 나이

	빈도	퍼센트
30~35	6	9.5%
36~40	40	63.5%
41~45	14	22.2%
46~50	2	3.2%
51~55	1	1.6%
합계	63	100.0%

<표-87> 최종학력

	빈도	퍼센트
고졸	4	6.3%
학사	48	76.2%
석사	9	14.3%
박사	0	0.0%
기타	1	1.6%
무응답	1	1.6%
합계	63	100.0%

<표-88> 해외유학, 해외연수, 해외 거주 경험

	빈도	퍼센트
있다	17	27.0%
없다	46	73.0%
합계	63	100.0%

<표-89> 해외 경험의 나라

	빈도	퍼센트
일본	8	47.1%
중국	3	17.6%
미국	2	11.8%
캐나다	1	5.9%
유럽	1	5.9%
홍콩	1	5.9%
호주	1	5.9%
합계	17	100.0%

<표-90> 해외 거주 시 대안교육에 대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는가?

	빈도	퍼센트
있다	2	11.8%
없다	14	82.4%
무응답	1	5.9%
합계	17	100.0%

다음은 자녀를 지금의 학교에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질문이다.

② 학교선택의 기준

자녀를 대안초등학교에 보내는 일은 학부모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용기와 신념이 있지 않으면 결정하기 힘든 문제이다. 대안초등학교의 역사는 10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증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초등학교로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은 학교선택에 있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알아보았다.

그들 중 60.3%가 학교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자녀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도 한 명 있었고, 기타 답으로는 남편, 친구, 창립 멤버가 있었다.

<표-91> 이 학교는 누구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나?

	빈도	퍼센트
직접 알아봄	38	60.3%
친척, 지인	16	25.4%
자녀	1	1.6%
기타	8	12.7%
합계	63	100.0%

학부모들은 학교 선택 시 학교의 교육철학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고, 그 다음은 학교의 수업방식이었다. 가장 응답수가 적은 것은 학교의 시설이었는데, 이는 현 사회의 세대와 반대된다 할 수 있겠다. 요즘 조그만 가게 하나를 내더라도 시설을 잘 해놔야 이목을 끌 수 있으며, 자녀교육 맡길 학원 하나를 고르는데도 시설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안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았다. 교육의 질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그 외 기타응답으로는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 친근감, 공동체성, 자연속의 학교/기숙사 안에서의 학교가 있었다.

<표-92> 학교 선택 시 주안점 세 가지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위치	6	9.5%	6	8.6%	11	19.0%
시설			1	1.7%	3	5.2%
학교의 교육철학	52	82.5%	8	13.8%	2	3.4%
교사의 학벌 및 경력			1	1.7%	6	10.3%
학교의 수업방식	4	6.3%	38	62.1%	12	17.2%
학교의 전통			1		10	15.5%
기타			2	3.4%	3	5.2%
무응답	1	1.6%	6	8.6%	16	24.1%
합계	63	100.0%	63	100.0%	63	100.0%

③ 일반학교와 대안초등학교에 대한 생각

현재 대안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중 자녀를 일반학교로 옮길 생각이 있는 학부모는 단 한 명이었고, 82.5%는 옮길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진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학부모는 15.9%였다. 이것은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93> 자녀를 일반학교로 옮길 생각이 있는가?

	빈도	퍼센트
있다	1	1.6%
없다	52	82.5%
현재까진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10	15.9%
합계	63	100.0%

자녀를 일반학교로 옮길 생각이 있다는 11명의 학부모들은 다음 <표-94>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표-94> 자녀를 일반학교로 옮길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빈도	퍼센트
대안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1	9.1%
또래 나이보다 학력이 저하되는 것 같다	2	18.2%
좋은 학벌을 위해서는 공교육이 나올 것 같다	0	0.0%
지금 다니는 학교의 위치와 시설 등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0	0.0%
기타	6	54.5%
무응답	2	18.2%
합계	11	100.0%

다른 일반학교로 옮길 수도 있다는 이유 중 자녀의 학벌 때문에 옮기겠다는 의견은 없었으나, 기타응답에서 ‘아이의 장래직업이나 아이의 의사에 따라서 일반중학교로 진학’, ‘대안교육에 대한 생각과 현실이 동떨어지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초등과정의 다른 대안학교가 가까운 곳에 없기 때문에’, ‘학교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대안교육에 결정적 주제가 부족하다(학교에 정신적 물질적 투자가 부족)’, 성장 발달 단계에 있으므로 적응력 등의 아동 상황을 고려한다’, ‘상급 공교육 기관 진학을 대비-검정고시’ 등의 이유로 일반학교로 옮길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기타응답 중 몇 가지는 이론적 배경에서도 밝혀졌던 내용들이다. 재정지원, 학력 불인정, 통학의 불편성 등은 현재의 비인가 대안초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단점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학부모들은 자녀를 일반학교로 옮길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안초등학교에는 6학년들의 숫자가 적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학교로 옮길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95.2%로 현재의 학교를 맘에 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옮길 생각이 있거나 옮길 수도 있다는 두 명은 다른 대안학교의 경험을 위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표-95> 자녀를 다른 대안학교로 옮길 생각이 있는가?

	빈도	퍼센트
있다	1	1.6%
없다	60	95.2%
현재까진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1	1.6%
무응답	1	1.6%
합계	63	100.0%

<표-96> 다른 대안학교로 옮길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빈도	퍼센트
현재 학교의 위치와 시설 미비	0	0.0%
현재 학교의 수업방식이 맘에 들지 않음	0	0.0%
다른 대안학교의 경험을 위해	2	100.0%
기타	0	0.0%
무응답	1	0.0%
합계	3	100.0%

지금까지의 설문지 분석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대체로 현재의 학교에 만족해 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하겠다는 의견보다 있는 그대로 얘기만 할 뿐 추천은 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의외로 높게 나왔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자녀교육에 관여하거나 책임질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표-97> 주변에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하겠는가?

	빈도	퍼센트
그렇다	19	30.2%
그렇지 않다	0	0.0%
있는 그대로 얘기만 해 줄 뿐 추천하지는 않는다	44	69.8%
합계	63	100.0%

④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

일반 공교육에서는 예술과목보다 주요과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 또한 입시체도로 인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안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다른 성향을 가진 학부모들은 음악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자녀가 음악은 좋아하지만 음악이론에서 약할 경우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학부모는 68.3%로 1위를 차지하였지만, 주요과목에 대해서는 달랐다. 자녀가 공교육에서 중요시 하는 과목이 약할 경우 그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학부모는 25.4%에 불과하고, 자녀 스스로 그 과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의견이 58.7%로 1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일반학교로 전학을 시키겠다는 학부모는 단 한명도 없었고, 따로 과외를 시키겠다는 학부모는 한 명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아이가 원한다면 방법은 서로 의논, 홈스쿨(집에서 지도), 기본적인 수준에는 도달하도록 옆에서 협력하고 무엇보다 교과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유지되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생각, 집에서 부모랑 같이 하겠다, 자녀가 그 과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상의한다는 의견이었다.

이것으로 대안초등학교의 학부모들 역시 음악과목보다는 주요과목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녀의 부족한 음악이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타 응답으로 ‘엄마가 가르친다’, ‘본인의 의사를 물어본 후

보충할 방법을 찾는다’, ‘피아노 레슨을 겸해 자연스럽게 이론을 보충한다’는 대답이 나온 것으로 보아 억지로 시킨다기보다 교육의 중심에 자녀를 두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98> 자녀가 음악은 좋아하는데 이론적인 면에서 약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빈도	퍼센트
음악이론을 몰라도 음악을 좋아한다면 문제 삼지 않는다	43	68.3%
음악선생님께 음악이론을 보충해달라고 부탁한다	9	14.3%
음악이론 보충을 위해 따로 과외수업을 시킨다	1	1.6%
자녀가 스스로 음악이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7	11.1%
기타	3	4.8%
합계	63	100.0%

<표-99> 자녀가 공교육에서 중요시 하는 과목이 약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빈도	퍼센트
좀 걱정은 되지만 문제 삼지 않는다	16	25.4%
학교 선생님께 보충해달라고 부탁한다	4	6.3%
수업시간 외에 따로 과외를 시킨다	1	1.6%
일반학교로 전학시킨다	0	0.0%
자녀가 스스로 그 과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7	58.7%
기타	5	7.9%
합계	63	100.0%

학부모들은 음악이론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자녀의 기악실기 면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대안초등학교의 경우 음악수업의 내용이 기악실기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악기를 가르치고 있는 학부모가 전체의 50.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피아노를 기본적으로 포함하여 두 가지씩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나머지 49.2%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현재의 상황일 뿐 과거에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설문지에 ‘현재는 안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함)

<표-100> 학교 외부에서 자녀가 따로 배우고 있는 악기는 무엇인가?

	빈도	퍼센트
바이올린	1	1.6%
피아노, 바이올린	2	3.2%
피아노, 오카리나	1	1.6%
피아노, 플룻	1	1.6%
피아노, 풍물	1	1.6%
피아노	26	41.3%
없다	31	49.2%
합계	63	100.0%

음악시간에 학부모에게 참관할 기회를 제공한 학교는 불과 22.2% 밖에 되지 않았지만, 참관기회가 제공된 학부모들은 모두 참관을 함으로써 음악수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관 결과 수업방식이 맘에 들었다는 학부모는 64.3%, 그렇지 않았다는 학부모는 35.4%로 나타났다. 맘에 들었던 이유로는 아이들과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다양한 음악, 아이들의 호흡에 맞추어 진행되는 것들을 맘에 들어 하였으며, 맘에 들지 않은 이유는 무응답으로 알 수 없다.

<표-101> 학교에서 음악수업을 참관할 기회를 주었나?

	빈도	퍼센트
있다	14	22.2%
없다	49	77.8%
합계	63	100.0%

<표-102> 참관을 하였다면 맘에 들었는가?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그렇다	9	64.3%	64.3%
그렇지 않다	5	35.7%	100.0%
보통이다	0	0.0%	100.0%
합계	14	100.0%	

<표-103> 맘에 들었던 이유/ 맘에 들지 않았던 이유

맘에 드는 이유	빈도	퍼센트
선생님이 아이들과 친구처럼 보였다	1	11.1%
아이들의 호흡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좋다	1	11.1%
음악을 즐길수 있는 교육이어서 좋다	1	11.1%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다양한 음악을 접하는 점	1	11.1%
영상을 통해 전해지는 아름다운 선율과 리듬이 좋다	1	11.1%
무응답	4	44.4%
합계	9	100.0%

맘에 들지 않는 이유	빈도	퍼센트
무응답	5	100.0%
합계	5	100.0%

음악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장르로는 국악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재즈는 단 한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실제로 대안초등학교의 음악수업에는 국악 중에서도 풍물이 있는 학교가 많았다. 이것으로 보아 대안교육 관계자들은 우리문화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어 하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 기타 대답으로는 ‘음악의 장르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아이들의 관심도 반영’, ‘나이에 맞는 동요’, ‘우선 악기를 즐기는 법’, ‘간단한 연주법’, ‘언급된 다양한 장르를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대안초등학교의 교사와 마찬가지로 대안초등학교의 학부모 역시 장르를 구분 짓기 보다는 아이의 흥미와 경험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음악교육이 전인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65.1%, ‘그렇다’ 27%, ‘보통이다’ 6.3%로 거의 모든 학부모들은 전인교육에 음악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4> 음악교육에 있어서 우선 시 해야 하는 장르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국악	26	41.3%	15	23.8%	4	6.3%
서양의 클래식	8	12.7%	16	25.4%	10	15.9%
대중음악	0	0.0%	1	1.6%	2	3.2%
퓨전	0	0.0%	0	0.0%	1	1.6%
재즈	0	0.0%	0	0.0%	0	0.0%
다문화 음악	10	15.9%	8	12.7%	13	20.6%
실용음악	9	14.3%	3	4.8%	10	15.9%
기타	7	11.1%	0	0.0%	0	0.0%
무응답	3	4.8%	20	31.7%	23	36.5%
합계	63	100.0%	63	100.0%	63	100.0%

<표-105> 전인적인 교육에 있어서 음악교육은 필요한가?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41	65.1%
그렇다	17	27.0%
보통이다	4	6.3%
그렇지 않다	0	0.0%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무응답	1	1.6%
합계	63	100.0%

3. 결과 요약

본 연구자는 음악수업참관, 설문지 조사,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한 음악교육의 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그 결과를 총 여덟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대안초등학교의 음악수업은 일반 공교육의 초등학교에 비해 매우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초등학교의 경우 거의 담임교사에 의해 음악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안초등학교에서는 음악전담교사를 따로 두고 있거나 음악수업의 내용에 따라 음악을 전공한 외부강사 또는 담임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대안초등학교는 음악교과서가 따로 없으며, 필요시에만 인쇄물을 나누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극소수의 학교에서는 슬레이트 수업을 위한 가창곡들로 구성된 자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기도 하며, 모든 교과목의 교과서를 자체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는 학교도 있다.

셋째, 대안초등학교에서의 음악교사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지도자가 아니라 가이드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대안초등학교의 음악교육은 가창, 기악, 신체표현을 주로 하고, 국악교육에 있어서는 풍물수업을 주로 하고 있다.

다섯째, 대안초등학교 학생들은 음악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매우 높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여섯째, 음악교육만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

일곱째, 평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평가 대신 학기를 정리하는 의미로 악기 발표회, 음악극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단, 교사는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평가를 기록하기도 한다.

여덟째, 기독교 대안초등학교의 음악수업은 타 학교보다 시수가 높고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자는 현재 우리나라 대안초등학교의 음악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34개의 대안초등학교를 수집하였다. 그 중 음악수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26개의 학교 중 15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결론을 내렸다.

첫째, 대안초등학교의 음악수업은 각 학교별로 하는 활동이 다르다. 가창 또는 기악활동을 위주로 하는 학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학교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가창 또는 기악 위주의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도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음악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 대안초등학교의 정규 음악수업은 일반 공교육의 초등학교에 비해 매우 전문성을 띠고 있다. 일반 초등학교는 담임이 음악수업을 맡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안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한 명 이상의 음악 전공자를 채용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조사한 15학교 중 음악을 전공한 교사(강사포함)가 없는 학교는 단 두 학교 뿐이었다. 나머지 13학교는 음악을 전공한 음악전담교사나 외부강사를 채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대안초등학교에서의 음악전공자 채용율이 높은 현상은 일반 초등학교와는 달리 실기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실기위주의 수업은 일반 초등학교의 방과 후 특기적성 수업과 비슷하며, 대안초등학교에서는 정규음악수업시간에 하고 있는 것이 공교육과 다른 점이다.

셋째, 기악실기교육은 양악기와 국악기로 이분화 되어있으며, 국악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안초등학교에서는 주로 풍물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15

학교 중 국악기 교육이 있는 학교는 총 7학교였으며, 그 중 단소와 민요 수업, 민요와 풍물수업이 있는 학교는 각각 한 학교씩이었고, 나머지 다섯 학교는 풍물수업만 하고 있었다. 양악기 교육은 리코더, 합창, 바이올린, 피아노, 오카리나, 핸드벨, 하모니카 등 다양한 악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국악기에 있어서는 그 종류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결과 중 <표-104>에 따르면 음악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장르로 국악을 1순위로 뽑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결과와는 다르게 실제 국악교육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대안초등학교 학생들은 교사와의 친밀한 상호작용, 이론중심이 아닌 가창/기악실습 위주의 수업을 함으로써 음악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만족해 하고 있다.

다섯째, 기독교 대안초등학교 음악수업의 주당시수는 다른 대안초등학교보다 높으며 다양한 활동과 차별화 된 수업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타 학교에서는 그들의 음악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도입할 부분은 과감하게 도입해야한다.

이상 다섯 가지 결론을 토대로 대안초등학교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위해 음악교육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시도해야 한다.

둘째, 학교의 여건상 음악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는 근접한 거리에 있는 다른 학교와 통합수업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 학생들이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안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높은 참여도와 흥미를 보여주고 있다. 음악교육에 필요한 제반시설이 확충된다면 학생들의 음악수업 참

여도는 더욱 높아지고, 전인적인 인간을 만드는 데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후속 연구로는 대안초등학교의 효과적인 음악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대안초등학교 음악담당교사의 근무여건에 대한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안초등학교 학력인정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대안초등학교의 음악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논문

- ▶ 강혜정, 초등학교에서의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8
- ▶ 김석환, 대안학교의 음악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2
- ▶ 김한별, 대안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의 음악 교육과정 분석,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12
- ▶ 한지혜, 서울시 도시형 대안학교의 음악활동에 관한 연구-하자 작업장 학교의 '재활용 상상 놀이단'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8
- ▶ 김현숙, 대안학교 음악교육의 현황과 실태 분석 연구-특성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2

2. 학술지

- ▶ 정진곤;조경원;류완영, 대안학교 교육이념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학술진흥재단, 1998
- ▶ 연구책임자:김영화, 공동연구원:서정화;황홍규,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2001
- ▶ 이종각, 초중등단계에서의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1
- ▶ 이병환;정영근;김순남 공저,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4.11

- ▶ 연구책임자:조금주, 공동연구자:이인규;신준섭;이종태,
대안학교 교육과정 체제 및 내용구조 연구,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2004.11
-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대안교육 국제심포지움 및 대안교육 한마당 개
최, 교육인적자원부, 2006.10.20

3. 단행본

- ▶ A.S.닐, 어린이의 삶을 사랑하는 교육, 서원, 1992
- ▶ 문사라, 노는게 배우는 것이다, SBS프로덕션, 1995
- ▶ A.S.닐, 서머힐, 두로, 1995
- ▶ 이정선, 왜 열린교육이어야 하는가? 교육과학사, 1997
- ▶ 데이비드 니버그, 열린교육의 철학, 학지사, 1998
- ▶ 최상덕, 강제적 획일화에 대항한 위대한 승리-써머힐 학교의 재탄생,
여름2000 교육개발(p. 94~97)
- ▶ 이선숙, 대안학교와 학생들의 생활이야기, 교육과학사, 2001
- ▶ 이기문, 새로운 학교 풍경:이땅에서 대안교육은 가능한가, 아침이슬,
2001
- ▶ 호리 신이치로, 키노쿠니 어린이 마을, 민들레, 2001
- ▶ 이종태,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민들레, 2001
- ▶ 김찬호, 교육의 판을 다시 디자인하는 대안교육, 한국교육개발원,
수록지명:교육개발 통권 제125호, 2002.9.10(p22-26)
- ▶ 강대중,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박영률 출판사, 2002
- ▶ 김명신, 대안교육:어제•오늘•내일, 문음사, 2002
- ▶ 박한숙, 미국초등교육 다시보기, 푸른사상, 2003

- ▶ A.S.닐, (어린이 참교육 지침서)서머힐, 산수야, 2003
- ▶ 손승영, 학업중퇴자, 학지사, 2003
- ▶ 이호철, 살아있는 교실, 보리, 2004
- ▶ 김성기, 대안학교 학력인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록지명:한국교육 제31권 제1호 pp117-136, 2004.4
- ▶ 민들레 편집실, 대안학교 길라잡이-초등편, 민들레, 2005
- ▶ 메르코글리아노, 크리스, 살아있는 학교 어떻게 만들까, 민들레, 2005
- ▶ A.S.닐, (자유로운 아이들)서머힐, 아람드리미디어, 2006
- ▶ 오인탁 등, 새로운 학교교육 문화운동:대안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학지사, 2006
- ▶ 민들레 44호
- ▶ 민들레 51호
- ▶ 교육인적자원부, 대안교육백서 1997~2007, 2007

4. 정책 자료집

- ▶ 국회의원 이주호, 한국 홈스쿨링 도입, 한국 홈스쿨링 도입을 위한 간담회, 2007. 1.31

5. 워크숍 자료

- ▶ 이철호, 대안교육 현재와 다음을 위하여, 2007(무지개학교 지원자 워크숍을 위하여 기존의 자료를 편집한 것이다. 편집에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임후남, 대안교육의 역사와 현황. 헌병호, 대안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치열, 대안교육에는 대안이 있는가. 이철호, 한국교육을 지배하는 거짓신화를 벗긴다.)

- ▶ 키노쿠니 연수 나눔 자료, 무지개학교, 2006

6. 인터넷 검색

- ▶ <http://www.mindle.org/>
- ▶ 연합뉴스 보도자료(2006.8.24)
- ▶ <http://cafe.naver.com/chosc.452>
- ▶ <http://www.younghoon.es.kr/>
- ▶ <http://www.unhyun.es.kr/>
- ▶ <http://www.saetbyeol.es.kr/>
- ▶ <http://cafe.naver.com/chosc/455>
- ▶ <http://cafe.naver.com/chosc/456>
- ▶ <http://cafe.naver.com/CafeIntro.nhn?clubid=12020168>
- ▶ <http://www.damool.or.kr/>
- ▶ <http://blog.naver.com/poet327>
- ▶ <http://cafe.naver.com/creatives/5>
- ▶ <http://www.hcjh.net/>

ABSTRACT

An alternative education is becoming an issue and relevant research and studies are substantially increasing.

Originally alternative schools were mainly dominated with middle and high-level education, as such schools have focused on adolescents that had a hard time adapting to school. Parents and students that want a better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are choosing alternative schools over public schools. The researcher believed that research on alternative elementary schools were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n analysis on the ongoing situations of music education in alternative elementary schools, and furthermore, seek ways to develop such education.

This research thesis was developed by participating in music class, surveys and teacher interviews 15 out of 34 schools nationwide alternative primary school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usic class offered by alternative primary schools were performed in a more professional way compared to general public education primary schools.

Second, such music class focus on song, instrumental music, appreciation, and rhythmic movement. Korean traditional folk music education focus on folk music instrument class.

Third, students at alternative primary schools are prone to take active participations in music class, and have very high interests in it.

Fourth, spaces for music class lack.

Finally, music evaluation is made in various ways such as individual and group musical instrument presentations and music dramas.

Based on the results stated above, the researcher has sought the following three ways to develop music education in alternative primary schools.

First, it is essential to diversify music education-related contents and devise new teaching methods so that students could have extensive experiences of music.

Second, it is desirable to seek many ways to help students have music experiences. For example, it is advisable to take steps to introduce integration education system, which allows schools, incapable of conducting music class in connection with the school circumstances, to conduct class together with other schools.

Finally, most students at alternative primary schools have high participations and interests in music. If every facility necessary for music education is well-equipped, a more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would take part in music classes.

In conclusion, the research thesis reveals South Korea's music education situations in alternative primary schools and seeks ways to develop music education.

부 록

<부록-1> 외국의 대안학교

1. 영국

1) **섬머힐 학교**-1921년 A.S.Neil(1883~1973)이 모든 어린이의 본성은 착하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학생들의 모든 생활에는 자유가 주어지며 학생 수는 70명은 넘지 않는다. 서로에게 피해가 가는 일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강혜정, 초등학교에서의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다른 학교에 비해 섬머힐의 이러한 지나친 자율성은 90년대 초부터 요주의 대상학교로 분류되면서 장학감사의 횡수가 찾아지게 되었고, 결국 1999년 런던의 한 법정까지 서게 된 섬머힐의 교수방법과 학생들의 수업 불참권에 대한 공방은 섬머힐의 승리로 끝났다. HMI 보고서는 섬머힐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실제적인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최상덕, 강제적 획일화에 대항한 위대한 승리-섬머힐 학교의 재탄생, 여름 2000 교육개발)

2. 독일

1) **프랑크푸르트의 자유대안학교**-초등과정의 자유대안학교 교육과정은 교수법 보다는 학습법 우선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시간표가 따로 없고 월요일 아침마다 열리는 부모, 교사, 학생들의 조찬모임에서 그때그때 학습과정을 합의하고 실천하는 방식을 택한다. 학생들에게는 수업불참의 거부권이 있다. 학습목

표는 미리 부과되지 않으며 학생 각자가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며 아이디어를 내고 그 사이에서 합의와 조화를 도출한다. 학습과 놀이기획으로 표상되는 총체적 학습과정은 아동들의 자유연상과 같은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촉진한다. (강혜정, 초등학교에서의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재인용)

2) **발도르프학교**-발도르프 학교의 교육과정은 전인적인 교육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지적교과와 함께 예술, 종교, 노작 교과가 중요시되며 인간의 생활 조건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수업 활동을 전개한다. 사회적 출신이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12년간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포괄하는 통합학교의 형태이다. 국가의 감독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학교자체의 지지 단체에 의해 관리된다. 에포크 수업과 조기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오이뤼트미(Eurythmie-창조된 몸을 움직이는 놀이 수업으로서 음악이나 언어에 따라 신체의 움직임을 예술적으로 형상화 하는 수업) 수업을 한다.

(강혜정, 초등학교에서의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3) **숲 유치원**-생태주의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를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시설해 놓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숲 유치원은 환경을 아예 숲으로 옮겨놓았다. 숲 유치원은 아이들의 자연친화적인 교감과 창의력을 길러 주기도 하지만, 소음이 없고 교사들도 불필요한 진화를 받을 필요가 없어 아이들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http://cafe.naver.com/chosc/369>)

4) 발도르프 유치원-발도르프 초·중·고등학교와 함께 독일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사립 유치원이다. 이곳의 특징은 교사를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항상 아이들의 상황과 발달단계에 맞추어서 운영한다는 것이며, 전통적으로 대안학교의 성격이 강하다, 자연주의를 추구해 놀이 재로도 자연을 소재로 한다. 세 살 된 아이부터 입학허가가 주어지며, 지방정부 보조금 외에 부모들이 능력껏 기부금을 내고 있다.

(<http://cafe.naver.com/chosc/369>)

3. 일본

1) 도쿄슈레-1983년 ‘부등교를 생각하는 부모들의 모임’에서 시작됐다. 이 모임은 3년만에 학부모 회원이 전국적으로 1,400명으로 늘어났고 이를 기반으로 1985년에 도쿄슈레가 문을 열었다. 이곳의 학생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며 책임진다. 도쿄슈레는 1993년 홈 에듀케이션(일본에서는 ‘홈스쿨링’ 대신 ‘홈 에듀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을 하는 학부모들을 모아 홈 슈레를 시작했다. 1999년에는 슈레 대학도 문을 열었으며 학력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미인가 대학이다.

(강대중,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박영률 출판사, 2002)

2) 키노쿠니 학교-‘섬머힐’과 ‘듀이의 교육방법’을 접목시킨 학교로 아이들의 개성과 체험을 중요시 한다. 초등학교 하나로 시작한 키노쿠니 어린이 마을이 지금은 초등학교 둘, 중학교 둘, 고등학교가 하나인 교육마을로 성장했다. 입학대기자도 많이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학교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중 한국인이 가장 많다고 한다. (<http://cafe.naver.com/chosc/453>)

*무지개학교의 키노쿠니 연수 나눔자료(2006년 9월)에 의하면 키노쿠니 학교의 대부분의 수업은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초학습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본지식들을 배우는 시간처럼 쓰여진다. 수업에 있어서 주도권은 교사나 아이들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으며 작은 결정 하나를 내릴 때에도 민주적인 방법을 이용한다고 한다.

3) **고마자와 하라파 플레이파크**-마을 공터에 공사장 흙 무덤을 쌓아서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전적으로 아이들의 책임에 맡겨 노는 공간을 제공하고 토지운영비는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연간 운영비는 주민들이 바자를 열어 수익금으로 30%정도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http://blog.naver.com/himesen>)

4. 미국

1) **메츠 고교**-현직 교사들이 만든 비영리 기구인 '빅 픽처(The Big Picture Company)'가 주 교육부에 제안한 새로운 학교모델에 따라 공립 대안학교로 설립됐다. 메츠 고교에는 일반적인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교과서, 교사, 수업 시간표가 없다. 주 5일제 학교이지만 월,수,금 사흘만 등교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시내 각지로 흩어져 관공서, 고아원, 동물원, 병원 등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배우는데, 이것이 바로 메츠 고교의 핵심인 '인턴십을 통한 학습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이다, 인턴십이 없는 사흘은 자신이 계획한 학습목표대로 학습을 한다. 메츠고교를 졸업하기 위해선 A4용지 75장 이상 분량의 자서전을 쓰고, 4학년 1학기 동안 지역사회나 학교에 기여하는 개인별 졸업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강대중,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박영률 출판사, 2002)

2) **올버니 프리스쿨**-올버니 프리스쿨의 철학은 인간은 누구나 배우고자 하는 자발적인 욕구가 있으며, 그 욕구가 분출하기 전에 억지로 가르치는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학교에선 학생이 배우고 싶어하기 전까지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를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생각하는 프리스쿨은 부모의 수입에 따라 수업료에 차등을 둔다. 교장이 따로 없으며 학생들이 투표로 뽑은 회장이 학교 대표가 된다.

(강대중,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박영률 출판사, 2002)

3) **우파티나스 학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통합학교인 우파티나스 학교의 학생은 저마다 학교 오는 횟수, 교육과정이 모두 다르다. 졸업 방식은 두 가지로 고등학교 과정의 교과목에서 21학점 이상을 받거나, 졸업 프로젝트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강대중,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박영률 출판사, 2002)

5. 덴마크

1) **프리스쿨**-교사 크리스텐 미켈센 콜이 1852년에 처음 설립한 일종의 사립 대안학교이다. 프리스쿨에서는 9년 내내 시험을 거의 보지 않지만, 졸업을 앞둔 9학년 학생들에 한해서 다른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업능력 평가시험을 치른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굳이 시험을 통해 검증하지 않고도 아이들의 학업 수준에 만족하면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프리스쿨은 시민들이 세운 학교지만, 교사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학교예산의 75~80%를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내는 수업료와 지역사회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나라에서 학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해서 학교 운영이나 교육과정에 교육부가 간섭하는 일은 거의 없다. (<http://cafe.naver.com/chosc/452>)

6. 프랑스

1) **CLEPT**-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에서 퇴학당한 청소년들을 위해 수년간 다양한 방식의 교육 자격증을 제공하고 있다. 시간표는 학생의 필요에 기초하여 작성되며 여러 해 동안의 실무 경험과 건전한 원칙들, 지역 공동체와 청소년들의 높은 참여율, 흥미로운 접근 방법과 교육 방식을 지니고 있는 발전이 유망한 학교이다.

(스콧 볼디트, 교육인적자원부, 2006)

2) **개방학교**-‘개방학교’가 의미하는 것은 학교 시간 외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학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방학교는 취약한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여가 활동과 보충학습,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

(스콧 볼디트, 교육인적자원부, 2006)

3) **오토에콜**-1년 이상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을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한다. 오토에콜은 모든 학생과 교사가 참석하는 매주 한 시간의 정기 모임이 열려 학교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사안들에 대해 토론한다. 이 학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학교와 각 학생들 사이에 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스콧 볼디트, 교육인적자원부, 2006)

4) **대체학교**-행실의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당한 11세에서 17세에 이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비 불어권 학생들은 대체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대체학교는 단기간의 기숙사 시설을 제공하고, 정규 학교 체계 또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을 한다.

(스콧 볼디트, 교육인적자원부, 2006)

7. 스페인

1) **사회노동 센터**-16세 이하의 청소년들 중에서 학교교육을 그만둔 이들이 기초 교육 부족에서 발생한 틈을 보충할 수 있는 여러 교육 활동들을 제공하는 공공복지 단체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도와주는 곳이다.

(스콧 볼디트, 교육인적자원부, 2006)

2) **라호타**-청소년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이웃 간에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는 지역 사회의 상황 악화에 대항하여 설립되었다. 라호타 센터는 이들 청소년들이 자격증을 따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

(스콧 볼디트, 교육인적자원부, 2006)

3) **올리베르**-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 학교를 그만두거나 퇴학당한 학생, 문화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한 학생, 사회적 약자인 학생을 우선으로 직업교육을 한다.

(스콧 볼디트, 교육인적자원부, 2006)

<부록-2> 설문지

<음악 담당 교사 관련>

* 다음은 선생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현재 근무하시는 학교명:
2. 성별:
3. 나이: 만 ()세
4. 교사자격증의 유무
있다() 없다()
5. 교직 경력: 공교육-()년 ()개월 / 대안교육-()년 ()개월
6. 전공(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7. 선생님의 최종학위
학사() 석사() 박사() 기타()
8. 선생님은 음악과목으로 채용된 교사이십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

*다음은 수업 관련 질문입니다.

9. 현재 음악 외에 담당하고 계신 과목이 있다면 모두 적어주세요.

10. 학교에 음악실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1. 음악수업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실() 음악실() 기타()

12. 12-1. 학교에 갖춰져 있는 악기를 모두 골라주세요.

피아노 장구 팽과리 북 징 탬버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심벌즈 바이올린 큰북 작은북 실로폰 플룻 기타()

12-2. 현재 보유한 악기가 음악수업 및 방과 후 특기적성(음악관련)

등의 활동을 할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12-3. 더 갖추어야 할 악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 음악 수업 시 악기활용을 자주 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4. 수업준비는 어떤 자료를 이용하시는지 세 가지만 순위를 매겨 주세요.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검인정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인터넷() 일반 음악관련 이론서()
일반음악관련서적() 음악관련학술지() 시청각자료() 기타()

15. 음악 수업시간에 주로 이용하는 수업방식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순위를 매겨 주세요.

강의() 주제토론() 개인별 이론보고서 발표()

모둠별 이론보고서 발표() 개인별 실기() 모둠별 실기()

현장체험() 기타()

16. 다음의 장르 중 음악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세 가지만 순위를 매겨주세요.
 국악() 서양의 고전 음악() 대중음악() 재즈()
 퓨전() 종교음악() 다문화 음악() 기타()
17. 음악교육 내용 선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8. 음악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역할은 어디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자료 준비자() 학습 정보 제공자() 평가자
 가이드() 지식 전달자() 관찰자() 기타()
19. 음악과 관련된 활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20. 음악과 관련된 활동을 위한 전문 교사가 따로 있습니까?
 선생님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있다() 없다() 기타()
21. 개설하고 싶으신 음악과 관련된 활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22. 평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세 가지만 순위를 매겨주세요.
 음악이론 필기시험() 음악이론 구술시험() 개인별 실기평가()
 모둠별 실기평가() 보고서() 평소의 수업태도만 평가()
 평가하지 않는다() 기타()

23. 평가의 수치화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수우미양가() 숫자의 점수화() 알파벳의 점수화()

서술식() 평가는 하되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도 기록하지 않는다()

기타()

24. 대안학교에서의 음악교육 저해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순위를 매겨주세요.

교육과정 운영 경험 미숙() 교수-학습 자료 부족()

학부모와 학생의 과도한 기대() 지나치게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

주당 수업 시수 부족() 학생들의 관심과 의욕 부족()

재정 지원 부족() 기타()

25. 대안학교에서의 가장 필요한 교사의 근무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순위를 매겨 주세요.

교구 구입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 학부모의 관심()

수업방식에 대한 학교측의 비 관여() 충분한 급여()

학생들의 참여도() 보장된 정년() 교사를 위한 복지() 기타()

<학생용>- 5학년 이상만 대답해주세요.

1.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

2.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다른 일반 학교와 교육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 모른다() 알긴 하는데 자세히는 모른다()

3. 이 학교를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가고 싶어서() 부모님이 가라고 하셔서() 친구 따라서()
기타()

4. 전에 다녔던 학교와 지금 다니는 학교 중 어느 학교가 더 좋은가요?

지금 다니는 학교() 예전에 다녔던 초등학교()
똑같다() 잘 모르겠다()

5. 이 학교의 어떤 점이 맘에 드는지 모두 골라 주세요.

학교 주변 환경(예:시골 같은 풍경)이 맘에 든다()
전교생의 수가 적어서 맘에 든다()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예:노작, 프로젝트 수업,
유적지 답사, 요리 등)을 많이 해서 좋다()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얘기하거나 돌아다녀도 되니까 좋다()
복장, 헤어스타일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다()
기타()

6. 이 학교가 맘에 들지 않는 점을 모두 골라 주세요.

주변 환경이 맘에 들지 않는다()
집이랑 너무 멀어서 교통이 불편하다() 전교생의 수가 너무 적다()
공부보다 다른 활동들이 너무 많은점이 싫다()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너무 자유로워서 공부에 전념할 수가 없다()
과제가 너무 많다() 기타()

7. 음악수업은 재미있나요?

네() ⇒ 재미있다면 무슨 활동을 할 때가 재미있는지 모두 골라주세요.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
수업과 관련된 비디오나 티브이를 볼 때()
음악감상() 창작() 기타()

아니오() ⇒ 그래도 재미있는 걸 한 가지만 꼭 고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래부르기() 악기연주() 비디오나 티브이를 볼 때()
음악감상() 창작() 기타()

8. 음악시간에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9. 음악시간에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 무엇인지 모두 골라주세요.

이론() 노래하기() 악기연주() 음악감상() 창작() 기타()

10. 현재 음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10-1. 재미있나요?

매우 재밌다() 재밌다() 보통이다()
재미없다() 매우 재미없다()

10-2.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 입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11.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음악과 관련된 활동을 한 적 있는 친구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옛날에 다녔던 학교도 포함)

11-1. 동아리 이름

11-2. 앞으로 음악과 관련된 동아리에 들 생각이 있나요?

있다() 없다() 모르겠다()

12. 앞으로 새로 생겼으면 하는 음악관련 활동 적어주세요.

13. 13-1. 실제로 음악회를 본 경험이 있나요?

있다() 없다()

13-2. 어떤 음악회였나요? 모두 골라주세요.

국악() 서양의 클래식() 뮤지컬() 가수 콘서트()

퓨전() 재즈() 기타()

13-3. 연주회장을 가 봤다면 주로 누구의 추천으로 가게 되었나요?

모두 골라주세요.

내가 스스로 골라서() 부모님() 친척()

학교 선생님() 친구() 기타()

13-4. 음악회를 또 보러 가고 싶나요?

네() 아니오()

13-5. 어떤 음악회를 보러 가고 싶나요?

국악() 서양의 클래식() 뮤지컬() 가수 콘서트()

퓨전() 재즈() 기타()

*** 다른 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만 답해주세요.**

14. 전에 다녔던 학교와 지금 학교 중 어느 음악수업이 더 재미있나요?

- 전에 다녔던 학교() 지금 다니는 학교()
둘 다 똑같이 재미있다() 둘 다 똑같이 재미없다()
둘 다 보통이다() 모르겠다()

15. 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음악 수업시간에 발표가 늘었나요?

- 그렇다() 그렇지 않다() 비슷하다() 모르겠다()

16. 전에 다녔던 학교에 비해 지금학교의 음악수업은 어떤지 모두 골라주세요.

-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악기를 다루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감상수업시간이 더 길어졌다()
이론을 배우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창작활동 시간이 더 길어졌다()
국악을 배우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다지 달라진 게 없다() 잘 모르겠다()

<학부모님 설문>

*다음은 학부모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나이:만()세

2. 최종 학력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기타()

3. 학부모님의 해외 유학, 해외 연수, 해외 거주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해외 유학, 해외 연수, 해외 거주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 없다()

3-2. 경험이 있으셨다면 나라를 적어주세요.()

3-3. 해외에 나가 계시는 동안 대안교육에 대한 정보를 접하신 적이 있나요?

있다() 없다()

4. 이 학교는 누구의 추천으로 알게 되셨습니까?

직접 알아봄() 친척, 지인() 자녀() 기타()

5. 이 학교를 선택하실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셨나요?

세 가지만 순위를 매겨서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 주세요.

위치() 시설() 학교의 교육철학() 교사의 학벌 및 경력()

학교의 수업 방식() 학교의 전통() 기타()

***다음은 자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6. 6-1. 자녀를 일반 학교로 옮기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있다() 없다() 현재까진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 6-2. 옮길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안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또래 나이보다 학력이 저하되는 것 같다()
좋은 학벌을 위해서는 공교육이 나올 것 같다()
지금 다니는 학교의 위치와 시설 등 환경이 맘에 들지 않는다()
기타()
7. 7-1. 자녀를 다른 대안학교로 옮기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있다() 없다() 현재까진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 7-2. 옮길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학교의 위치와 시설 미비()
현재 학교의 수업방식이 맘에 들지 않음()
다른 대안학교의 경험을 위해()
기타()
8. 주변에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하시겠습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있는 그대로 얘기만 해 줄 뿐 추천하지는 않는다()
9. 자녀가 음악은 좋아하는데 음악이론적인 면에서 약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악이론을 몰라도 음악을 좋아한다면 문제 삼지 않는다()
음악선생님께 음악이론을 보충해달라고 부탁한다()
음악이론 보충을 위해 따로 과외수업을 시킨다()
자녀가 스스로 음악이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기타()

10. 자녀가 국어, 영어, 수학 등 공교육에서 중요시 하는 과목이 약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걱정은 되지만 문제 삼지 않는다()

학교 선생님께 보충해달라고 부탁한다()

수업시간 외에 따로 과외를 시킨다()

일반학교로 전학시킨다()

자녀가 스스로 그 과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기타()

11. 학교 외부에서 자녀가 따로 배우고 있는 악기는 무엇인가요?

()

***다음은 음악수업관련 질문입니다.**

12. 12-1. 학교에서 음악수업을 참관 할 기회가 있었나요?

있다() 없다()

12-2. 참관을 하셨다면 수업 방식이 맘에 드셨나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12-3. 음악수업 참관이 맘에 드셨다면 어떤 점이 맘에 드셨는지, 맘에 들지 않으셨다면 어떤 점이 맘에 들지 않으셨는지 적어주세요.

13. 음악교육에 있어서 다음의 장르 중 어느 것을 우선 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만 순위를 매겨주세요.

국악() 서양의 클래식() 대중음악() 퓨전()

재즈() 다문화 음악() 실용음악() 기타()

14. 전인적인 교육에 음악과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